

## 수출 증가해도 수익성은 악화 시름깊은 현대기아차

원재료·물류비 상승, 환율하락도 악재  
수출가격 인상 등 경영전략 수정 검토

현대기아차가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시장에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현지 생산과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해외영업본부 관계자는 20일 "최근 냉연강판을 비롯한 자동차용 고급강 등 원재료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원달러 환율의 영향 등으로 수출시장에서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화 강세로 가격경쟁력을 잃었던 일본차가 최근 일본 정부의 환시장 개입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4분기 경영전략의 부분 수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 의선 부회장(사진)은 지난 5월부터 해외법인장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수출채산성 확대 방안을 중점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현대차는 그동안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 역제해 놓았다. 이렇듯 현지가격 상승

폭을 줄이기 위해 엘라베마 공장 증설을 포함해 기아차 조지아 공장 준공 등 다각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이어졌으나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향후 해외시장 현지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현대기아차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환율 영향도 크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기준 1163원으로 마감했다. 우연찮게 지난 5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직접 첫 해외법인장 회의를 주재할 즈음 환율은 1260원 선으로 수출시장의 채산성이 회복기에 접어들 즈음이었다. 그러나 7월초 1200원이 붕괴된 원달러 환율은 두 달 만에 1100원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환율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원가절감 및 환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환율 하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연초 사업계획서 작성시 올해 연평균 환율 수준을 1200원으로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책정했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냉연강판을 비롯한 자동차용 고급강의



가격 인상이나 물류비용, 환율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측은 "원재료 가격 상승은 대외적인 요인이다. 내부적으로 환율의 하락에 대비해 원가절감과 물류 효율화, 구매 합리화,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 확대 등을 통해 환율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수출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현대기아차 내부적으로 조금씩 '제값 받기'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형기자junior@

## 10월 4일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로 재탄생합니다

주간 '이투데이' 오늘 217호로 종간

10월4일 프리미엄 석간경제지 창간을 위해 그동안 217호로 종간을 앞둔 주간 경제신문(이투데이)은 217호를 마지막으로 종간합니다. 2006년 4월 독자 여러분께 첫 선을 보인 경제신문(이투데이)은 4년여 동안 바른 뉴스로 미래경제를 선도해왔습니다. 온라인 신문(이투데이)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서 투자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면 경제신문(이투데이)은 심층 분석기사로 미래경제에 대한 해안을 제시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이투데이)을 지켜보주시고 칭찬과 질책을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경제신문(이투데이)의 종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

작을 의미합니다. 10월4일 탄생할 프리미엄 석간 경제일간지(이투데이)는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후에 배달된(이투데이)를 읽으면 경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살 수 있는 삶의 철학을 배울 수 있습

니다. 또한 풍요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신선도 높은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프리미엄 석간 경제일간지(이투데이)를 지켜봐 주십시오. 경제신문의 신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간 경제신문(이투데이)과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석간 경제지 창간 PR페이지 29~32면



한가위 앞둔 농심은 풍성... 쾌청한 가을날씨에 일조량이 늘면서 올해도 벼농사는 풍년이 예상되고 있다. 김포시 하성면 동을산리 들녘에서 한 농민이 추수를 앞두고 벼 이삭을 살펴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lixer@

## 재벌가의 딸들 '면세점 大戰'

롯데 신영자·삼성 이부진 사업경쟁 점입가경

롯데그룹과 삼성그룹의 면세점 사업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면세점 사업 1위인 호텔롯데는 최근 업계 3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2위 호텔신라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최근에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면세점 사업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경쟁 구도는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양 그룹 면세점 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 거목 신영자 롯데 면세점 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의 경영 능력 검증으로 비추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국내 면세점 업계는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 업체인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의 경쟁 구도로 요동을 치고 있다. 호텔롯데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얻어 업계 3위인 롯데DF글로벌(舊 AK글로벌)을 800억원에 인수했다. 롯데의 AK면세점 인수는 호텔신라의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호텔신라는 지난 7월 롯데가 인수한 AK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안 요청서는 입찰 절차나 낙찰자 선정 방법을 안내해 입찰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며 호텔신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의 공세는 최근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호강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DF글로벌에 800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의 DF글로벌 출자금액은 모두 1600억원이 됐다. 지난해 호텔신라의 인천공항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38.3%로 롯데보다 1%포인트 가량 앞섰다. 그러나 롯데가 DF글로벌(13.9%)을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 싸움은 역전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시내면세점과 공항 면세점 시장 규모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롯데가 AK면세점을 인수하면서 품목까지 다양화해 호텔신라의 공항 면세점 사업 입지가 좁아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 LG전자 구분준 체제로

실적부진 이유 남용부회장 사퇴



LG전자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자진 사퇴한 남용 부회장 후임으로 구분준 LG상사 부회장(사진)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구분준 부회장으로의 LG그룹 경영권 이양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LG전자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날 사의를 표명한 남 부회장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10월1일자로 구분준 LG상사 부회장을 LG전자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남 부회장이 CEO로서 현재의 경영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편 새로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내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정가인사 이전인 오늘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박철근기자ckpark@

## '전세대란' 수도권으로 확산

집값 추가하락 기대감·이사철 맞물려

'전세난'의 기운이 엄습해 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과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서울(0.06%), 신도시(0.01%), 수도권(0.15%)이 일제히 올랐다. 서울에서는 용산(0.38%), 종로(0.32%), 성북(0.19%), 성북(0.18%), 동작(0.14%), 동대문(0.09%), 마포(0.08%) 등이 상승했다. 강남 도곡동 1차 아이파크 158㎡는 9월 첫째주 6억2000만~6억5000만 원 하던 전세금액이 둘째주 6억5000

만~6억8000만원으로 평균 3000만원 뛰었다. 성북구 돈암동 더샵 105㎡도 1억8000만~2억1000만원에서 2억~2억3000만원으로 평균 2000만원 올랐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롬 아파트 142㎡의 전세가격 역시 지난주 4억1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이었지만 이번주에는 1000만원 오른 4억2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 선으로 형성됐다. 서울지역 전세난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 0.12%, 신도시 0.03%, 인천 0.08% 등으로 점점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경기는 남양주시(0.35%), 이천시(0.32%), 광명시(0.27%), 용인시(0.25%), 평택시(0.24%), 군포 수원시(0.20%), 양주시(0.18%)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남양주 진접읍 신도브레뉴 127㎡는 1억~1억2000만원 선으로 1500만원 정도 상승했다. 광명시 역시 물량이 부족해 품귀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크게 뛰었다. 광명시 내손동 래미안에 버하임 79㎡가 1000만원 오른 2억~2억1000만원 선에 전세값이 형성됐다. 철산동 주공12단지 102㎡도 1000만원 오른 1억5000~1억7000만원 선이다. 안양시 안양도에 있는 수리산성원상 105㎡는 1억5000~1억7000만원으로 전주보다 평균 2000만원이 올랐다. <2면에 계속> 김부미 기자 boomy@

It's Beautiful

도시의 표정을 디자인하다

금호건설의 LED갤러리 빌딩엔 365일 날마다 다른 표정이 있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LED갤러리로 세상은 점점 다채로워집니다.

건설은 패션이다! 금호건설

금호아시아나 메인타워 LED갤러리

# 금감원, PF대출 건전성 강화 규준안 초안 마련

## 은행권 “기준 엄격, 엄청난 충격을 것”

사업성 평가 양호·보통·악화 우려 3단계 분류  
은행들 “초안시행엔 실적 악화 부실채권 급증”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평가에 대한 모범 기준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부실채권 급증이 불가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부실채권 증가로 충격받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며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의 세부원칙' 초안을 만들고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규준 초안에는 은행이 분기별로 PF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건전성을 분류해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사업장의 사업성과 사업진

행상황 등을 고려해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3단계로 나눈다.

사업장의 평가가 양호하다면 PF사업장을 받고 있는 시공사가 워크아웃(C등급) 상태에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

규준안에서는 PF사업장이 신용평가중 '악화 우려' 이하를 받았다면 은행들로 하여금 사업장의 대출을 일단 고정이하여신으로 묶어두도록 했다. 사업장의 상황이 좋아지고 분양률이 높아진다면 고정이하여신으로 묶어뒀던 PF대출을 정상여신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들이 주로 대형 시공사가 보증한 것만 믿고 PF에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아 사업성 평가에서 시공사의 보증 부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규준안에는 분양률이 60% 이상

이어야 원칙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평가시점의 기준치로 분양률 100%라고 해도 입주자가 잘 되지 않아 잔금이 들어오지 않은 곳에 대한 기준안도 설정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분양률을 맞춰야 하는 납팔당의 경우에는 5년 이후 분양률을 보는 것을 예시로 했으며 이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도 마찬가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PF에 대해 자체 평가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가지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며 "우선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현재 만들고 있는 기준안을 중심으로 자체 평가모형을 만드는 것이 보다 PF대출로 인한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의 초안대로 하면 일부 은행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정이하여신이 크게 늘어나 부실채권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PF 규준안이 은행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직 규준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실채권 증가는 막을 수 없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은행권과의 조율을 통해 부실채권 급증으로 인한 충격을 막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하지만 PF대출과 관련해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바젤III로 불확실성 없어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회에 참석해 시중 은행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중수 총재는 은행 건전성의 새로운 기준인 '바젤 III'과 관련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불확실성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전세대란 수도권 확산

▶1면에서 계속

스피드뱅크 조민이 팀장은 “가을 이사철에다 신혼부부들이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지역은 강남구, 용산구에 있는 전세값이 많이 올랐고, 수도권 지역은 광명이나 의왕쪽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조팀장은 “이렇게 전세값이 치솟고 있는 데는 매매시장이 좋지 않아 전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기존 전세계약자들이 눌러 앉기식의 재계약이 연장되면서 전세가 폭귀현상을 보이고 있

는 것이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이마윤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인데다가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제는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의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젊은층은 시프트 같은 저렴한 아파트가 있는데 굳이 비싼 민간 아파트 구매하려하지 않는다”며 “가격 부담이 덜 한 전세를 구하거나 정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입해 절약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 알립니다

프리미엄 석간경제지 이투데이 창간 기념 트레킹대회



## DMZ 걸으며 'G20' 성공 기원을

10월9일 김포국제조각공원 출발 6.8km...분단현장 체험도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는 창간 기념으로 오는 10월9일 DMZ 접경 트레킹 대회를 개최합니다.

문화관광부와 대한스포츠포츠협회 공동으로 주최 될 이번 대회는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구간에서 북한 땅을 보고 걸으며 G20 성공기회를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6.8km를 걸으며 가을정취를 느끼고 분단현장을 체험하는 가족행사이기도 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9월28일까지 인터넷(www.ilovedmz.com) 또는 전화(02-588-6700)를 통해 접수(선착순 3000명)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다양한 경품이 주어집니다. 관심있는 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일 정: 2010.10.09(토) 09:00 ~ 16:30  
인 원: 3,000명 선착순  
코 스: 김포시 국제조각공원 - 군부대 - 민통선 - 남방한계선 - 에기봉(6.8km)  
참가비: 성인 12,000 학생 10,000

접 수: 9월28일 까지  
선 청: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 사업추진단 홈페이지 (www.ilovedmz.com)  
문 의: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 사업추진단' 담당자 (02-588-6700)

주 최: 문화관광부, (사)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  
후 원: 이투데이·국방부·경기도·김포시·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관광공사, K-TV

## 월소득 450만원 이하 무상보육

### 정부, 내년 서민희망 예산 3조5000억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을 내년 예산의 3대 핵심 과제로 정하고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유아시설 이용 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보육가정이 전체의 70%로 확대되고 다문화가족은 소득액에 관계 없이 보육료를 국가로부터 받는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모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내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책임지는 보육'을 위해 무상보육 관련 예산(지방비 제외)

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20.1%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수혜 대상은 소득 하위 50%에서 중산층도 포괄하는 70%까지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1조9000억원으로 짜여진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을 만 1세에서 만 2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늘린다.

또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사업을 위해 신규 예산 3669억원을 편성했다. 다아이 지원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전문계 고교생 전원인 26만3천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로 준다. 내년 소요 예산3159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매칭해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사실상 무상교육 시행으로 해석된다.전문계고 학생의 산업현장 연수, 전문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 취업 지원에도 51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사업 예산을 올해 594억원에서 860억원으로 44.9% 증액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2만8천명에게 5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을 돕는 언어지도사도 늘리기로 했다.

이현선 기자 griffin@etoday.co.kr

**이투데이 漫評** 유영수 (yoobi@hanmail.net)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이투데이** www.etoday.co.kr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김중현 광고국장 김진택

중권부 (02)799-2658 신일부 (02)799-2664 금융부 (02)799-2661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유통경제부 (02)799-2667 경제부 (02)799-2655 국제부 (02)799-2650 (02)799-2604  
온라인부 (02)799-2640 사신부 (02)799-2633 편집부 (02)799-2620 광고협수·광고문의 (02)799-2601 (02)799-2602  
2006. 4. 27 등록번호 서울 다 07377-번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1부 1500원, 한달 6000원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6F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기술이 인정받는 나라, 기술보증기금이 만듭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기술보증기금이 선진국형 기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기술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노하우 그대로- 지식·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KIBO** 기술보증기금

훈천의[渾天儀] 국보 제230호, 조선시대 천문시계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계로 천문학을 연구하는데 쓰였다. 세계 시계 제작기술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천문시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대기업 내부매출 40% '계열사 몰아주기' 여전

### 10대 그룹, 주력 비상장사 의존도 줄지않아 포스코건설 67%로 최고... 현대엠코도 58%

올 상반기 대기업집단 최대 주력 비상장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을 통한 매출 비율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그룹의 주력계열사는 지난해와 비교해 내부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회사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본지가 국내 10대 그룹(공기업 3곳 제외)별 주력 비상장 계열사 7곳의 올 상반기 매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은 27조73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조7587억원과 비교해 2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그룹 특수관계인을 통한 매출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와 같은 40%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룹별로 보면 포스코건설의 올 상반기 내부매출비중이 67%로 10대 그룹 주력 계열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와 비교하면 14%포인트가 높아진 수치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코도 올 상반기 5322억원의 매출 중 58%인 3106억 원을 계열사 내부매출로 올렸다.

LG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서브윈은 올 상반기 매출 1조6194억원 중 절반인 8160억원이 내부매출이다.

반면 삼성, SK, 롯데, GS그룹의 주력계열사 내부매출 비중은 20~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토탈은 33%, SK건설 20%, 롯데건설 22%, GS칼텍스 30% 등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의 주력 계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대기업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하면서 몰랑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유사·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룹 내 특정 주력 계열사의 내부매출 비중이 높을 경우 시장 내에서 몰랑 몰아주기 등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있다"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oon0214@



충을 든 여인들 독립 200주년을 맞은 16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여군이 전통의상을 입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G20잔치 반갑기는 한데..." 코엑스 주변 상가 매출 걱정 '태산'

오는 11월 11~1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입주해있는 상가들이 울상이다. 주변 백화점과 상가들도 회의기간 동안 테러나 시위 등에 대비한 영업 제한과 강화된 경호로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코엑스몰 입점 상가들이다. 회의 기간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면 하루 10만여명

는 게 없다. 대부분 11월 20일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주변의 백화점과 상가들도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만약 영입이 중단된다면 하루 20억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G20회의와 관련해 정부의 보안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백화점 측에서도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변상가의 영업 불가 방침에서 정부가 한 발 앞보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

영업 중단이 결정되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 문제도 걸려 있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주요 행사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기간동안 일반인들의 코엑스몰 출입은 여전히 통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코엑스 내 상주인구가 1만명인데다가 회의 참석자들도 많아 이들 대상으로만 해도 영입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입점 상가들은 "하루 10만명 유동인구가 1만명으로 줄어드는데 장사하기는 다 틀렸다"고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경찰이 15일 회의 기간 각종 정상을 철저히 경호하기 위해 회의장 주변에 2.2m 높이의 안전방호벽을 설치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코엑스몰은 물론 주변상가들의 반응도 불만 일색이다.

코엑스 근처 한 상가 주인은 "2m짜리 방호벽은 1km남게 둘러치면 이곳으로는 통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회의기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엔 장사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철규기자yoonck@

회의기간 동안 경호 강화로 출입통제 불보듯  
정부선 "생업 지장줘선 안돼... 다각대책 검토"

의 유동인구가 사라지고 1만명의 코엑스몰 상주 인구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매출은 평소 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는 그만큼 커진다.

코엑스몰 한 입점 상가 주인은 "국가의 큰 행사라서 대놓고 불만을 표출할 수 없지만 평소 보다 수입이 없거나 10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것저것 눈치볼 것 없이 문을 닫으려 한다"고 말했다.

수입감소도 문제지만 각종 보안과 경호조치 등의 정부방침을 이행하는 것도 보통 교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요 전시나 컨벤션, 공연 일정도 9월과 10월로 집중됐고 11월달에는 11일 이전의 행사는 잡혀있

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만 말했다.

G20 회의로 인한 코엑스몰 입점 상가와 주변 상권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코엑스에 대한 정부의 보안방침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코엑스몰과 주변상가의 영업불가 방침을 검토했던 정부가 강제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엑스몰은 입점업체에 공문을 보내 "영업여부를 결정해 통보해달라"면서 회의가 열리는 동안 영업은 개별매장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영업중단 보다는 상인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없다는 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다.

테러위협과 각국 정상들의 경호 등 보안 때문에 코엑스는 물론 주

## 슈퍼 엔高... 日 6년만에 외환시장 개입 '반짝 효과'... 방향 바꾸기는 '글썸'

일본이 대대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가운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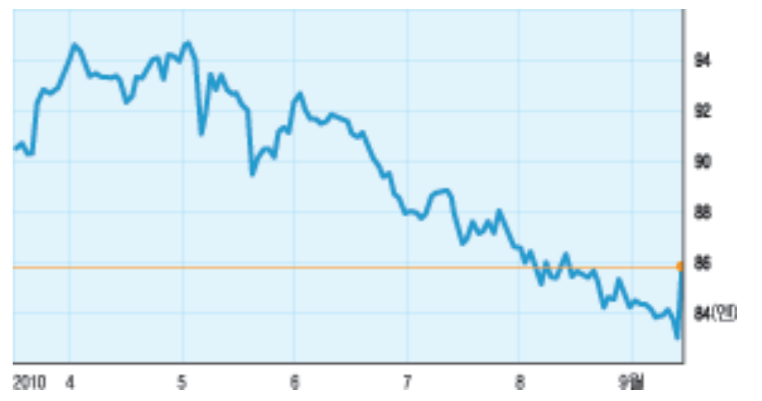
일본정부와 일본은행(BOJ)은 15일(현지시간) 6년만에 공식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이날 "정부는 82엔대를 저지선으로 잡고 있다"면서 시장개입에 나섰음을 인정했다.

진정시키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입이 성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사사키 토후루 JP모건체이스 애널리스트는 "중기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 단독의 개입으로 엔화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16일에도 일본정부의 개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 추이



### 간 총리 재계 압력에 달래기 나서 미국 경제불안 요인 영향 커 한계

일본의 개입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은 요동쳤다. 이날 엔화 가치는 달러에 대해 3% 이상 급락했으며 16일에도 0.1% 하락해 달러-엔 환율은 85.87엔으로 급등했다.

간 나오토 총리가 당대표 선거에서 성공하기를 했지만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엔화의 고공행진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블룸버그 통신은 간 나오토 총리가 재계로부터 엔 강세를

트레이더들은 전일 아시아시장에서 일본이 팔아치운 엔화 규모만 1조엔(약 13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엔화 달래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간 총리 내각에게 엔화는 골칫덩이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향후 과장이 만만치 않지만 당국의 직접 개입은 단기적인 환율 안정에는 약발이 먹힌다는 평가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엔화 가치는 11%가 넘게 올랐다. 개입이 있었던 전일 엔화 가치는 3%가 넘게 빠졌다. 일본은 미국시장에서도 달러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탑 오실리반 포렉스닷컴 수석 트레이더는 "일본은행권이 일제히 달러를 사고 있다"면서 "마치 중앙은행의 개입을 돕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일본 단독 개입으로는 개입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엔화의 강세에는 내

부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달러 약세 요인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개입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개입이 일단 시장의 관심을 끄는 것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달러-엔 환율이 80엔대 밑으로 하락할 경우 일본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천만불의 새마을에서  
희망을 내딛는 새마을

- 그의 꿈이
- 1등 트로피에 머물렀다면
- 많은 아이들의 꿈이
- 그저 꿈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 메이저 무대에서 받은 상금을 모아
- 아이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한 최경주
- 그가 나눈 천만불보다 값진 희망이
- 더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을 키웁니다  
Great Money

2009/1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한국지수  
은행산업 최우수기업 선정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 Korea Member 2009/10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 신한 BNP 파리바 | 자산은행 | 신한데이터시스템  
신한신용정보 | 신한프라이빗에쿼티 | 신한아이티스

나의 금융브랜드 신한금융그룹

# 11월 미중간선거 약세증시에 藥될까

### 지난 19번의 선거 중 18번 S&P500지수 상승 일부선 “펀더멘탈 안변해 그리드록 빠질수도”

미국 중간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증시는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심을 감안할 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 이후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 이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연출했다. 미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지난 19번의 중간선거 중 S&P500지수가 상승한 것은 18번에 달한다. 선거 이후 6개월에 걸쳐 S&P500지수의 상승폭은 13%를 기록했다. 12개월 상승폭은 17% 정도다.

빈키 차드하 도이치뱅크 수석 투자 전략가는 “중간선거가 없을 경우와 비교할 때 증시는 매우 좋았다”면서 “어느 당이 승리하건 증시는 올랐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경우 공화당이 야당일 때 선거 이후 증시 상승폭은 컸다. 빌 스톤 PNC웰스메니지먼트 수석 투자전략가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증시가 좋았다”면서 “(증시의) 최근 순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PNC웰스메니지먼트에 따르면 민

주당 집권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S&P500지수는 연평균 14.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민주당을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록 폴리티컬 리포트’는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적으로도 집권 여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패한 것이 과거 중간선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선거 이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이 유럽발 재정위기 등 외부요인이었던만큼 중간선거가 끝나더라도 경제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클 요시카미 YCMNET어드바이저 수석 투자전략가는 “현재와 같은 경제에서 벗어나기에 경제는 너무 많이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간선거 이후 증시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는 물론 증시 역시 ‘그리드록(Gridlock)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뉴욕증권거래소 전경.

그리드록이란 정부와 의회를 서로 다른 당이 장악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지타운 맥도너프 경영대학원의 제임스 엔젤 교수는 “정치인들이 뜻을 모으지 못한다면 세금과 에너지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것이 확실 시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LPL파이낸셜의 제프 클레인탐 수석 투자전략가는 “향후 정책은 보다 친기업적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시스템 개혁과 헬스케어 개혁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시행 정

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드하 도이치뱅크 전략가는 “헬스케어와 금융시스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업종의 주가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용시장의 개선이 경제회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올해 기업 순이익이 큰 폭 증가했지만 이는 대부분 비용감축과 재고 조정 때문이라는 것이라면서 소비 부진이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용이 관건이며 중간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기업은 경기전망에 따라 고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포춘은 전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 HP 끝없는 M&A 야욕

### 보안SW‘아크사이트’인수... 8월 이후 벌써 네번째

세계 최대 PC업체 휴렛팩커드(HP)가 끝없는 인수·합병(M&A)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HP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보안 소프트웨어업체 아크사이트를 15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P는 아크사이트를 주당 43.50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주말 아크사이트 주당 35.10달러에 24%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인데다 HP가 애초 제시했던 8월 25일 종가에 비해서는 54% 높은 수준이다. 아크사이트 인수로 HP는 보안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HP는 지난 8월 초 마크 허드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 이후 벌써 네번째 M&A를 성사시킨 셈이 됐다. 앞서 HP는 이달 초 세계 3위 PC 제조업체 델과의 경쟁 끝에 스토리지 업체 3Par을 23억5000만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에도 HP는 주당 33달러를 지불하기로 해 M&A 발표 전 주가

대비 3배나 많은 과격적 인수 금액을 제시하며 막판 승리를 거둬 강력한 인수 의지를 과시했다.

지난달에는 보안 소프트웨어업체 포티파이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자동화 소프트웨어업체 스트라타비아를 인수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HP의 공격적인 M&A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MO캐피탈마켓츠의 키스 바흐만 애널리스트는 “누가 M&A를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인수 가격이 가치에 비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바흐만 애널리스트는 다만 “HP와 아크사이트간 인수 논의가 한 달 전부터 진행돼왔다”면서 “신임 CEO가 부임한 후로 M&A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빈스타인리서치의 토니 사코나키 애널리스트도 “이번 인수가격이 비싸다”면서 “이번 거래로 인해 마크 허드 전 CEO의 사임 이후 자산 매입에 주력하는 HP의 전략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HP가 기업 대상 기술 상품 및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점에서 이번 아크사이트의 인수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시스코시스템스 오라클 델 등 다른 대형 기술 업체들과 같이 HP는 기업 대상 데이터 스토리지 부문에 대한 M&A에 나서고 있는 상황.

방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이 사업 분야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아크사이트는 지난 회계연도에 순이익 3050만달러, 매출액 1억 814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ISI그룹의 애비 램바 애널리스트는 “HP가 보안 기술을 비롯해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스토리지 부문 등에 대한 M&A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보안 분야에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업체들을 더 매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 美 기업들 “아이비리그 가지마”

### 경기침체로 비용감축 위해 주립대 출신 채용 대폭 늘려 학비 부담 학부모에 ‘희소식’

미국 기업들이 동부의 사학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보다 주립대 졸업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경제전문지 포춘은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비용감축과 고용 절차 간소화를 위해 명문 사립대보다 주립대 출신 채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최근 금융 컨설팅 마케팅 기술 등 30개 산업분야의 리쿠르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해 소규모 사립대와는 달리 광범위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주립대에서 기업문화에 적합하고 일할 준비를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얻을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주립대 가운데 특히 펜실베이니아주립대, 텍사스A&M대, 일리노이대 어버나-샴페인 캠퍼스(UIUC) 졸업생이 최고로 꼽혔다. 이는 스탠퍼드대, UC 버클러대 등 명문 사립대를 다니는 자



미국 기업들이 명문 사립대보다 주립대 출신 채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 사진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전경.

녀의 비싼 등록금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대학 등록금이 미국인들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평균 가계수입은 40년 전보다 6.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주립대 등록금은 15배 올랐으며 지방대는 24배나 뛰었다. 사립대의 경우는 등록금이 주립대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일반 가정이 감당하기에 는 벅차다.

미 민간 대학교육기관인 칼리지보

드에 따르면 2009-2010년 4년제 사립대 학비는 연평균 3만5636달러(약 4126만원)에 달한다. 4년제 주립대 학비는 7020달러였으며 지방대는 1만 8548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기업들의 주립대 졸업생 채용 선호 현상으로 경기침체가 동안 치솟았던 연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 교육부는 이번 주 초 사립대 출신의 지난 2008년 연체율이 전년의 3.7%에서 4%로, 주립대 졸업생의 경우에는 5.9%에서 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 美 검색시장 이변 일어났다 MS ‘빙’ 야후 제치고 2위

지난달 미국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이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야후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선 것. 14일(현지시간) 시장 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검색사이트 순위에서 빙의 시장점유

율은 13.9%에 달해 13.1%인 야후를 눌렀다. 1위는 65.1%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부동의 1위를 이어갔다.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8월의 64.6%에서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MS와 야후의 점유율은 각각 10.7%와 16.0%였으나 1년간 MS



가 야후의 점유율을 뺏아낸 셈이다. 올 8월 야후가 MS의 검색 기술을 채용, 양사의 미 검색사업은 사실상 통합된 바와 다름없다.

MS는 제휴를 통해 구글을 추격할 계획이었지만 양사의 점유율은 단순 합산해도 27.0%에 그쳐 제휴가 무색해지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中 CIC, 동남아 투자 대폭 늘린다

### 향후 8년간 투자 사모펀드 100억달러 규모로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동남아시아 인프라 및 신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CIC는 중국 수출입은행과 연계해 동남아 인프라 및 신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10억달러(약 1조 163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설립한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주신창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은

행과 CIC는 각각 3억달러를 출자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 52%. CIC는 자본 24%를 각각 보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남아시아 투자 사모펀드를 8년래 1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 등 원래 국내 개발 지원 목적으로 설립됐던 은행들이 지금은 해외개발전략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수단이 됐다. 개발은행이 지난 2007년 10억달러 규모의 중국-아프리카 개발 기금을 조성하면서 이들 은행의 전략적인 해외 투자 확대가 본격화됐다고 WSJ는 전했다.

CIC와 수출입은행이 연계해서 만든 이번 사모펀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해 말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펀드 설립은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키는 핵심요소 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www.iprovest.com

교보증권

## 현명한 펀드 관리의 시작

# 교보증권으로 옮기세요!

- | 펀드도 꼼꼼하게 관리 받자! 펀드클리닉 센터
- | 펀드와 보험 혜택을 동시에! 무료보험 가입 서비스
- | 펀드 유형별로 찾아 볼까? 다양한 펀드 판매
- | 펀드투자도 입맛대로! 맞춤 포트폴리오 구성

**펀드 판매사 이동제란?**  
 보유하고 있던 펀드를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교보증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보증권 고객센터 1544-0900으로 문의해주세요.**

\*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가입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 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0-1062호(2010.3.4~2011.3.3)

# 국내은행 “바젤Ⅲ 최종안 걱정없다”

### 기본자본율 이미 10.9%...기준치 4.5% 웃돌아

국내은행들은 바젤위원회가 합의한 바젤Ⅲ의 최종안을 놓고 크게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2013년 까지의 유예기간을 통해 기본자본율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바젤Ⅲ의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의 리스크평가인 RIDAS에 바젤Ⅱ 규정중 하나인 pillar2를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13일 “바젤Ⅲ의

최종안이 확정됐다고 하나 이미 국내은행들의 기본자본율은 최종안의 기준인 4.5%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보완자본(Tier2)에서 신중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이 제외된다고 해도 그 규모는 1% 내이다”고 말했다.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본율은 2013년까지 4.5%가 돼야 하며 2019년까지 6%로 높아져야 하지만 현재 국내은행의 기본자본율은 10.9%로 크게 웃돌고 있다. 국내은행은 지난해 감독당국의 기

본자본율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보완자본(TierⅡ) 역시 바젤Ⅲ의 기준인 2%를 웃도는 3%대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통주와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 핵심기본자본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보완자본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기자본의 질적 구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바젤Ⅲ의 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고 레버리지비율도 새롭게 도입되면서 감독규제도 2017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리스

크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pillarⅡ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pillarⅡ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한 후 자기자본에 대해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illarⅠ와 pillarⅡ 중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2017년 상반기까지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인 논의가 끝나 후 2018년부터 강행규제도 시행할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 “금감원 검사관행 개선” 금융권 97% 긍정대반

금융감독원의 검사관행이 종전보다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 금융사들의 숨겨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서비스 품질제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품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 종전보다 검사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96.7%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자료요구, 확인서, 면담, 의견수렴 부문에

### 역전세 대출 보증 재개

지난 15일부터...대출한도 5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벌어지는 전세금 반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제도’를 15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보증대상자로 하고 있다.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을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을 한도로 소요자금 이내에서 별도의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다만, 신청금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연 0.6%가 적용된다.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는 없으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보증이유가 제한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 KB미소금융재단 인천지사 문열어

### 여운대 KB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 회장 여운대 KB국민은행장이 지난 14일 오전 KB미소금융재단 인천지사 개소식을 마친 뒤 인근 신포시장을 방문해 미소금융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민병덕 KB국민은행장, 여운대 KB금융지주 회장.

# 자동차보험료 내달 또 오른다

### 9월 4% 이어 2.5~2.7% 추가 인상 검토

자동차보험료가 이달에 이어 다음달 추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이카다이렉트, 에르그다다이렉트, 약사다이렉트 등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과 일부 중소형 손보사들은 10월에 자동차보험료를 2.5~2.7%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보험사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4% 인상했지만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손해율은 지난달 80%를 넘어 자동차보험 수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8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 집계 결과 손해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8곳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 전용 보험사들의 경우 에르그다다이렉트의 손해율은 무려 96%에 달했으며 하이카다이렉트와 더케이손해보험도 각각 86%, 85.9%를 기록했다.

AXA다이렉트도 손해율이 83%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워낙 높아져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이달에도 올린 만큼 2% 중반대 수준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과일, 야채 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공공물가가 들쭉거리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마저 또 오르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해리 기자 healee81@

자산관리, 어떻게 시작하지?

**동양종합금융증권 MY W**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는 사람. 나만의 투자목적에 맞춰주는 사람. 나의 재산을 키워주는 사람.

**WISE SOLUTION**  
과학적인 종합자산관리시스템(WMS) / 여유자금투자채터 재무목표 달성까지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WELL-TRAINED**  
전국 모든 지점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전문 PB / 차별화된 PB 서비스

**WIDE OPPORTUNITY**  
펀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나의 맞춤형 자산관리 MY W.

# “손보 균형성장...공익사업도 강화”

### 문재우 손보협회장 향후 중점추진사항 밝혀

문재우 신임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자동차보험 체질개선을 통한 만성적 적자구조를 해소하고 손해보험의 공익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회장은 지난 13일 취임기념 기자회견에서 손보산업 발전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향후 중점추진사업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일반장기,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다원화 성장전략’을 추진,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우 회장은 △일반보험 저변확대 및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손해보험 역할 제고 △자동차보험 체질개선을 통한 만성적 적자구조 해소 △손해보험의 공익사

업 강화 △소비자 보호강화를 통한 손해보험 이미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안정도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물, 배상책임, 비용손실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전문적인 손해보험 저변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 회장은 “자동차보험 체질개선을 통한 만성적 적자구조 해소하는 한편, 손보산업이 갖는 사회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감소를 통한 손해를 안정화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1월 G20 정상회

의 개최 관련, 교통기초질서 및 교통안전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공동으로 교통캠페인 및 언론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우 신임 회장은 “중점추진과제의 성공을 위해서 업계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며 “향후 손보사들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외국 및 타금융업권에 비해 불합리한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업법, 농협법 등 관련 법률의 합리적인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해리 기자 healee81@

# 국내 총 금융자산 1경 넘었다

### 2분기 1경3조6000억 기록

2분기 우리나라 총 금융자산은 지난 1분기 대비 2.65% 증가한 1경3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로 개인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이 늘어나 재무건전성 지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발표한 '2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에서 올해 2

분기 말 개인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33배로 집계돼 지난 1분기 2.31배로 증가했다. 특히 이는 2007년 3분기 말(2.35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개인의 금융자산/부채 비율은 2008년 말 2.10배에서 지난해 1분기 말 2.16배, 2분기 말 2.24배, 3분기 말 2.29배, 4분기 말 2.28배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6월 말 개인 부문의 금융자산은 2045조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47

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여기에도 상거래신용, 기타 금융자산 등을 합칠 경우 개인 부문의 총 금융자산은 6월 말 2053조6000억원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20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은 금융자산이 1030조4000억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29조9000억원이 늘어났으며 부채는 28조원을 늘어난 1283조원으로 집계됐다. 장해리 기자 healee81@

# “들뜬 추석연휴 주식은 ‘들고’ 가라”

### 보유·저가 매수 전략 유효... 무역·화학·IT 유망 스마트폰 열풍관련 NHN등 콘텐츠업체 주목

추석연휴가 성큼 다가서면서 주식 시장에서 1800선을 넘어서며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주식을 사야 할지 아니면 보유주식을 팔아야 할지 고민에 휩싸여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추석연휴를 앞두고 주식을 보유하는 전략이나 조정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존 추석연휴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던 소비재 관련주나 기업의 모멘텀이 견조한 무역, 화학, 자동차업종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최근 스마트폰 열풍과 관련한 콘텐츠업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화증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 코스피의 주가와 거래량은 추석 연휴 5거래일 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추석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은 무역, 화학, 자동차업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며 “또한 기업가의 모멘텀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무역, 화학, 자동차업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추천했다.

이경수 토리스증권 연구원은 “추석 연휴 동안 미 주택경기 지표 발표가 집중돼 있어 투자자들이 이번주 주식을 팔고 연휴를 맞이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주택

경기 최악의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감으로 주식을 팔고 추석 연휴를 맞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고민의 초점을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해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중간재 성격의 IT, 원자력 및 태양광,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등 G2의 정책관련주에 계속해서 무게 중심을 둔 투자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석은 스마트폰 열풍과 태블릿PC 출시 예정으로 관련 콘텐츠 업체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NHN, 더존비즈온, 온미디어, 엔씨소프트, CJ인터넷, 게임빌, 컴투스 등 콘텐츠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국내 증시가 3년여만에 1800선을 탈환하는 등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다수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코스피 고점을 1900선으로 전망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최근 연속 상승에 따른 기술적 조정 가능성과 함께 높아진 가격대는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대외 변수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종목 선택에 있어도 고민이 뒤따른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이 진입할 타이밍을 놓친 투자자라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배당주 부국증권 연구원은 “최

# 타이밍 놓쳤다면...“배당주 강추”

최근 증시가 3년여만에 1800선을 탈환하는 등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다수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코스피 고점을 1900선으로 전망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최근 연속 상승에 따른 기술적 조정 가능성과 함께 높아진 가격대는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대외 변수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종목 선택에 있어도 고민이 뒤따른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이 진입할 타이밍을 놓친 투자자라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배당주 부국증권 연구원은 “최

근까지 코스피지수가 강하게 반등한 상황으로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다”며 “지수 흐름이 연말까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강봉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적인 전망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돌아서고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에 저금

리 기조 유지와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점, 과거 배당주 투자 성과가 9월에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했음을 감안해 배당주 투자는 효과적인 초과수익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해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주 투자는 수익률의 변동성이 작으면서도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배당수익률에 비해 배당수익률과 모멘텀 매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이 꼽은 대표적인 배당 유망주로는 율촌화학과 파라다이스, 강원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휴켄스, 대덕전자 등이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1800회복 증시 추가 상승 전망 전문가 “효과적 초과수익 전략” 율촌화학·파라다이스 등 꼽아

### 정몽구 회장 주식자산 사상 첫 6조원 돌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상장사 보유 지분 가치가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정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13일 종가 기준 6조862억2000만원으로 사상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다. 정 회장의 지분 가치는 지난해 1월2일만해도 1조8507억8000만원에 불과했으니 올해 1월4일에 4조5646억4000만원으로 급증한 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가가 4.73%씩, 현대제철은 2.62% 올라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현대모비스는 LG화학, 삼성생명 등을 제치고 시가총액 4위로 뛰어 올랐다.

기아차도 3.72% 오르는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주가가 상승하면서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익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조2021억7000만원으로 지분 가치를 늘려, 경쟁한 재계 선배들을 제치고 4위에 위치했다.

정 부회장은 작년 초 5923억2000만원에서 올해 초 1조4653억6000만원으로 올라선 뒤, 수직 상승하고 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현대홈쇼핑 신규성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오전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TV홈쇼핑체인 (주)현대홈쇼핑의 유가증권시장 신규성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서태환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이창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민형동 (주)현대홈쇼핑 대표이사,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 C&S자산관리 대주주 ‘수상한 거래’

구천서 회장 321만주 매각후 주가 미끄럼타

C&S자산관리 최대주주가 주가가 고점인 시점에서 보유 지분을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C&S자산관리는 지난 14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구천서 회장이 보유주식 321만565주(5.11%)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주식 처분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로, C&S자산관리의 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KMI) 출자로 주가가 급등했던 시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구 회장은 7일 장내매도를 통해 87만4000주, 8일 87만주, 9일 102만주, 10일

36만6565주 등 연일 내다 팔았다.

구 회장이 주식을 처분한 기간은 공모로써도 C&S자산관리의 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KMI) 출자로 주가가 급등했던 시기다.

C&S자산관리는 KMI 출자에 따른 제4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9일 한때 주가가 143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C&S자산관리 주가는 구 회장의 처분 이후 출금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강재용 기자 manrikang@

## 중 내수주에 ‘뜨거운 눈길’

제조업 지표 개선으로 관련주 주목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에 낮은 배율에이션이 매력적인 중국 내수 관련주 열풍이 불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 강세가 불가피하고 이는 수입물가 하락과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중국 내수 관련주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경제의 성장과 소비 확대에 대한 확신이 꺾이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에 하나대투증권은 시장이 모멘텀을 확보하기 힘든 구간이라며 중국 내수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서동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때로는 중국의 경제지표를 보고 중국 내수관련주의 주가를 판단하는데 중국의 소비는 마이너스로 갈 개연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하단이 견고하다는 전제하에서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에 주목하는 것이 유효한 투자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증가하는 기율기의 문제일 뿐 중국의 소비가 감소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며 “중국 소비 관련 지표는 등락을 보이지만 내수 관련주들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증권도 현재 중국 내수 확대 판

련주의 밸류에이션 및 가격 메리트가 상당하며 특히 저평가 종목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이경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국 관련주의 강세는 향후 성장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현재 중국 내수 확대 관련주에 대한 프리미엄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오히려 밸류에이션 상향이 좀 더 이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순간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증권사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를 살릴 대안으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에 자생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위기 이전 조선과 철강주가 중국 수혜 기대감으로 거품이 일어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 자산운용사 부익부 빈익빈

상위 5개사 당기순익 70%차지

전체 자산운용사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지만 골드만삭스·JP모건 등 대표 외국계 운용사들은 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73개 자산운용 회사의 올 1분기(2010년 4월~2010년 6월)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펀드순자산액(NAV)은 320조원으로 전년 동

기말의 334조1000억원에 비해 14조1000억원 줄어 들었다.

펀드실적액 역시 33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말의 375조3000원 대비 39조원 감소했다. 반면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075억원으로 전년 동기 956억원보다 119억원, 12.4% 증가했다.

회사별로 평균 당기순이익의 15억원을 상회하는 운용사는 15개사로 미래

에셋 등 상위 5개사 전체 당기순이익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73개사 중 30사(41%)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 회사 중 20사는 신설사로 조사됐다.

골드만삭스와 제이피모건 등은 전 분기에 이어 10억원, 4억원 순손실을 나타내며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인건비 등 영업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영업의 비용의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재용 기자 manrikang@

www.liftexpo.co.kr



# 승강기 100년을 꿈꾸는 희망의 장

### 2010 한국승강기안전엑스포 2010. 12.15-18 Coex, Hall C

**주최/주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코엑스  
**후원** 행정안전부, 승강기 100주년 기념사업단  
**후원매체** 건설경제신문, 국토일보, 월간엘리베이터 주자설비, 리프트포커스, 한국건설신문, 건설기술, 건설이코노미, 한국아파트신문

승강기 업계의 관심제고 및 참관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

일자	시간	행사명	참석자	장소
12.15(수)	10:00~10:30	1. 엑스포개막식 -테이프 커팅식 -전시장 관람 및 안전체험	300	Hall C
	10:30~11:40	2. 100주년 기념식 -공로자 표창(12명) *장관상: 5명, 승관위원장상: 7명 -UCC상상자 시상(10명) *장관상: 3명, 승관위원장상: 7명 *UCC예선: 10.9-10월	300	Hall C
	13:30~14:30 14:40~15:30	3. 일자리 마련 결의대회 개최 4. 100년사 출판기념식	200 100	Hall C Hall C
12.16(목)	10:00~16:00	5. 안전사고 개선 토론회	100	코엑스 세미나실
12.17(금)	10:00~16:00	6. 신기술 세미나	100	코엑스 세미나실

승강기안전 홍보대사 배우 최지혜



Coex, Seoul Korea  
Tel. 02-6000-1076 / Fax. 02-6000-1310 / E-mail. lift@coex.co.kr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Tel. 02-3497-7418 / Fax. 02-3497-7419



사랑으로 하나되는 지구촌- LG전자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 365일 보송보송~ 여자의 생활이 한층 더 올라갑니다!



40분만에 보송보송한 빠른 건조

옷감보호에 구김, 냄새, 먼지, 보풀 제거까지

LNG가스로 저렴한 유지비용  
(6Kg 15일 사용기준 월5,300원)

RN1044VA  
(최대건조용량 10kg)

F4530MC

정말 기회대! 건조기를 구매할 Good Chance!  
**LGTROMM 건조기 보송보송 365 EVENT**

- 기간 | 2010년 8월 1일~9월 30일
- 제품 | TROMM의류건조기 가스식 모델
- 대상 | 행사기간내 제품구매고객(2010년 한정)  
\*단, 10월 15일까지 설치완료한 고객까지 한함
- 혜택 | 01> 가스배관 설치비 지원 (1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지급)  
02> 10만원권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 등록시
- 행사점 | 전 채널 (온라인구매고객 제외) (지역 11번지)

## LG TROMM 건조기

### ■ 전시매장

• 서울/경기 LG베스트샵 디오스노현점 (02)542-8755 / 대치점 (02)549-8001 / 용인죽전점 (031)896-0044 / 강서본점 (02)3664-0065 / 0탑점 (031)708-7800 / 남서울가전 (02)2672-9881 / 인화프라자 (02)337-3050 / 수지프라자 (031)266-0047 / 신이점 (02)417-8989 / 행신점 (031)971-2225 / 성수전자 (02)470-7777 / 강남전자프라자 (02)576-3900 / 에비씨가전 (02)617-7447 / 암사카전프라자 (02)3427-7777 / 백화점 롯데분점 (031)738-2808 / 롯데본점 (02)756-0980 / 현대 무역 (02)3453-0705 / AK PLAZA 분당점 (031)779-3690 • 영 남 창원 상남점 (055)267-8855 / 대구 범어점 (053)601-7700 / 부산 해운대점 (051)742-2655 • 대전 송촌점 (042)638-2500 / 문산점 (042)471-0440

■ 제품 홈페이지 : [tromm.lge.co.kr](http://tromm.lge.co.kr) ■ 문의처 : 지역번호없이 1544-7777, 1588-7777 ■ 서비스홈페이지 : [www.lgservice.co.kr](http://www.lgservice.co.kr) (인터넷으로 서비스 신청 시 소정의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불편 상담 및 제언 : 080-023-7777

LG전자 서비스 엔지니어 교육생 모집(~9.29) 자세한 사항은 [www.lgservice.co.kr](http://www.lgservice.co.kr) 참조

하반기 게임시장 기상도

올 상반기 게임 업계는 '엔씨소프트의 독주' '축구게임의 선전' '스타크래프트2의 부진' 등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상반기 최고 기대작이었던 '스타크래프트2'는 9월 둘째주 온라인게임 주간 순위에서 6계단 하락한 20위에 랭크되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최근 '팍스2010' 게임쇼에서 '아이온' 2.0 버전을 공개하며 인기를 더욱 견고히 했다.

올 하반기는 그동안 기대감을 한껏 부풀여 오르게 했던 신작 기대작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아이온'의 아성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드코어 MMORPG로 유명한 엔씨소프트가 하반기 캐주얼 게임에 총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유저층 확보에 나섰다.

이따른 캐주얼 게임의 실패를 맛보아 했던 엔씨소프트가 최근 글로벌 캐주얼게임 개발사인 '팝캡게임즈'와 '팝캡월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캐주얼 라인업 강화에 나선 것이다.

비롯해, '주마', '플랜즈앤썬비' 등 인기 게임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엔씨소프트와 팝캡게임즈 간의 협력 체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엔씨소프트가 올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게임은 '펀치몬스터', '드래고니카', '스틸독' 등 총 3종으로 모두 캐주얼게임이다. 그 신화탄으로 RPG '펀치몬스터'가 16일 상용화 서비스에 돌입한다.

전 세계 약 3억 50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넥슨은 하반기에도 해외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넥슨은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법인을 거점으로 전 세계 71개국에서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등 게임 30여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넥슨의 해외 발생 매출은 그룹 전체 매출의 67% 수준인 474억원에 달했다.

넥슨이 이렇게 해외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뛰어난 콘텐츠 로컬라이징, 그리고 시장에 맞는 선진화된 과금시스템 개

엔씨 '캐주얼' CJ인터넷 'FPS'에 주력 몸집 불린 넥슨, 해외시장 공략 가속화 위메이드는 '창천2' '네드'로 수입 다각화

발, 게임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는 게임 운영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지역별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에서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테일즈위버' 등 기존 게임들의 성과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라인업 확보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가장 먼저 게임업계의 일본법인인 게임야로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서든어택', '데카론', '메탈레이저' 등을 넥슨 일본법인에서 공동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1인칭 슈팅(FPS) 게임인 '서든어택'을 서비스하며 FPS 대표주자로 떠오른 CJ인터넷이 드래곤 플라이가 개발중인 FPS '스페셜포스2'까지

확보하며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다. '서든어택'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을 넘긴 유희에도 최고 동시접속자 수 20만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서든어택'에 이어 '스페셜포스2'까지 가세하면 CJ인터넷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상반기 약세를 보이던 CJ인터넷이 과도한 우려에서 벗어나 턴어라운드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규 게임 '스페셜포스2' 계약에 따라 내년 성장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것.

최경진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실적 회복과 내년 본격화될 턴어라운드에 주목하는 저가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모바일 게임과 소셜 네트워크게임(SNG) 등 신규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경쟁력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CJ인터넷 창립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궁훈 대표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로 '실 게임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진출 본격화'를 꼽았다.

CJ의 다양한 콘텐츠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지난 해 매출 1000억 클럽에 가입하고 중견 개발사인 조이맥스까지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행보도 눈에 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미르2)'가 전 매출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이 편중돼 있으며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익 다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위메이드는 올 하반기 미르2의 트랙픽 유지와 안정화로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며 '판타지 풋볼 매니저'의 상용서비스와 '장천2', '네드'의 비공개테스트로 위메이드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신작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산다게임즈의 MMORPG '루비니아'와 두빅 스튜디오의 FPS '킬로이'의 서비스 일정 역시 조율 중에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하반기에 '장천2'와 '네드' 등 기존 개발 역량이 집약된 차기작의 성공적 론칭에 집중해 내실을 다지고 자회사 위메이드 크리에이티브의 앱스토어용 게임과 웹게임, SNG 개발 및 내부 스튜디오의 신규 온라인 게임 개발작수 등 신규 비즈니스 플랫폼도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하반기에 눈타겟팅 건액선 MMORPG '와일드플래닛'을 필두로 '오즈 페스티벌', '카트카스 온라인' 등 신규 온라인 게임을 하반기에 런칭해 유저들을 공략할 방침이다.

액토즈소프트 역시 위메이드와 마찬가지로 미르2가 전체 매출의 88.2%를 차지하는 주요 수익원이다. 미르2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이 중 70%는 위메이드에 로열티로 지불하고 10%는 중국에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액토즈소프트로서는 국내 매출보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해외 매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는 최선책이 된다.

액토즈소프트가 개발 중인 와일드플래닛은 4년의 개발기간동안 100억원을 투자한 대작게임이다. 평가하면서 다이아몬드 그래픽과 사운드로 차별화했으며 국내 최초 실시간 파티 퀘스트를 비롯, 탄탄한 구성을 통한 정통 MMORPG 시스템을 구현했다.

오즈페스티벌은 로테이션 방식의 버라이어티 파티 게임으로 미니홈피 개념인 '별'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며 꾸준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카트카스 온라인은 뛰어난 타격감과 탄탄 사냥을 중심으로 하는 액션성을 특징으로 올해 5월 국내 및 대만, 홍콩 지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탄생 10주년... 총치걱정없이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LOTTE XYLITOL 100% 자작나무 핀란드산 자일리톨

6번째 맞는 '지스타 2010' 어떻게 달라지나... 부스 'ㄱ'자 배치 소음 줄이고 노출금지로 '걸스타' 오명 벗고...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10' 전시회에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대거 신작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게이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올해는 어떤 신작이...” 설레는 팬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관람객이라는 기록을 세운 국내 최대 게임쇼가 올해도 어김없이 게임 팬들을 찾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 공동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산 벡스코에서 11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지스타2010'은 지난해 전 세계 21개국 198개 업체가 참가해 총 1591건, 4억30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또 총 24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글로벌 게임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및 해외 업체 대상 참가 접수는 10월15일까지 이미 120여개 업체가 신청을 완료했다. 전시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접수가 한정돼 있는데 B2B 부스는 이미 가득 찼고 B2C 부스도 여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30부스 이상 대형부스 참가업체가 11곳이고 B2B 부스의 경우 당초 80개사를 예상했으나 90개사가 신청했다”며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봐도 신청이 많고 빨리 마감된 편으로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특히 엔씨소프트, 넥슨, NHN, 네오위즈게임즈, 위메이드, 엔게임 등 대형 게임 업체들이 '지스타2010'에서 그동안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굵직한 '히트카드' 신작을 직접 시연할 수 있게 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부 게임업체들은 어떤 작품을 선보일지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라인업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꺼렸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이미 출판작을 결정하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엔씨소프트 '블레이드앤소울'로 승부수=엔씨소프트는 지난해 프로모션 무비를 공개해 큰 관심을 끌어냈던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이드앤소울'의 시연 버전을 공개한다. 입소문으로만 들었던 블록버스터급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이머들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이재호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3일 열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지스타에서 블레이드앤소울의 시연버전 또는 지난해 동영상보다 발전된 추가적인 버전을 공개해 게임의 완성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엔씨소프트는 최근 기존에 배정받았던 부스를(60개) 24부스 더 늘림으로써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나 NHN 등 경쟁사와 정면 승부를 벌인다.

'블레이드앤소울'은 중국풍 일색의

## ■ 대형사 '히트카드' 뭘까

'블레이드 앤소울' '디아블로3' '테라' 등 관심 집중  
일부업체선 출판작 막판 고민 중 라인업 바뀔 수도  
참가신청 접수 예상보다 일찍 마감...주최측도 희색

기존 무협 세계관을 탈피해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된 장의적인 세상을 배경으로 '건·곤·진·린' 4개의 종족이 엮여어나가는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담았다.

특히 한계를 넘어서는 게임 그래픽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언리얼 엔진3의 기술력을 높이 다룬 스텝과 국내 최고 아티스트들이 만나 기존 게임 그래픽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김형태 총괄 아트디렉터 특유의 아름다운 원화와 환상적인 세계가 풀 3D로 완벽하게 재현돼 동서양을 막론하고 열광적인 호응을 얻어내리라고 자신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압도적인 사이즈로 구현한 광활한 무협 종영과 옷자락의 흔들림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표현한 디테일까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만으로 설레는 블리자드 '디아블로3'=지스타2010에서 처음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올해 '디아블로3'의 시연 버전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 수많은 게이머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디아블로3'는 디

아블로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플레이어들은 각각 고유의 주문과 기술로 무장한 아만용사, 의술사, 마법사, 수도사를 포함한 다섯 개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각 영웅들은 광대하고 다양한 환경을 헤쳐 가며 이야기 줄거리를 따라 몬스터 무리와 전투를 벌이고 우두머리에 도전함으로써 경험치와 능력을 향상하며 강력한 힘을 주는 아이템을 획득한다.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시각 효과와 하복 물리 엔진으로 강화된 최신 3D 그래픽 엔진이라는 점이다. 또 성역의 세계에 새로 등장하는 수많은 실내 및 실외의 지역을 상세하게 묘사했으며 위험한 곳과 장애물, 파괴할 수 있는 요소 등 플레이어와 상호 작용하는 환경도 마련됐다. 정해진 게임 이벤트에 따라 무작위로 세계가 생성돼 역동적

인 게임 플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디아블로3”는 디아블로 플레이어들이 기대하고 즐겨왔던 쉬운 인터페이스, 빠른 액션과 직관적인 게임플레이가 특징이며 새로운 기능들이 다양하게 추가돼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액션 RPG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HN한게임 '테라'에 '관심급중'=NHN 한게임의 MMORPG '테라' 역시 이번 '지스타2010'에서 놓칠 수 없는 작품이다.

NHN은 지난 7월 있었던 컨퍼런스콜에서 “테라의 공개 베타 테스트(OBT)를 4분기에 실시하고 올 연말까



제작기간 3년에 개발비용이 320억원이나 들어간 블록버스터급 대작 '테라'.

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3차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이후 완성도를 위해 전반적으로 게임을 다듬고 있으며 내부 테스트 결과 게임성이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한 '테라'는 '차세대 MMORPG'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포부를 갖고 2007년 3월부터 제작기간 3년, 개발비용 약 320억원 이상 투입된 블록버스터 대작이다. '테라'는 온타겟팅 방식의 전투를 MMORPG에 구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투입했으며 프로토타입 개발에만 1년을 투자했다.

이를 바탕으로 액션 요소의 타격감을 높이고 유저의 쉬운 조작성 및 컨트롤에서 오는 재미를 강화했다. 특히 불규칙한 전투 방식으로 전투 패턴을 다양화함으로써 전투에 몰입할 수 있게 했다.

NHN 관계자는 “3차 CBT 때 총 11

해 해외에서도 낮은 MMORPG게임을 국내에 대중화 시켰고 개발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12년 만에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단계 높은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차세대 MMORPG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우선 '아키에이지'는 '룬의 아이들'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권에서 인정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전민희 씨가 프로덕트에 참여해 게임전반의 스토리를 기획 제작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MMORPG게임에서 기술적 한계로 단지 게임 배경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극히 제한적으로 게이머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나무심기와 집짓기 등과 같은 콘텐츠를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게이머들은 게임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집과 마을, 성을 수동적으로 활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집과 마을, 성을 만들어 게임 안에서 경제 및 정치활동을 하고 전쟁을 벌이는 등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물로 능동적인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미 공개된 스크린샷을 통해 '아키에이지'는 현존하는 온라인게임 중 최고의 그래픽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송 대표는 12년 전 엔씨소프트의 부사장 재직 시절 리니지를 개발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 대표가 만든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디아블로3' 스크린샷.

### 우리금융그룹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번호 제0-455호(2010.09.14~2011.08.31)

07~09년 공관원 공시자료 취합  
**공모 ELS 발행실적 1위**

09년 2월 대별 리크레이블 기준  
**국내 주식관련 Deal 실적 1위**

공관원 공시 09년 사업보고서 기준 증권업무  
**총자산 1위**

2009년 상반기 대별 리크레이블 기준  
**채권인수 1위**

2009년 상반기 대별 리크레이블 기준  
**원화채 인수 1위**

09년 2월 대별 리크레이블 기준  
**기업합병 금융자문 1위**

09년 2월 블룸버그 리크레이블 기준  
**국내기업 IPO 1위**

09년 2월 블룸버그 리크레이블 기준  
**국내기업 주식연계 채권 인수주관 1위**

10년 1월 국내권사 법인/사무기준  
**해외법인수 1위**

2010년 종합대상 수상 한국경제신문-연일모멘트 주최  
**한국 IB대상**

09-10년 10대수상 수상  
**헤럴드경제 자본시장 대상**

2007년 증권업종 1위 한국금융투자협회 선정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1위**

08-09년 Asia Money誌 선정  
**채권부문 최우수 증권사**

07년 5월 금융투자협회  
**US 달러 표시 RP 최초 출시**

10년 3월 기준  
**증권업계 최초 PSR 서비스 제공**

10년 5월 기준  
**업계최초 ETF 적립식 저종주주 서비스 실시**

2010년 고객/채권부내 자산관리부문상 수상 한국금융투자협회 선정  
**고객가치 최우수상품**

2010년 종합자산관리부문 대상 수상 디지털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2008년 디지털 브랜드 부문 수상 매일경제 주최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

2007년 금융서비스 혁신상 수상 메.투데이 주최  
**옥토 CMA 대한민국 금융혁신 대상**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게임 그래픽을 구현해 낸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

현대차그룹, 캘리포니아에 신사옥 건립 속뜻은...

# 美 고속철 사업 적극참여 의지 표출

### 정몽구 회장 슈위제네거 만나 로템장점 설명 한진그룹도 '월서 그랜드 프로젝트' 의견 교환

현대차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 사업에 적극 참여의 뜻을 나타냈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 15일 아놀드 슈위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현대로템이 제작하는 고속철의 장점을 강조하고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

그룹은 우선 캘리포니아의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사옥을 신축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파운틴벨리에 들어설 신사옥은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700억원)를 투자되며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12년말 완공 예정이다. 정 회장은 슈위제네거 주지사와 함께 KTX-II를 시승하고 캘리포니아주 추진 중인 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만드는 고속철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품질이 뛰어나다"며 한국 고속철의 장점을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상업 운행 중인 KTX 920량을 비롯해 KTX-II 240량을 납품하고 있으며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도 설계를 끝내고 시제작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미국, 브라질, 터키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무역 및 관광협력 증진을 위한 리셉션' 행사에서 슈위제네거 주지사와 만나 한진그룹의 '월서 그랜드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슈위제네거 주지사는 10억 달러의 공사비를 투입해 지하 8층, 지상 45층의 최첨단 호텔 및 65층의 오피스 타워로 재개발하는 한진그룹의 '월서 그랜드 프로젝트'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심홍수 기자 shs@

# 삼성研 "내년 경제성장률 3.8%"

올해 5.9%보다 낮춰... 원화는 소폭 강세 전망



정기영 소장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5.9%)보다 2.1% 하락한 3.8%로 전망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이르고 한국경제발전 견인차인 수출과 투자의 힘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그룹에 따르면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삼성 수요시장단 회의에서 "2011년 경제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국내경제는 상반기는 양호하지만 하반기에는 자동차와 IT제품의 재고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내년에는 올해 전세계적으로 진행됐던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다다르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자산가치 상승도 미미해 소비도 부진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에 대해 정 소장은 소비자물가는 올해 2.9%에서 내년 2.8%로 원-달러 환율은 1158원에 1110원으로 원화의 소폭 강세를 예상했다. 정 소장은 "원화가 기본적으로 저평가됐으며 위안화 절상,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인해 원화가치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 경상수지는 152억달러 흑자로 올해(227억달러)보다는 감소하지만 흑자규모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

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6달러에서 내년도에 72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내년에 3.5%로 올해(3.8%)보다 개선되지만, 시장금리의 경우 올해 4.6%에서 내년 5.1%로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 소장은 "금리의 경우 시장금리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4.6%에서 내년 5.1%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금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추세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이 날 설명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4.4%에서 내년 3.6%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며 "이는 올해 시행된 경기부양책 효과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철근 기자 ckpark@

# 2018년 '굿바이 01X'

방통위, 2G 종료 010 통합시점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010번호통합 시점을 모든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2018년경으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2011년, LG U+가 2015년, SK텔레콤이 2018년 2G 서비스를 각각 종료하는 만큼 모든 이동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2018년을 최종 010번호통합 시점으로 의결했다. 또한 01X번호 이용자들은 일정기간 3G로 이동하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해도 발신번호는 변경 전 01X번호로 표시되는 '01X번호표시 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번호통합의 이점을 살리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구 정보통신부는 010 번호 이용자가 80%에 도달하는 시점에 010번호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으며 올 2월 010번호통합 비율이 80%를 넘어섰으나 8월 말 현재 01X 이용자가 819만명에 여전히 많이 강제 통합할 경우 많은 이용자들이 번호변경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은 01X이용자가 010변경에 사전 동의한 경우 이용 가능하며 01X 이용자의 식별번호는 한시적 번호이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010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01X이용자도 최대 3년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G로의 번호이동은 사업자가 과도한 마케팅경쟁 방지를 위해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 내에서만 이용 가능토록 했다. 이재영기자 jly0403@

# 아이폰4... 블랙베리 새모델... 스마트폰 대회전 불 붙다

업계 "4분기가 내년시장 분수령 될 것"

하반기들어 스마트폰 업계가 본격적인 라인업을 갖추는 한편 '차별화' 카드로 판매경쟁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아이폰4가 국내 상륙하며 시장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15일에는 블랙베리 새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여세를 몰아가고 있다. 이에 앞서 LG전자가 14일 '옵티머스 원'을 내놓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4분기가 내년 스마트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 새로운 OS 버전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디자인 등 차별화된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내의 경우 아이폰4 출시와 동시에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업체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블랙베리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리서치 인 모션(RIM, 이하 린)은 지난 15일 'BlackBerry Pearl 3G'를 출시하고 시장 경쟁에 가세했다. SK텔레콤을 통해 다음달부터 공급될 이 제품은 전체 무게가 93g에 불과해 국내 출시된 스

마트폰 가운데 가장 얇고 가벼운 제품으로, '디자인보다 성능'이라는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 스마트폰이 확일화된 터치폰과 안드로이드 중심의 운영체제를 갖춘데 반해 독자적인 블랙베리 환경과 20개의 자판키로 형성된 외관이 특징이다. 모토로라도 4분기부터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3종에 대해 안드로이드 2.2 업그레이드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안드로이드 2.2 업그레이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저장 공간 확장 및 어도비 플래시 지원 등 기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다음달 공개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폰이 가세할 경우 운영체제와 스마트폰 시장은 치열한 점유율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구매자가 늘면서 단말기 제조사들이 내년 시장 선점을 위해 4분기 라인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는 만큼 4분기 라인업 강화가 향후 주도권을 잡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득 기자 lob13@



삼성 카메라 새모델 'NX100'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사진 가운데)과 홍콩 톰모델 게이리 라이(Galle Lai, 중국어명은 러지얼(사진 맨 왼쪽),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타이론 터너(Tyrone Turner)(사진 맨 오른쪽)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 '삼성 NX100'을 소개하고 있다. 송영록기자 syr@

# SK그룹 30일 상하이서 이사회

최태원 회장등 사내외이사 총출동

SK그룹의 자회사인 SK㈜와 SK에너지가 오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20일 SK그룹에 따르면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 박영호 SK㈜ 사장 겸 SK차이나 총괄대표, SK에너지 사장 등 사내외이사는 물론 사외이사들도 참석할 예정

이다. 이들은 이사회를 마친 뒤 상하이 엑스포 현장을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선 지난 7월1일에 공식 출범한 SK차이나(중국 총괄법인)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SK에너지 석유·화학 분할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

졌다. SK 관계자는 "일하는 이사회 차원에서 매년 그룹의 글로벌사업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해외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SK는 지난해 11월초 중국 베이징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중국 중심의 글로벌리제이션 전략을 점검한 바 있다. 이전에도 미국과 중동 등 해외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안경주기자ah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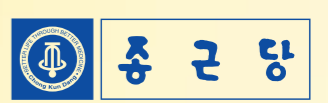
# 이통 가입자 '50,000,000'시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984년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의 전신)이 최초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지 26년, 2006년 이동통신 가입자 4000만명을 돌파한 이래 5년만의 기록이다. 통계청 추산 올해 인구가 4887만 5000명임을 감안할 때 인구 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은 102.4%를 기록하게

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전체 인구수를 넘어선 것은 '1인 1폰'을 넘어서 '1인 다 폰'의 시대를 열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아이폰으로 촉발한 스마트폰 출시 경쟁, 태블릿 PC의 출시 등으로 '1인 다모바일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영기자 jly0403@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작 '아벨 블로흐 배우어 부인', (1907)



## 제품이 다르니까, 효과도 다릅니다

# 명작과 펜잘큐의 만남

### 피린계 성분이 없는 두통약-펜잘큐

뽀뽀뽀해도 두통약은 효과입니다. 개운함이 확실해야 좋은 두통약입니다. 펜잘큐는 피린계성분이 없는 두통약입니다.

두통·치통·생리통에  
**펜잘큐**정



• 펜잘큐정 효능 효과 : 두통, 치통, 생리통 등

내복약  
몸살은 물론 감기의 초기증상에도 좋은 마시는 펜잘내복약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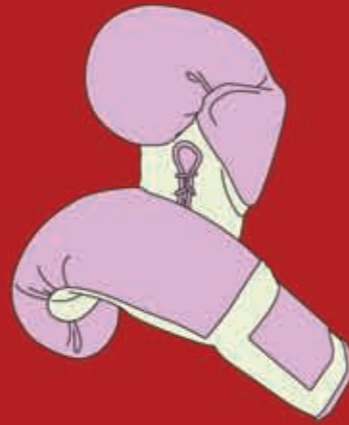
광고심의필: 1001-0400 |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펜잘 내복약 효능 효과 : 감기의 증상(코물, 코막힘, 두통 등)의 완화



화재 신고번호는 119



범죄 신고번호는 112



간첩 신고번호는 113

통신요금 절약번호는 106



**[ 106번으로 B인터넷, 전화, IPTV에 가입하세요 ]**  
**[ 통신요금 절약은 물론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



※ 사은품 내용은 가입유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B 인터넷, 전화, IPTV 통신요금절약번호 ☎ 106 / www.skbbroadband.com**



# “추석선물, 편의점에도 다 있어요”

## 골프용품·정육세트 등 백화점 못지않아 제휴 할인에 무료배송까지...혜택도 다양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중심으로 선물기획전이 풍성하다. 그러나 긴 연휴를 앞두고 직장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듯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 평소 고마운 분들을 위한 선물 구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추석 전날이나 당일엔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미처 선물구입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고향집 근처나 고속도로 휴게소 내 편의점을 이용해도 선물로서 손색이 없어 보인다. 각 편의점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프리미엄 제품부터 5-10만원대 제품까지 폭 넓은 가격대에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놓고 있다. 일부 제품은 택배로 부치면 백화점 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선물을 할 수 있다.

GS25는 선물세트 종류를 지난 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400여 가지를 선보였다. 2만원대 후반 식용유 세트와 4만원대의 배세트, 7만원대의 한우사골모듬세트 등 가격도 대형 마트 수준으로 맞춰 편의점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선물 세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3+1, 5+1, 10+1 등 덤 증정 상품도 20여가지 늘려 전체 상품 중 50%가

넘은 상품이 덤 증정 상품이다.

또한, 지난 설 명절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선물 세트 매출 비중이 전체의 49%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올 추석에는 3만원 이하 선물세트 구성비를 지난 해보다 17.5%나 늘렸다.

골프 클럽과 골프백도 판매한다. GS25가 선보인 골프 클럽은 일본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인 '마루망' 제품이다. GS25는 '마루망 CONDUCTOR 드라이버'와 '마루망 VIP08 풀세트', '마루망 남성 VERITY(RED-V) 풀세트' 3종류를, 드라이버는 49만원 풀세트는 각각 165만원에 판매한다.

볼철 이상저온과 마른 장마, 이른 추석으로 당도 높은 과일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리로 정육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돼 이번 추석 선물세트에 정육상품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엔 선보인 유명 외식업체 정육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불고기브라더스 베스트셀러 상품 세트, 씨즐리 인기메뉴인 바비큐폭립세트, 유명 수제햄버거 브랜드 크라제버거의 비프 스테이크 세트 등 8종을 판매하고 있다.

무료배송, SKT 텔레콤할인, 제휴카드(외환카드, 시티카드) 할인, 10+1혜택(크라제버거 세트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이 추석 선물 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상품 제외)까지 누릴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품질과 맛의 정육세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는 오는 27일까지 한우, 과일, 건강식품, 디지털 카메라 등 총 280여종의 추석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은 '품질은 백화점, 가격은 마트처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만원대의 부담 없는 실속형 생활용품세트에서 백화점 동일 품질의 고급 정육, 과일은 물론 3-10만원 대 건강식품

과 디지털 카메라,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마케팅팀 황인성 팀장은 “올 추석은 연휴 앞두고 휴가를 쓰면 최대 9일까지 쉬 수 있어 귀성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처 선물을 챙기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귀경 시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철규기자 yoonck@

다채로운 컬러의 아이템들이 즐비한 가을 패션의 계절 가을이 시작됐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패셔니스타들은 벌써부터 가을 트렌드 읽기에 분주하다. 올 가을 어떤 패션트렌드가 유행할지 주목해보고 패셔니스타에 도전해보자.



라젤로 모델 이요원

## 가을이 오면~ 나도 패셔니스타

### ■ 올 가을 패션 트렌드는

◇가디건=올 가을에도 여름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 일기예보를 보았더라면 선풍 두꺼운 외투를 선택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럴 때 가디건은 여름과 가을의 경계선에서 스타일과 산뜻함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다. 단순한 디자인과 컬러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에 비해 올 가을에는 밝고 경쾌한 컬러와 패턴 무늬로 감각있는 스타일을 강조한 가디건이 주목 받고 있다. 남성 아날도바시니는 비즈니스 맨의 품격과 개성을 조화시킨 가디건을 선보여 센스있는 가을 남자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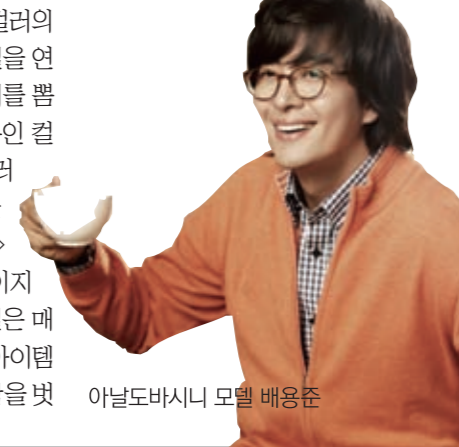
◇화색 재킷= 변치 않는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화색 재킷은 남성 가을 패션의 대표 아이템이다. 화려한 셔츠나 타이보다는 심플하고 세련된 컬러 및 디자인과 매치하는 것이 좋다. 쌀쌀한 날씨에는 베이지 컬러의 니트목폴라와 함께 코디하면 비즈니스 캐주얼 패션으로도 안성맞춤이다.

◇Timeless Classic= 올 가을 여성 패션 키워드는 'Timeless Classic'이다.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스타일에 개성을 가미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가을마다 주목받는 브라운과 베이지 컬러의 조화로 분위기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면 가을 여신의 분위기를 뽐낼 수 있다. 올 가을에는 와인 컬러로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린 아이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버버리= 더러 버튼과 베이지 컬러의 기본 버버리 스타일은 매 가을마다 주목받는 기본 아이템이다. 이번 가을에는 심플함을 벗

어던지고 화려하고 개성있는 디자인과 실루엣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카드 소재와 싱글 버튼으로 볼륨감있는 품매를 살린 화려한 컬러의 버버리는 블랙 슬립팬츠와 매치하면 더욱 멋스럽다. 올리비아하슬러는 화려한 버버리를 선보여 패션 선도를 선도하는 패션 리더들에게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제시했다.

◇재킷= 테일러드 재킷은 세련되고 감각있는 비즈니스 우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심플한 블랙 테일러드 재킷과 블루진은 캐주얼과 비즈니스 경계선을 넘나드는 코디가 쉬운 스타일이다. 벵글, 빅백 등과 매치하여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샤프트는 언제 어디서나 감각있는 재킷을 뽐낼 수 있는 고급스러운 테일러드 재킷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품매의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 벨트를 활용하거나 도트 무늬의 재킷을 선택해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방법이다. 라젤로와 올리비아하슬러는 올 가을을 선도할 새로운 재킷을 내세워 남들과 다른 패션을 추구하는 패셔니스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선애기자 isa@

아날도바시니 모델 배용준



아날도바시니 모델 배용준

## 녹십자 1000억대 해외 M&A 추진 백신·혈액제제 강화...제약사 1위자리 노려

녹십자가 1000억원대 해외 M&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과의 1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녹십자에 따르면 최근 녹십자는 백신·혈액제제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해외 제약사를 대상으로 인수합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녹십자가 백신·혈액제제에 특화된 해외 제약사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어 연내 M&A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수 효과로 내년부터 매출 10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녹십자 관계자는 “현재 백신·혈액제제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해외 제약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원활한 M&A를 위해 정확한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1000억원대 매출을 갖고 있는 제약사라는 점도 확인했다. 만약 녹십자가 이번 M&A를 성사시킨다면 장기간 국내 1위 제약사의 자리를 지켜왔던 동아제약의 아성을 무너뜨릴지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 매출로만 봐도 녹십자가 동아제약을 위협하고 있다. 녹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2.9%나 급증한 4474억원을 기록해 4224억원(전년비 8.1%)에 그친 동아제약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녹십자가 향후 M&A를 통한 1000억원대의 매출 상승분이 발생한다면 동아제약과 큰 폭의 매출차를 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녹십자가 신종플루 특수가 끝났어도 백신부문 해외수출 등이 매출액을 견인하고 동아제약도 삼천리제약과 GSK와의 전략적 제휴로 인한 매출 증가분이 있어 앞으로 두 제약사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곽도훈기자 sogood@

### 롯데칠성 몰트위스키 시장 진출

롯데칠성음료가 '스카치블루 싱글몰트'와 '스카치블루 블렌디드몰트'를 2종을 출시하며 몰트위스키 시장에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스카치블루 싱글몰트'는 싱글몰트 특유의 진하고 묵직한 맛이 특징이고

'스카치블루 블렌디드몰트'는 스코틀랜드 여러 양조장의 몰트위스키를 조합해 과일향이 풍부하다.

롯데칠성은 스코틀랜드에서 12년간 숙성된 몰트위스키 원액을 수입해 부평공장에서 몰트위스키 2종을 생산

하며 기존 위스키 상품 '스카치블루 인타너셔널'과 같은 모양의 병에 담겨 판매되며 위조방지장치도 장착된다.

회사는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판매를 늘리고 위스키를 즐길 줄 아는 20~40대 직장인이 주로 찾는 바, 카페 등의 입점에 주력하는 등 판매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곽도훈기자 sogood@

### 풀무원식품, 흑녹두 요리채

풀무원식품(대표 이효율)이 흑녹두에서 발아시킨 숙주 '흑녹두 요리채'를 15일 출시하고 웰빙 요리용 나물시장 선전에 나섰다.

풀무원 흑녹두 요리채는 숙주 특유의 향이 적고 아삭한 식감에 달콤한 맛이 있어 퓨전면요리(쌀국수, 생라면), 볶음요리,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넣어 활용할 수 있는 간편 요리용 나물이다.

흑(黑)녹두에서 발아된 숙주는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예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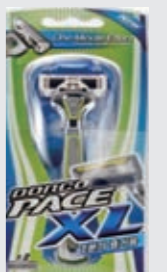
쌀국수,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돼 왔으며 전세계에서 숙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일본에선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흑녹두 발아 숙주는 칼로리가 낮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간편한 웰빙 요리채로 각광받고 있다. 곽도훈기자 sogood@

### 도루코, 6중날 페이스엑셀

도루코는 신제품 페이스엑셀(PACE XL)을 출시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페이스엑셀은 6중날 장작은 물론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고 자극 없이 부드러운 밀착 면도가 가능하도록 작은 부분까지 업그레이드 된 것이 특징이다.

면도날의 두께를 기존 자사 제품 대비 20% 이상 더 얇게 가공하는 내로우블레이드(Narrow



Blade) 기술을 개발, 적용해 절삭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면도날 뒷면에 부착된 트리머는 구레나룻과 코 밑 수염을 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면도기 뒷면이 오픈 카트리지 구조로 세척이 더욱 편리해졌고 촉촉한 피부 보습과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김소희기자 sohee@

## “왜요, 아파트 파시게요?”

아무도 모르는 하우스 푸어의 불편한 진실!



공포의 닳을 피해 시장을 이기는 하우스 푸어 탈출전략 필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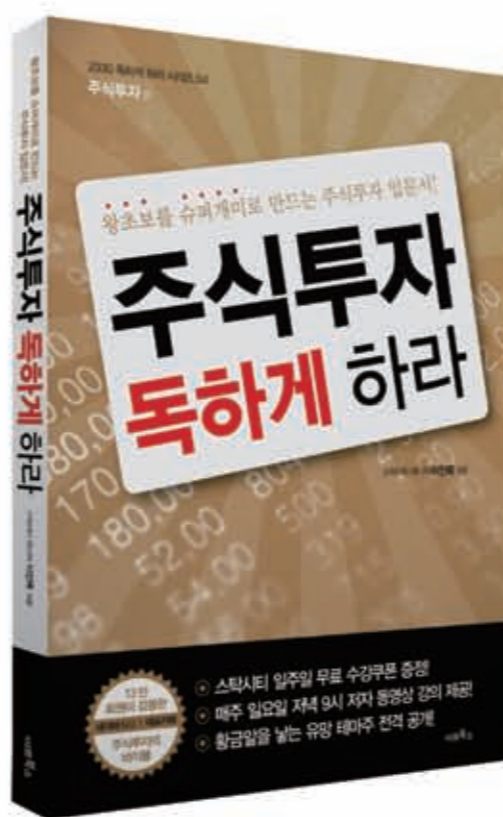
### 하우스 푸어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까지 하우스 푸어에 대한 실상과 생존전략에 대해 이 책의 저자만큼 심도 있게 파고들어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두고 뛰어서 비난하고 조롱만 하는 의사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효과 있는 치료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를 신뢰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독자들에게 달려있다”

...전성규, (부동산 전문가 멤버십) 대표위원, 신화세법연구소장

김부성 지음 | 288쪽 | 정가: 13,000원

## 네이버 No.1 주식카페 '스타시티' 매니저 이진욱, 슈퍼개미의 주식투자 노하우!



“왜 남이 사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질까?”

### 주식투자 독하게 하라

주식의 기초를 바로 알고, 독하게 주식투자 하자!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몇이 나 될까? 미르북스에서 출간한 『주식투자 독하게 하라』는 주식공부가 어려워 ‘묻지마 투자’를 하는 초보자들의 눈에 맞춘 주식투자 입문서로 그동안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답답해하던 독자들에게 밝은 투자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이진욱 지음 | 290쪽 | 정가: 15,000원

문의: 02) 3141-4421 미르북스

서점 할인 다 가셔서 거기 아니야? 친인의 말씀 인터넷도서는 다릅니다.

최저가가 아니면 1 상품별 200%보상

내가 살 책 클릭 한번이면 2 최저가로 즉시반영

서울/수도권은 기본 3 부신까지 당일배송

인터파크 도서

인터파크서점 어디를 둘러봐도 이보다 더 할수는 없던 도서/음반/DVD 베스트셀러

10,000종 할인! 최저가 할인!

올리 한 번이면 책값이 최저가로 즉시 반영! 그것도 모자라서 쿠폰에 도서상품권까지! 상품 살릴 땐 꼭 챙기고, 차후엔 내리는 책 값이 얼마나 싸게 되는지!

Event. 구매금액대별 할인쿠폰 증정

2,000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할인쿠폰  
3,000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쿠폰  
7,000원 이상 구매 시 7,000원 할인쿠폰

# '국민주냐 합병이냐' 민영화 갈림길

자산 325조4000억원의 국내 최대 공룡은행이라 할 수 있는 우리금융지주. 공기기업인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는 탓에 우리금융은 '정부은행'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예보에서 독립하기 위한 민영화 작업을 시작했다. 2001년 4월2일 한빛은행(상업은행, 한일은행)과 평화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5개 회사의 주식이전을 통해 설립되고 공적자금 12조7663억원을 투입한지 10년 만이다.

1997년 IMF외환위기는 은행들을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그 과정에서 15개의 일반은행과 22개의 투자금융, 6개의 종합금융, 58개의 상호금고가 하나도 남지 않고 퇴출되거나 합병됐다.

이중에서 1899년 설립된 상업은행은 대체해준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공적자금을 받고 1998년 한일은행과 합병해 한빛은행이 됐다. 정부는 2001년 3월 한빛은행과 평화은행, 지방은행인 광주, 경남은행, 하나로 증권 등 5개 회사로 편입하면서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했다.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100% 보유하는 형태였다. 이후 한빛은행은 평화은행을 분할 합병하고 2002년 현재의 우리은행으로 개명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도 증시 상장 이후 늘어났다. 2001년 자회사로 편입한 광주, 경남은행을 제외하고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우리증권과 우리카드를 우리은행에 흡수합병했다. 같은 해인 2004년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증권을 지주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2005년 증권계를 크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금융지주가 1969년 설립된 한보증권권을 모태로 출범한 LG투자증권권을 우리증권과 합병시켜 현재의 '우리투자증권'이 탄생했다.

우리금융지주는 LG투자증권과 함께 인수한 LG투자금융을 우리투신운용과 합병해 우리자산운용을 만들고 2006년 크레디트 스위스의 100% 자회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에셋과 합쳐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 그후 2009년 크레디트 스위스가 들고 있는 지분 30%를 인수함으로써 현재의 '우리자산운용'의 100% 지분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생보사 확보가 시급했던 우리금융



## 정부 지분 50%...전량 매각 계획 밝혀 5개 자회사·44개 손자회사 '시총 11조' KT·연금공단 거론...하나지주도 눈독

지주는 영국 아비바그룹과 함께 2008년 LIG생명보험을 인수해 '우리아비바생명'으로 개명 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우리금융지주는 2009년까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진행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주력 자회사로는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5개이다. 이밖에 우리PE와 우리자산운용, 우리파이낸셜, 우리에프앤아이,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등 5개의 자회사와 44개(9월 16 현재)의 손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우리자산운용, 우리파이낸셜에 대해, 우리에프앤아이는 우리금융 지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파이낸셜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설립출자 해 지주사가 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총 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자회사 중 가장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95.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우리신용정보, 우리아메리카은행, 한국비티엘인프라투자회사, 홍콩 우리투자은행, 러시아 우리은행, 중국 우리은행 등 6개의 계열사는 100% 소유하고 있다.

또 우리프라이빗에쿼티는 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의 61.04%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에프앤아이는 우리에이임씨를 100% 보유하고 있다.

우리에프앤아이의 경우 우리에프앤아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9월 현재 17개 가지고 있으며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100% 소유하고 있다.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우리은행과 여타 금융사들의 부실채권을 매입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금융지주는 우리파이낸셜은 52.52%, 우리아비바생명은 51.0%의 지분을 가지고 자회사로 편입시켰으며 우리금융투자는 30.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회사중 지분 99.99%를 보유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우리금융지주가 매각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와 광주, 경남은행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금융이지만 지주사의 최대주주는 공기기업인 예금보험공사, 즉 정부이다.

정부는 2002년 6월 우리금융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지분 11.8%를 매각한 이후 2004년 9월부터 1차 블록세일을 시작해 올해 4월 4차 블록세일을 끝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56.97%까지 줄였다.

2001년부터 자회사 편입 과정을 밟은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국내 최대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민영화 작업을 발표했지만 거대 공룡 금융그룹의 지분을 받아줄 곳을 찾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11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들고 있는 지분 56.97%만 해도 7조원 규모이다. 주당가격이 1만3200원이지만 지분 9%를 매각할 경우에는 1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작업인 것이다.

매물 당사자인 우리금융지주는 과점적 대주주 방식 또는 국민주 방식을 통해 독자생존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이 보유한 비씨카드 지분 20%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KT에게 지주사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은 녹록치 않다.

KT가 들어오면 외국계 IB와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동시에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KT 이석재 사장이 고민에 빠져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는 동시에 KT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 15일 "금융지주사의 민영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민영화 작업에 참여할지 알 수 없게 됐다.

우리금융지주가 피하는 또 다른 방식은 '국민주'이다. 국민주 방식은 1998년 포스코를 민영화할 때 활용됐다.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이 보유한 포스코 지분은 1인당 3% 이내로 제한해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주 방식으로 매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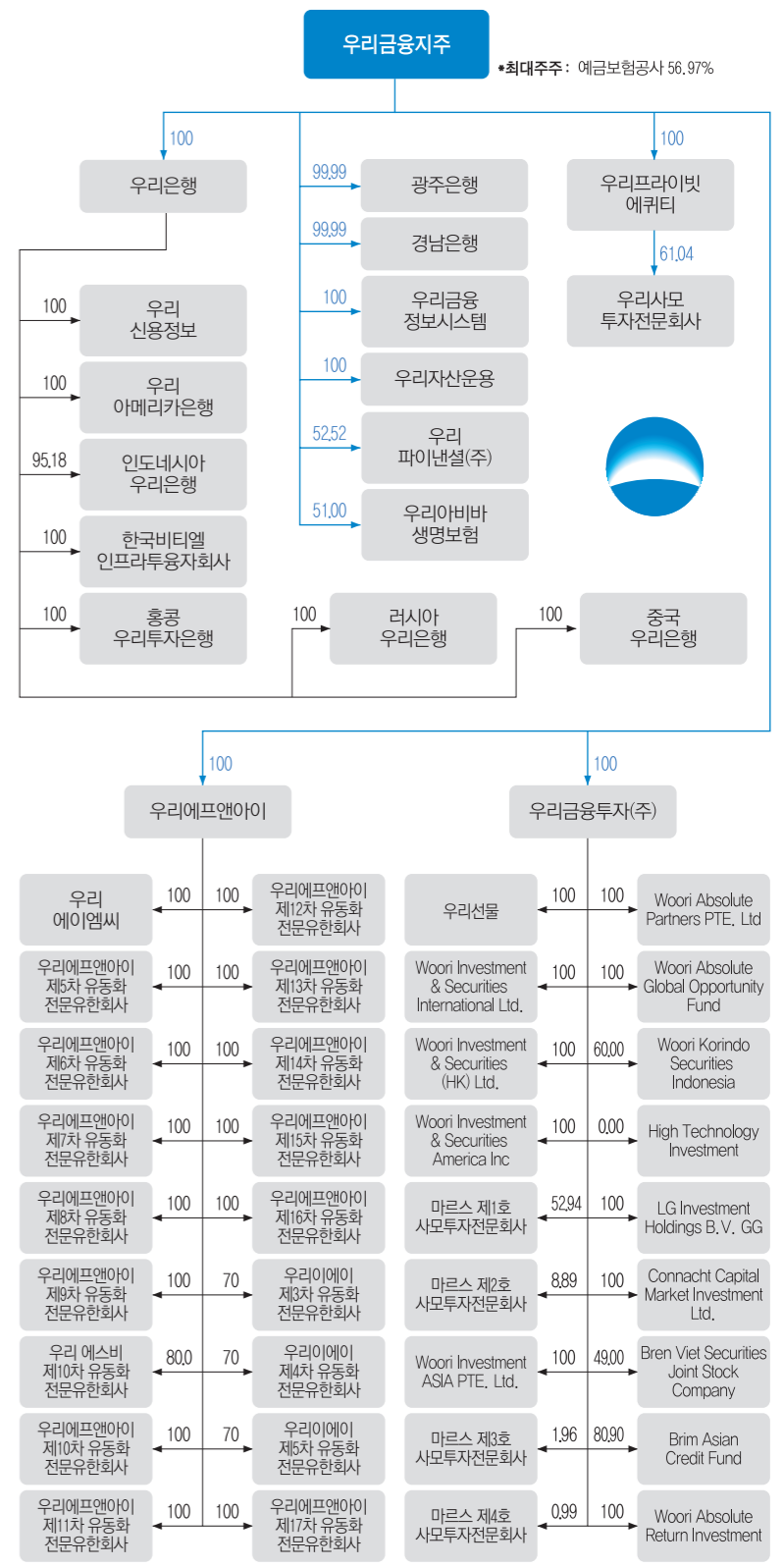
이는 조기 민영화 가능하고 구조조정 등을 막을 수 있어 우리은행 노조 등이 선호한다. 그러나 정부 보유주식을 할인가격으로 분산 매각해야 하는 이 방식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금융지주를 노리는 금융사는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대표적으로, 지주사 내부에 테스코프스팀(TFT)을 설립하면서 우리금융지주를 대등합병하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금융지주를 예보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분을 27%를 인수해 정부지분을 30% 이하로 떨어뜨려 독자경영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예보와의 경영개선협약(MOU)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투자자를 찾기 힘들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합병할 경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하나금융지주의 고민은 깊지만 하다.

김현희 기자 masru13@

우리금융그룹 지배구조 현황 (2010년 9월 2일 현재, 지분율%)



## 매각주관사 선정...이르면 이번주부터 실사

정부가 조만간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실사에 착수, 민영화 작업에 본격 나선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일 우리금융지주 매각주관사로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JP모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이른 시일내에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등 3개 매각주관사들은 상견례 등을 거쳐 우리금융에 대한 매도자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예보측은 늦어도 내주 초부터는 우리금융 실사를 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매도자 실사가 30~4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실사보고서는 내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각주관사들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 등을 산정해본 뒤 잠재적 매수자인 금융회사들을 찾아가 금액과 인수 의사 등을 타진해본다. 이번 과정을 거치면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입찰 공고일을 확정하고 예비 입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입찰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입찰 공고 후 예비 입찰 대상자들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입찰 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한다"며 "최종 입찰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또 내년 초에는 입찰 대상자들을 상대로 입찰 제안서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비 입찰에서 적당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종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금융 합병을 검토 중인 하나금융지주 [086790]는 주관사들의 실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합병 추진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좋은 책은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 21세기형 문화 판촉물 월간 <여행스케치>를 선물하세요

월간 <여행스케치>는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여행지를 직접 취재하여 펴내는 여행 전문 교양잡지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내용만큼은 알차습니다. 전국 유명 여행지, 산과 계곡, 포구와 섬, 농산어촌마을, 진짜 맛있는 지역 특산물과 맛집, 펜션이나 리조트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할까?**

- 자주 뵈지 못하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선물하세요.
- 매월 만나야 하는 거래처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매주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증권회사 객장, 은행 객장, 우리 회사 대리점과 매장을 찾는 손님에게 선물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주)하이미디어 P&I에서는 ... 귀사의 전자와 사보, 단행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귀사와 고객이 원하는 책을 기획해서 취재, 편집, 디자인, 제작, 발송까지 한꺼번에 해결해드립니다. 경력과 능력이 출중한 취재, 사진, 디자인, 제작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사 마케팅 전략과 예산에 맞춰 판촉물을 개발, 제작해드립니다.

화승그룹사보 여름호

가시기술공사 여름호

행복플러스 여름호

**주 하이미디어 P&I**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41-1 하이미디어빌딩

홈페이지 www.ktsketch.com Tel 02-795-3364, 6634

다량 구매시 다양한 특전이 있습니다.

- 비용을 할인해드립니다.
- 귀사의 홍보하고 싶은 신상품을 특별 지면에 홍보해드립니다.

\*잡지 구매 및 문의 상담: 02-795-3364 이보영 사원

**:: 좋은 판촉물 하나가 회사를 살립니다.**

#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쇼핑 기업 '우뚝'

## GS SHOP

GS홈쇼핑은 국내 TV홈쇼핑을 처음으로 소개한 주인공이다. 현재 홈쇼핑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통합 브랜드 GS샵(GS SHOP)의 이름으로 TV쇼핑과 인터넷, 카탈로그, T커머스 등 다양한 채널의 쇼핑 사업을 전개하면서 명실공히 온라인 쇼핑 리더로도 약하고 있다.

특히 GS샵(www.gsshop.com)은 오픈마켓과 함께 인터넷쇼핑 시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종합쇼핑몰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월 평균 150만부 이상 발매되는 카탈로그 쇼핑도 업계 1위를 확고히 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종합 온라인쇼핑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GS홈쇼핑이 국내 대표 온라인쇼핑 기업으로 발돋움 하게 된 비결은 사업 초기부터 과감한 투자다. 인프라 투자 및 ERP, CRM시스템 구축으로 30일 내 교환 반품 보장, 24시간 콜센터 상담, 배송일 약속제, 방송상품 예고제 등 혁신적인 고객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최근에는 신상품 개발 및 독점 상품 확대, 프리미엄 브랜드 유치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국내 TV쇼핑 시장의 포화로 성장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GS홈쇼핑은 사업 구조개편 및 뉴미디어 쇼핑,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온라인유통 기업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국내 시장은 그 동안 TV쇼핑 중심의 사업구조를 탈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쇼핑을 복수 주력사업으로 삼아 향후 모바일 쇼핑 경쟁력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GS홈쇼핑 실적을 살펴보면 인터넷쇼핑 부분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합 브랜드 GS샵 출범 이후 TV홈쇼핑, 인터넷쇼핑, 카탈로그 등 개별 채널의 마케팅 활동을 통합한 것에서 기인한다.

과거 TV쇼핑과 인터넷, 카탈로그 등 사업별로 나누어 존재하던 상품 소싱 체제를 통합하면서 상품 소싱 규모가 커져 독점상품 확대 및 가격 합리화가 가능해진 것. 향후 상품의 채



GS홈쇼핑 허태수 대표

널 별 복합적 노출과 공동 이벤트 등을 통해 인터넷쇼핑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뉴미디어 사업도 활발하다. 날로 다변화돼 가는 고객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새로운 시장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 종합쇼핑몰·카탈로그 쇼핑 매출 1위 고수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로 글로벌기업 도약 다양한 채널 통합으로 온라인 경쟁력 강화

GS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쇼핑 서비스를 개시, 최근 방문자가 하루 평균 1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방문자의 80%가 30대 초중반의 남성고객인 점은 고무적이다.

기존 TV쇼핑 고객의 80%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동안 미지의 영역이던 남성 고객을 새로이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양방향TV쇼핑(T-commerce)도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양방향 TV쇼핑은 기존의 TV쇼핑이 상품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고 전화로 주문을 하던 것과 달리 방송 시청 중 리모컨을 활용해 상품 검색과 정보확인, 주문,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적립금, 주문내역, 배송 상황도 TV화면 상에서 조회가 가

능한 서비스다.

이는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가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20%에 육박하고, IPTV 가입자가 최근 1-2년 사이 급증하여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환경 변화가 주요한 요소이다. 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고객들이 적응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국내 TV쇼핑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GS홈쇼핑은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18일, GS홈쇼핑은 태국의 유력 미디어그룹 '트루비전'(Truevision), 오프라인 유통기업 '더몰(The mall)'과 함께 홈쇼핑 합작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태국 최대 미디어그룹의 채널 파워와 한국 1위 홈쇼핑 사업자의 노하우, 현지 최대 유통기업 등 3자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홈쇼핑 사업 성공을 위한 최적의 조합이라는 평가다.

태국은 현대적인 기업형 유통시장을 통해 인터넷쇼핑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한국의 유통기업이 진입한 사례는 없어 GS샵의 진출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한국 내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접근하는 교량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세계 유명 브

랜드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권에 소싱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홈쇼핑 사업자 최초로 인도 시장 진출을 성사시켰다.

GS샵이 3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된 'HomeShop18'은 24시간 홈쇼핑 채널로, 12억인구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도시장에 유일한 홈쇼핑 채널로서 탄탄한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도는 할인점, 슈퍼와 같은 현대화된 기업형 소매업이 최근 5년 간 연 3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전체 소매시장 규모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업형 소매업의 발전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 홈쇼핑 벨트를 만들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GS홈쇼핑 본사 전경

### 애널리스트가 본 GS홈쇼핑

## "양호한 실적 흐름 유지 예상"

증권 전문가들은 GS홈쇼핑에 대해 업황 양호와 해외 진출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홍성수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조정은 예상되지만 레벨은 양호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양해각서를 체결한 태국 홈쇼핑 사업이 연말연초에 더 구체화 될 것으로 홈 애널리스트는 예상했다. 합작회사인 트루GS홈쇼핑은 4분기 중에 설립되고 방송은 트루비전 유료방송 2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말연초에 24시간 전용 채널로 이뤄질 전망이다.

홈 애널리스트는 태국 홈쇼핑 시장 규모를 6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1인당 GDP, 도시화,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태국 시장은 단기 매력보다 장기적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GS홈쇼핑의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홈쇼핑 업황 양호,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 자사주 매입 진행 등으로 투자자의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저평가 매력을 유호하며 목표주가를 12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올 3분기 실적은 전년도 높았던 저지효(실손보험 판매 호조)로 인해 이익 감소세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4분기에는 보험판매 회복과 비용 효율화 효과로 분기당 3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민 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의 253억원, 순이익의 18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1.9%와 22.4%가 줄어든 추정치다.

하지만 올해 연간 추정실적은 영업이익 1108억원, 순이익의 774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8%와 32.8%가 높은 것으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민 애널리스트는 예상했다.

민 애널리스트는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TV SO 지분가치(강남방송, 울산방송) 재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할 경우 상승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GS홈쇼핑은 신상품 개발과 프리미엄 브랜드 유치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사진은 홈쇼핑 방송촬영 모습.

## "우수 상품은 우수 협력사서"

200억 펀드 조성 등 상생경영 본격 실천

1995년 8월 국내 TV홈쇼핑을 최초로 소개한 GS홈쇼핑은 초기 부진을 거듭했다. TV홈쇼핑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생소했고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지만 98년 불어 닥친 외환위기는 GS홈쇼핑이 우수 중소기업과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GS홈쇼핑은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3위 홈쇼핑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 배경 때문에 GS홈쇼핑은 고객만족이 우수한 상품에서 나오는 우수한 상품은 우수한 협력사에서 나온다는 신념 아래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에 매우 적극적이다.

우선 협력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 금융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13일부터 GS홈쇼핑은 농협, 기업은행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의 운용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GS홈쇼핑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은 은행 담보 없이도 시중금리보다 최대 1.75%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1.5% 추가 인하도 가능해 중소기업은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펀드 외에도 GS홈쇼핑은 이미 2005년부터 업계 최초로 '네트워크론'과 '패밀리 기업 대출' 등 중소기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을 시행해 업계 상생 경영의 모범으로 꼽혀 왔다. GS홈쇼핑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이들 상생 협력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400여명의 운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여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GS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대금 지급일을 단축하는 한편, 상품 매출 후 10일 이내에 현금을 선지급하는 '현금선지급'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금융지원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길 개척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GS홈쇼핑과 주방생활 전문기업 코맥스가 공동 개발하여 지난 4월 TV쇼핑을 통해 런칭한 친환경 밀폐용기 '클로젠'은 국내에서 13만개를 판매하며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홈쇼핑의 성공을 발판으로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18개국에 12만개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유럽 시장 진출이 확정됐고, 연내에 50여개국에 천만명 이상으로 수출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코맥스의 해외영업담당 김건창 이사는 "GS홈쇼핑 판매 성공 사례가 해외 바이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고 말하며, "GS홈쇼핑으로부터 제공 받은 방송 녹화 테이프와 각종 마케팅 자료를 입점 상담으로 활용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고 밝혔다.

GS홈쇼핑은 향후에도 우수 중소기업 상품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현유섭 기자 heuson0214@

**A\* 한국알카리수주식회사**  
Korea Alkaline Water Co., Ltd.

내 몸이 기억하는 첫 번째 물,  
**알카리로 돌아가자!**

오염이 없는 깨끗한 수  
육각수 비율이 높고, 클러스터(물분자 집단)가 작은 수  
미네랄이 함유된 물에 좋은 수  
pH 9.1 ~ pH 9.9 알카리 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환원력이 강력한 수

**프리미엄 미네랄 알카리수 에이수!**

우리는 인체를 산성화시키는 음식과 환경오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pH9.1~9.9의 알카리 성분과 미네랄이 함유된 '에이수'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순수하고 건강했던 처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www.eisu.co.kr | Tel. 1588-9719



# 세상 모든 은행 IBK만 같아라!



## 해가 뜨나 달이 뜨나 전국 모든 은행 ATM 수수료 완전무료

이제도  
듬뿍!

핸드폰 요금 자동 이체하면 끝!

**IBK 핸드폰결제통장**

- ▶ 핸드폰 자동이체 후 신용(체크)카드 이용 혹은 적금 자동이체 시
- ▶ 만 40세 이하 고객에 한함 ▶ 금리 최고 연 3.5% (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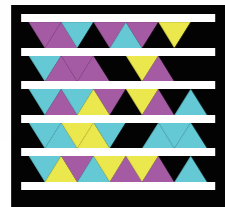
**IBK 급여통장** 월급 자동 이체하면 OK!

- ▶ 월 급여 자동이체 혹은 매월 지정일 일정금액 이상 자동이체 시
- ▶ 금리 최고 연 3.2% (세전)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민원안내 : 080-800-0119 www.ibk.co.kr(전자민원창구) • IBK기업은행은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연락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앱 스토어에서  
Colorzip Korea  
무료 어플을  
다운받아 비춰보세요



IBK의 다양한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Tag reader 어플을  
다운받아 찍어보세요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고객센터 1566-2566  
www.ibk.co.kr



# “송편 찢 때 매연범벅 아파트단지 솔잎 안돼”

## 명절 중후군 확 날려버리세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다. 즐거워야 할 추석이지만 연휴를 전후해 피로, 과음, 과식 등으로 생활리듬이 깨지기 쉽다. 이번 연휴는 기본 5일을 쉬기 때문에 무리하면 후유증이 커질 수 있다. 장시간을 운전할 때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2시간마다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목과 허리 어깨 관절을 풀어줄 수 있도록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한다. 차 안에서 하품이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축적됐다는 의미다.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1시간에 한번 정도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쐬는 것이 좋다. 과식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다. 소화기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고다. 가능하면 소식하고 급제했을 때는 하루 정도 먹지 않고 위를 비우는 게 최선. 또 식이요법을 해오던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 환자들이 음식을 양껏 먹다가 심부전이나 고혈당을 일으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추석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보내자.

곽도훈 기자 sogood@

## ■ 안전하면서도 풍성한 추석음식 만들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다. 즐거워야 할 추석이지만 연휴를 전후해 피로, 과음, 과식 등으로 생활리듬이 깨지기 쉽다. 이번 연휴는 기본 5일을 쉬기 때문에 무리하면 후유증이 커질 수 있다. 장시간을 운전할 때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2시간마다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목과 허리 어깨 관절을 풀어줄 수 있도록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한다. 차 안에서 하품이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축적됐다는 의미다.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1시간에 한번 정도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쐬는 것이 좋다. 과식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다. 소화기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고다. 가능하면 소식하고 급제했을 때는 하루 정도 먹지 않고 위를 비우는 게 최선. 또 식이요법을 해오던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 환자들이 음식을 양껏 먹다가 심부전이나 고혈당을 일으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추석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보내자.

## 토란 껍질 벗길때 장갑 필수 견과류 등 한과 신선도 주의 음식은 식힌 뒤 냉장고 보관

도 송편이다. 송편은 찌는 떡의 일종으로 멥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만들고, 깨, 콩, 팥 등을 소로 넣는다. 송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솔잎'을 깔고 찌는 것이다. 송편의 '송(松)'이 소나무라는 뜻이니 솔잎을 깔고 찌지 않은 송편은 진정한 송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요즘 도시에선 솔잎을 구하

**추석 전통음식 건강하게 즐기세요~**

- 송편 1개 약 100kcal, 송편소 1개 약 50kcal, 송편 1개 약 100kcal, 송편소 1개 약 50kcal
- 김치 1인분 약 100kcal, 김치소 1인분 약 50kcal
- 떡 1인분 약 300kcal
- 견과류 1인분 약 300kcal
-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적당히 먹습니다
-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습니다
- 짜자갈게 먹습니다
- 술과 안주는 적당히 먹습니다

## 과음·과식 절대 피하고 고향길 운전 꼭 스트레칭을!

가 쉽다. 그러다보니 심지어 아파트 단지의 소나무에 손을 대기도 하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다. 나뭇가지를 꺾는 것도 아니고 솔잎만 뜯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 오해. 자연보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 안전 차원의 문제다. 화단의 나무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한다. 아파트 주차장에 가득한 자동차 매연에도 고스란히 노출된다. 해충제, 소독약에 매연까지 범벅된 '오염솔잎'을 까느니 차라리 안까는 편이 낫다.

토란 껍질 벗길때 장갑 필수  
견과류 등 한과 신선도 주의  
음식은 식힌 뒤 냉장고 보관

도 송편이다. 송편은 찌는 떡의 일종으로 멥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만들고, 깨, 콩, 팥 등을 소로 넣는다. 송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솔잎'을 깔고 찌는 것이다. 송편의 '송(松)'이 소나무라는 뜻이니 솔잎을 깔고 찌지 않은 송편은 진정한 송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요즘 도시에선 솔잎을 구하

실날에는 으레 떡국을 먹듯이 추석 차례상에는 토란국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토란은 껍질을 벗기면 갈변이 쉽게 일어난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껍질 벗긴 토란에 아황산염 등 표백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황산염은 천식과 알러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토란껍질은 직접 벗겨야 안전하다. 이때 반드시 장갑을 끼

것. 맨손으로 만지면 엄청나게 가렵다. 명절이나 제사음식 준비에서 전을 부치는 것도 손이 많이 가는 큰 일. 그런데 노릇하게 부쳐진 전을 꺼내놓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차례준비로 분주한 각 가정의 주방을 들여다보면 달걀종이를 뒤집어 넣은 채반에 펼쳐놓고 그 위에 전을 올려놓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인쇄가 돼 있지 않은 달걀의 뒷면은 무척 깨끗하게 보인다. 그러나 깨끗하게 보이는 흰 달걀종이에는 형광표백 물질이 들어있다. 형광표백물질은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전에 달으면 쉽게 녹아나온다. 형광표백물질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대사 이상을 초래하는 환경호르몬 즉, 내분비 교란물질이므로 매우 위험하다. 식품에 직접 닿는 용도로는 환경오염 염려가 없는 한지 기름종이나 키친타올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차례상 맨 앞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강정이나 유과, 산자, 약과 등 한과

류는 신선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름에 튀겨낸 찹쌀반죽 혹은 깨나 잣, 팥 등 견과류를 이용한 한과류에는 지방이 무척 많은데 오래된 한과류에서는 흔히 전내라고 표현하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 이 냄새는 '지방산패취' 즉 견과류의 지방이 산패해 나거나 산패된 지방은 소화불량, 설사를 유발한다. 또 이렇게 오래된 견과류에는 아플라톡신 B1이라는 곰팡이독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독소는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울어름 더위는 9월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애써 장만한 추석 음식이 상하지 않을까도 염려된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은 가급적 냉장보관을 하는 것이 좋다. 이때 반드시 완전히 식힌 후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 식지 않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서 다른 음식에까지 미페(?)를 끼친다. 먹고 남은 음식은 충분히 재가열한

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찹이 달은 음식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조금씩 덜어먹어 남기는 음식이 없도록 하는 것도 식중독을 예방하는 요령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중독균을 포함한 미생물은 5°C 이하에서는 증식되지 않거나 아주 서서히 증식되기 때문에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고의 온도를 5°C 이하로 유지하고 최대 5일 이내 섭취해야 한다. 5°C 냉장고에서 달걀은 3-5주간, 마요네즈는 개봉 후 2개월 이내로 보관할 수 있으며 조리된 식육 및 어패류는 3-5일, 익히지 않은 식육 및 어패류는 1-2일 이내에 조리해야 한다. 아울러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는 것도 미생물이 자랄 수 있기에 때문에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흙이나 물 등에는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으며 식품의 조리 및 보관 중 다른 식품으로 옮겨질 수가 있으므로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은 별도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 무심코 먹다보면 허리띠가 싫어해요

### ■ 명절 음식 똑똑하게 먹기

추석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바로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다양한 음식들이다. 한입 크기의 반지르르한 송편부터 각종 전, 갈비찜, 식혜 등은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돌게 한다. 하지만 반가움에 부딪히는 술 한 잔과 함께 안주로 집어먹는 각종 과일과 전, 무심코 집어먹는 송편 한두 개가 자칫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추석 음식은 고단백, 고지방, 고칼로리이기 때문이다. 추석 음식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추석 음식 한끼면 성인 하루 열량 = 떡, 각종 부침개, 고기가 주를 이루는 추석 음식들은 열량과 콜레스테롤이 높다.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쉽게 살이 쪼다. 일반적으로 하루 칼로리 섭취량은 성인 남자가 하루 2100kcal, 성인 여자는 1700kcal 정도다. 하지만 대표적 추석음식인 송편만 해도 단 4-5개만 먹어도 200kcal 정도가 된다. 이외에 식혜 2잔, 잡채 1접시, 녹두 빈대떡·고추전 1장 등은 각각 열량이 공기밥 1그릇(300kcal)과 맞먹는다. 따라서 한끼 식사 때 섭취하는 칼로리가 1000-1500kcal까지 될 수 있으며, 후식으로 먹는 식혜와 다양한 과일, 반주 잔잔을 곁들인다면 하루 섭취 칼로리가 4000-5000kcal를 훌쩍 넘기게 된다. 때문에 추석에는 과식을 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만약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추석 음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고혈압 환자는 무심코 음식을 집어먹게 되면 소금기 섭취가 늘어나 증상을 악화될 수 있다. 또한 당뇨 환자는 단맛 나는 식혜, 밥이나 떡처럼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된 음식이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귀족병으로 불리는 통풍은 고기류(간, 내장, 육류, 고등어, 멸치, 베이컨 등)나 맥주 등의 알코올 섭취로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통풍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좋다. 과음·과식으로 배탈이 나거나 구토를 할 땐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피하고, 보리차나 꿀물 등을 마시거나 한두 끼는 죽을 먹는 게 좋다. 설사를 한다면 탈수를 막도록 물 또는 이온음료를 충분히 마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과식으로 급제했을 경우에는 위 운동을 강화하는 소화제가 효과적이지만, 하루 정도 먹지 않고 위를 비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송편은 참기를 적게 바르고 나물은 무쳐라 =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각종 나물 요리는 기름에 볶는 대신 데쳐서 무치고, 열량이 높은 참기름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 한끼 먹었는데 하루치 열량 당뇨환자 식혜·떡 조심조심 배탈땀 기름진 음식 삼가야

송편의 윤기를 더해주는 참기름도 많이 바르지 않는 게 열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각종 전과 튀김, 생선구이는 기름을 바로 붓지 말고 코팅이 잘된 팬에 솔로 기름을 고루 퍼 바른 후 뜨겁게 달궈 단시간에 조리해야 한다. ◇구이 대신 조림이나 찜으로 = 추석 음식이 칼로리가 높은 이유는 대부분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선 등은 구이보다 조림이나 찜 요리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육류는 기름기를 최대한 없애고 요리하는 것도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개인 접시를 활용하라 = 과식을 피하고 싶다면 작은 사이즈의 개인 접시를 사용하면 유용하다. 개인 접시 없이 여러 음식을 집어 먹다 보면 양을 가늠하기 어려워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 접시를 이용하면 자신이 몇 그릇 정도를 먹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식사량을 조절하기가 수월하다. ◇당분 높은 과일, 통째로 무심코 집어먹지 말라 = 과일은 사과 한 개가 150kcal나 될 정도로 열량이 비교적 높은 음식이다. 때문에 과일도 과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당뇨질환을 앓고 있다면 과일의 양을 조절하는데 신경 써야만 한다. ◇충분히 수분 섭취하고, 꼭꼭 씹어라 = 식사를 하기 전 충분한 수분 섭취는 위에 포만감을 줘 음식에 손이 가는 횟수를 줄여준다. 또한 식사 때 씹음질이 많은 나물 등을 먼저 먹는 것도 포만감을 주는 한 방법이다.

**ELORD**

자유로운 스윙의 또 하나의 비밀  
**엘로드 액션 워머 INNER**

KEEP WARM  
QUICK DRY  
STRECH

UV-CUT  
STRECH  
ANTI-BACTERIA

STRECH  
HIGH BREATHING

엘로드 프로골퍼  
강다나

**Action Warmer의 특징**

- 동점 Golf / Sports 및 야외활동시 탁월한 보온효과
- 최첨단 스포츠 전문소재의 사용으로 최적의 신체 Condition 제공
- 혈액순환을 촉진 시킴으로써 운동시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
- 몸에 Fit되는 소재로 세련되고 스포티한 외관과 보정효과

MAN WOMAN

보온효과 신축기능 속건기능 투습효과 자외선 차단 방충효과

HEAD OFFICE : 02-3677-8617



# 인증마크 확인하고 유통기한 체크를

## ■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선택요령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면서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과의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양주환)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유사 건강식품과 식별하는 요령 등 연령대별 추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 건강식품 등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은 식품을 말하며 이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다.

실제 최근 면역력 관련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늘류나 감초, 가시오가피, 당귀 등은 소위 귀에 익숙한 건강식품이지 정부의 인정과정을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뒷면에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돼있으며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 사이트(hfoodi.kfda.go.kr)에서도 기능성 내용은 물론 섭취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요령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 =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만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시

## 일반 건강식품과 혼동 말아야 식약청 인정마크 반드시 확인 과대표시·광고 현혹되면 낭패

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선물 받을 사람 건강상태 먼저 체크 =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한 확인 필수 =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한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

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대 표시·광고에 속지 말아야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 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치료 목적의 선물은 안돼 =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문지마' 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시 돼야 한다.

◇반품 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 =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체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이 가능하다.

곽도은 기자 sogood@



## ■ 연령대별 추천 건강기능식품

◇할아버지, 할머니(60대 이후) 관절(글루코사민), 면역력(홍삼) 글루코사민은 연골의 기본 성분 중 하나로 관절과 연골의 영양 공급에 큰 도움을 준다. 또 6070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독감이나 신종플루 등 같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홍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들의 건강유지에 효과적이다. 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스쿠알렌 섭취를 통해 노화방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알로에 겔을 섭취함으로써 피부건강과 장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젊은 남성(2030) 간 건강유지(헛개나무), 영양보충(비타민) 술자리가 잦아지는 2030대 남성들의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간

## 무릎 아픈 할아버지께 '글루코사민' 술자리 많은 2030세대엔 '헛개나무'

◇아버지(4050) 생활습관병(메가3, 폴리코사놀) 기름진 음식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당뇨 및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어주는 폴리코사놀, 오메가 3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함으로써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받은 헛개나무 섭취를 권장할 만하다. 또 비타민을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영양보충으로 몸을 유지시켜주는 동시에 신진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 ◇젊은 여성(2030) 피부수분공급(히아루론산), 체지방 관리(CLA, HCA, 대두배아열수추출물) 피부 수분보충에 도움을 주는 히아루론산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피부건강에 도움을 준다. 체지방 축적억제 효과를 인정받아 체중유지에 도움을 주는 CLA, HCA, 대두배아열수추출물 섭취도 권장할 만하다.

◇어머니(4050) 혈행개선(감마리놀렌산), 항산화(스쿠알렌), 피부건강(알로에) 달맞이꽃종자유, 보리씨꽃종자유, 모유 등에 함유돼 있는 성분인 감마리놀렌산은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생리활성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중년여성

피부 수분보충에 도움을 주는 히아루론산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피부건강에 도움을 준다. 체지방 축적억제 효과를 인정받아 체중유지에 도움을 주는 CLA, HCA, 대두배아열수추출물 섭취도 권장할 만하다.

# 재사용땐 찌꺼기 걸러야 산패방지

## ■ 식용유 올바른 보관·사용방법

추석에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다름 아닌 식용유다. 최근에는 식용유도 제조성분에 따라 옥수수, 올리브, 해바라기유 등으로 다양해져서 어디에 무슨 식용유를 써야 할지 헷갈리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에 따르면 식용유는 공기중에 장기간 보관하면 기름이 썩는 산패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한다. 산패된 식용유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나고 식용유 고유의 색보다 더 진한 색을 나타낸다. 또 기름이 산패하면 점도가 높아지게 되고 튀김시 거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기포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산패를 의심해 봐야 한다.

고열·고온은 식용유 변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므로 열이 많이 나는 가스레인지 주변은 물론,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과 공기 중 산소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사용 후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한다.

## 고열·고온이 변질의 원인...밀폐 보관 必 식물성 산패 빨라...참기름은 거의 없어

또 한번 사용한 기름을 남은 기름과 혼합해 보관하거나 식용유에 물이나 튀김 찌꺼기가 섞이면 산패가 빨리 진행되므로 다른 용기에 보관하거나 1-2회 사용한 기름은 환경 보호를 위해 분리수거통에 버려야 한다.

나물 무침 등을 조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참기름, 들기름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으나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많을수록 산패가 빨리 진행된다.

다만 참기름에는 항산화성분인 세사민, 세사몰린이 포함되어 있어 쉽게 산패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들기름보다 유통기한이 더 길다.

올리브유를 냉장보관하면 백색의 침전물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올리브유에 함유된 포화지방이 저온에서 응고되기 때문이며 온도가 높아지면 침전물이 다시 녹아 없어지고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물성 식용유에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기름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기름에 비해 산패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 및



보관시 유의해야 한다.

가정에서 한번 튀김에 사용한 기름은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재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튀김 후 기름은 반드시 걸러서 보관해야 한다.

가정에서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에는 미세한 찌꺼기들이 많이 남는데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산패가 촉진된다.

따라서 사용하고 남은 기름을 여과지로 걸러서 깨끗한 상태로 유리병에 담은 뒤 마개를 꼭 닫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폐식용유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수구에 바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모아서 폐식용유 분리수거함에 버리도록 한다.

이렇게 모아진 폐식용유는 경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이나 사료원료 등으로 자원화 될 수 있다.

UD

# UR DREAM

Special Edition

## 유디르 스파&에스테틱

유디르스파는 순수지업주의 스파와 메디컬 스파가 집목된 새로운 "퀀텀프리 아시아인 SPA" 컨셉으로 일상에 지친 당신의 몸과 마음에 건강과 활력소를 불어 넣어 드립니다. 다년간의 전문테라피스트들의 정성어린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전문케어를 제공해드립니다.

이제는 럭셔리한 유디르 스파를 만나보세요!

문의/예약: 02-3486-6800

www.udlespa.com



UD Beauty Aesthetic Le Spa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38-21 코리야비즈니스센터3층

LED 스탠드 전문기업(주) 프리즘®



# 이런 스탠드가 다있어?

기능 뽐뽐하지, 디자인 좋지~ 거기다 전기료 절약까지!

(주)프리즘® LED 스탠드 4500



(주)프리즘 모델 | 개그연수 대표

■ 모델명 : 프리즘 Engoth - 4500

## LED 스탠드 4500 50,000대 판매기념 특별판매!

(주)프리즘은 고객의 눈높이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듭니다. 앞서가는 기술과 모던한 유럽파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프리즘 LED 스탠드 4500은 최고급 LED 램프와 첨단 광학산 필터 장착으로 눈부심 방지는 물론, 뛰어난 배광 범위와 3단계 조도조절 기능으로 LED 스탠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사용자의 환경에 맞춘 자유로운 회전 및 각도 조절 기능!



▶첨단 LUMIPLAS필터 장착  
눈부심 방지 효과는 물론 탁월한 빛 확산  
성과 빛무과음을 실현합니다

(주)프리즘 LED스탠드가 좋은 이유 - 기술이 다르면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에너지절약 - 전기료가 조금 나와요!  
LED 램프 =  $X \frac{1}{8}$  =  $X \frac{1}{2}$

전구의 수명이 길어요!  
LED 램프 40,000h > 5,000h > 1,000h

시력보호 - 빛 떨림이 없어 눈의 피로가 적어요!  
LED 전문용 사용: 100% 직류용  
정규용(가정용 사용): 50% 교류용

환경친화적 - 수은, 방전용가스를 사용안해요!  
FREE

| 특별판매가 (프리즘 LED스탠드 4500) : ₩29,900 X 3 (카드 무이자 3개월) | 무료 주문전화 080-486-3333 온라인주문 [www.myseason.co.kr](http://www.myseason.co.kr)

주요특성: 제품 크기: 17.1 x 12.1 x 12.1cm | 모델명: 프리즘 Engoth - 4500 | 제조사: 프리즘

# 용산, 복합기능 입체도시로 만든다

## 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 공개

### 지하에 코엑스 6배 쇼핑몰 건립 랜드마크 빌딩은 69~100층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상징인 랜드마크 빌딩이 3개의 타워로 건설된다. 또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코엑스몰 6배 크기의 매머드급 쇼핑몰조사가 조성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지난 16일 오후 3시 건설서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세계적인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드의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발전시킨 이번 마스터플랜은 인허가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확정된다.

리베스킨드는 "지상과 지하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업무와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기능을 생산하는 도시 특

유의 잠재력을 극대화했다"며 "입체도시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코엑스몰 6배 크기의 매머드급 쇼핑몰조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들어선다.

전체 지하면적(시설면적)은 총 49만 5494㎡(약 15만평), 이 중 상업시설 규모만 40만6456㎡(약 12만3000평)로 코엑스몰(2만3000평) 크기의 6배에 육박한다.

실제로 단지 전체를 남북으로 관통(총 연장 1.2km, 최대 폭 70m)해 한강으로 연결되는 지하 2층 레벨의 리테일벨리를 축으로 지상 순환도로 아

래 지어지는 하부 순환도로(총 연장 1.4km, 최대 폭 21m) 주변에도 상업시설(지하 1.2층)이 들어선다.

아울러 지상과 지하의 유기적인 교통체계를 연면적 100만평 규모의 도시 전체가 단절되지 않고 물 흐르듯 연결된다.

특히 지하화된 강변북로, 대신도전철(GTX)과 신분당선, 하부 순환도로, 철도데크 등 입체화된 교통체계를 통해 사통팔달로 연결된다.

서울시의 링크계획도 지하네트워킹의 한 축이다. 한강로 지하를 가로질러 용산공원과 용산역을 잇겠다는 것. 이 청사진이 구체화하면 남산과 한강을 사이에 둔 용산 일대에 거대한 지하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캐나다 몬트리올과 같은 본격적인 입체도시의 등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리테일벨리는 뉴욕의 소호와 같은 문화특구로 꾸며진다. 차세대 젊은 예술가들의 스튜디오와 개성 넘치는 갤러리는 물론 상설 공연장과 멀티플렉스 등 각종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24시간 불을 밝힌다.

중심에는 3개의 랜드마크 빌딩이 건설된다. 코레일이 매일 의사를 밝힌 500m(100층)의 메인 타워(랜드마크 I) 주변에 356m 높이(72층)의 랜드마크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들어설 코엑스 6배 크기의 쇼핑몰조사가 40만6456㎡ 규모로 각종 판매시설은 물론 상설 공연장, 멀티플렉스, 갤러리, 스튜디오 등을 갖춘 문화특구가 조성되며, 지하로는 강변북로 등과 연결된 입체 교통체계를 갖추게 된다.

크 II와 333m(69층)인 랜드마크 III가 삼각형 모양을 형성해 신라 금관의 스퀘어라인을 연출한다.

랜드마크 II에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부티크형 오피스가, 랜드마크 III는 5성급 호텔시설과 호텔서비스레지던스가 입주할 예정이다.

드림허브는 3개의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 각 건물과 조경 디자인은 6개 블록별로 나눠 국내를 포함,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맡길 계획이다. 이들 명단에는 프랑스 파리의 포피드센터를 설계한 렌조 피아노(이탈리아), 부르즈 칼리파(두바이)를 맡았던 아드리안 스미스(미국) 등 세계적 거장급 설계회사들이 포함돼 있어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체가 현대건축의 화려한 전

시장이 될 전망이다. 업무시설의 연면적은 142만8000㎡(약 43만평)로 가장 큰 비중(42.7%)을 차지한다. 상업시설까지 포함하면 상

근 인구만 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고려해 주거시설 비율을 26.6%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주자용 아파트 2200여 가구와 임대아파트 770가구 외에 일반 분양 아파트 물량이 2000여 가구 가까이 늘어났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분양 면적과 일반 분양 규모 등은 서울시와의 협의과정과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기자 sbkim@

### 오만 복합발전소 2건 GS, 13억 달러에 수주

GS건설은 독일 지멘스(Siemens AG)사와 공동으로 13억 달러(한화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오만 바르카 3단계 및 소하르 2단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2건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총 6억8000만달러 규모의 오만 바르카 3단계 복합화력발전소는 오만 바르카(Barka) 지역에 750메가와트(MW)의 복합화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공사다.

알 수와디 파워 컴퍼니(Al Suwadi Power Company SAOC)가 발주하고 GS건설 컨소시엄(지분 50%)이 총 34개월에 걸쳐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및 초기운영 등의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하르 2단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는 총 6억3000만달러 규모로, 오만 소하르(Sohar) 지역에 750메가와트(MW)의 복합화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김성배기자 sbkim@



거가대교 침매터널 연결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총 8.2km길이의 거가대교 침매터널이 13일 개통됐다. 침매터널은 부산 가덕도~대축도 사이 3.7km 구간에서 건설됐으며, 나머지 구간은 섬을 잇는 사장교 2개로 연결됐다. 공사를 맡는 대우건설의 서종욱 사장은 "가장 깊은 곳의 침매는 해저 48m 위치해 있다"며 "일본 네덜란드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대우건설 기술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 추석이후 내집 마련은 판교·광교서

## 2기 신도시 17곳서 1만2677가구 쏟아져

추석 이후 판교 광교 등 2기 신도시에서 총 17곳 1만2677가구(임대포함)가 공급된다.

내집 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총 8곳 5628가구가 물량이 가장 많고, 파주 교하운정신도시에서 3곳 3566가구, 광교신도시에서 4곳 3277가구, 화성 동탄과 판교에서는 각각 한 곳에서 28가구, 178가구가 공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신도시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B7블록에서 '판교에일린의뜰'의 타운 하우스를 오는 11월 분양할 계획이다. 주택크기는 전용 85㎡ 초과로 240가구로 구성된다.

B7블록은 원전유원지와 바로 접해 있어서 연립주택으로 손색이 없다. 지하철 신분당선 도청사역이 가깝고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도 가까이에 있어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국내 최초로 폭이 6m 되는 테라스하우스가 선보일 예정이다.

임대물량도 나온다. A10(701가구), A26(1664가구), A27블록(672가구) 등 세 블록에서 3037가구의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가 나온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세보증금과 임대료만 내면서 임대기간에 거주하고 향후 분양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형은 전용 74-135㎡로 다양하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연내 2기신도시 분양 예정 물량(단위 : m²)

위치	아파트명	건설사	총가구수	공급면적	분양시기	
판교	&B7블록	판교에일린의뜰	아이에스동서	240	전용85초과	11월
	*A10블록	판교A10블록	LH	701	전용74,84	11월
	*A26블록	판교A26블록	LH	1664	전용74~135	11월
	*A27블록	판교A27블록	LH	672	전용74~135	11월
김포	&Bc-10블록	일성트루엘	일성건설	168	135~207	10월
	Ac-12블록	한라비발디	한라건설	857	130~155	10월
	*Aa-6블록	Aa-6블록	LH	1860	전용29~59	10월
	Ac-20블록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	158	158	10월
	B-9블록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	87	112	10월
	&Bc-12블록	신동아파밀리에	신동아건설	295	125~148	12월
	Ab-7블록	한양수자인	한양	1400	미정	12월
동탄	&동탄신도시	휴먼빌	일신건설	28	253~280	10월
	#C1-1블록	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178	161~165	10월
파주	*운정A23블록	휴먼시아	LH	865	전용74~139	9월
	*운정A5-1블록	휴먼시아	LH	821	전용74~84	9월
	교하A14블록	롯데캐슬	롯데건설	1880	82~234	12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85㎡ 초과는 청약예금가입자에게 돌아간다.

판교신도시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처음으로 선보인다. 호반건설은 10월 중 판교신도시 C1-1블록에서 '호반베르디움' 178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한다. 공급면적 161~165㎡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신분당선 판교역을 둘러싸고 조성되는 판교중심상업지구와 맞닿아 있어 입지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준공 시점에는 판교역사가 개통돼 서울 강남역까지 20분이면 달을 수 있는 거리다.

일성건설은 한강변에 위치한 Bc-10블록에서 공급면적 135~207㎡의 중대형 북쪽 타운하우스 168가구를 분양한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권이 가능하다. 주거와 생활, 취미공간이 분리된 3D하우스의 특징이 있다.

1, 2층 복층가구는 33㎡ 규모의 지하스튜디오와 필로티 테라스가 별도로 제공된다. 그리고 3, 4층 복층가구는 지붕 테라스와 33㎡의 다락방이 보이면 이용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파주 교하운정신도시 A14블록에서 '롯데캐슬'을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18-30층 20개동에 공급면적 82~234㎡ 1880가구가 대단지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경의선 복선전철 1단계 구간이 개통돼 차량으로 5분이면 이용 가능하다.

내년에는 제2자유로, 2014년에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일신건설이 타운하우스 '휴먼빌'을 다음 달에 분양할 예정이다. 공급면적 253~280㎡ 중대형으로 28가구가 나온다. 강명훈 기자 augustin@

## 아파트 역시 강남불패? 타지역보다 하락폭 작아

작년 말과 비교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크게 내린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는 하락폭이 서울 다른 지역이나 신도시 등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말 대비 아파트 매매값 변동

률은 지난주를 기준으로 서울 -2%, 인천 -2.4%, 경기 -3.2% 등이었다.

서울은 강남 14개구(-2.3%)가 강남 11개구(-1.7%)보다 하락률이 높은 가운데 가장 많이 내려앉은 곳은 도봉구(-4.5%)였고 노원구(-3.9%), 은평구(-3.8%), 강서·양천구(각 -3.0%), 성북구(-2.5%) 등이 뒤를 이

었다. 반면 서초구는 25개구 중 유일하게 0.2% 올랐고 강남구(-1.6%), 송파구(-1.7%)의 내림폭도 평균 하락률보다 낮았다.

아파트값은 경기권에서 많이 떨어졌다. 하락률 상위 10개 지역에 과천(-7.3%), 일산 서구(-7.3%), 양주(-6.3%), 일산동구(-6.1%), 파주(-5.7%), 의정부(-4.9%), 김포(-4.8%), 용인 수지(-4.8%), 등이 포함됐다.

홍성일 기자@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 년 앞을 내다본다

S A M S U N G

# 도전하는 이병철 창조하는 이건희

**"일류가 아니면 죽는다. 일류 제품을 만들어라!"**  
삼성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온 자기경영노트

삼성이 하면 무엇인가 다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낸 그 무엇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누구나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근면인가, 조직력인가 혹은 창조성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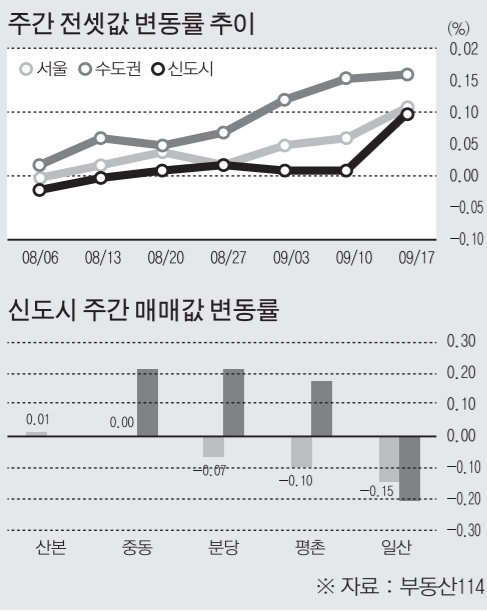
윤휘중 · 양형욱 지음 | 312쪽 | 13,000원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www.muhan-book.co.kr  
참신한 작가의 글을 기다립니다 muhanbook7@naver.com

지역	아파트(연락처)	면적	매매가 하한 상한	등록 하한상한	전세가 하한상한	등록 하한상한	가구 수	입주 년도
서울 (02)	우성사 578-9900	102 760	820 110	320 350			232	1991
	주공1단지 547-2131	35 640	670 135	60 65	5040	1982		
	주공2단지 342-2800	50 1020	1100	100 130	2840	1982		
	주공3단지 445-1004	94 900	1000 270	290	1060	1983		
	주공4단지 541-7113	97 600	620 280	300	266	2004		
경기	신원 548-6500	102 605	700 118	270 330	110	644	1997	
	쌍문2 647-0114	176 1500	1650 190	550 650	110	360	1983	
	쌍문3 647-0114	104 870	970 135	300 400	110	364	1983	
	쌍문4 647-0114	144 1350	1500 150	470 550				
	쌍문5 647-0114	142 1450	1600 125	350 400				
대전	대우건설 593-3083	465 170	190	90 120				
	한미건설 3453-8885	198 2100	2300	620 730	1204	1983		
	개발공사 572-3311	105 1030	1100	280 320	621	1985		
	경남 3403-5544	117 700	750 330	350 400	348	2000		
	대우건설 547-0176	2245 2200	2400 150	950 1050	125	1297	2002	
충청	한미건설 3461-0001	69 190	210 110	140 140	232	1999		
	한솔 548-8945	79 440	500 240	270 115	263	1999		
	PARK 541-8886	195 2000	3200 110	1100 1400	449	2004		
	한일 342-3666	108 1230	1370 330	250 290	432	1976		
	구미건설 544-5700	105 1250	1350 270	300	351	1980		
강원	한강건설 548-6114	152 2000	2150 450	500				
	개나리건설 567-2288	109A 980	1100 160	450 500 115	438	2006		
	대우건설 555-5646	155 510	540 310	360				
	동부건설 534-4989	79 470	550 240	230	206	1996		
	개발공사 547-0176	89 630	680 120	250 260 125	364	1985		
울진	쌍문2 647-0114	120 820	1150 130	430 480	628	1993		
	쌍문3 647-0114	119 1450	1510 230	300	240	1981		
	쌍문4 647-0114	152 2000	2150 450	500				
	쌍문5 647-0114	109A 980	1100 160	450 500 115	438	2006		
	쌍문6 647-0114	146 1400	1500 600	620				
충남	한솔 548-8945	79 440	500 240	270 115	263	1999		
	PARK 541-8886	195 2000	3200 110	1100 1400	449	2004		
	한일 342-3666	108 1230	1370 330	250 290	432	1976		
	구미건설 544-5700	105 1250	1350 270	300	351	1980		
	한강건설 548-6114	152 2000	2150 450	500				
충북	한솔 548-8945	79 440	500 240	270 115	263	1999		
	PARK 541-8886	195 2000	3200 110	1100 1400	449	2004		
	한일 342-3666	108 1230	1370 330	250 290	432	1976		
	구미건설 544-5700	105 1250	1350 270	300	351	1980		
	한강건설 548-6114	152 2000	2150 450	500				
충서	한솔 548-8945	79 440	500 240	270 115	263	1999		
	PARK 541-8886	195 2000	3200 110	1100 1400	449	2004		
	한일 342-3666	108 1230	1370 330	250 290	432	1976		
	구미건설 544-5700	105 1250	1350 270	300	351	1980		
	한강건설 548-6114	152 2000	2150 450	500				
충남	한솔 548-8945	79 440	500 240	270 115	263	1999		
	PARK 541-8886	195 2000	3200 110	1100 1400	449	2004		
	한일 342-3666	108 1230	1370 330	250 290	432	1976		
	구미건설 544-5700	105 1250	1350 270	300	351	1980		
	한강건설 548-6114	152 2000	2150 450	500				
충북	한솔 548-8945	79 440	500 240	270 115	263	1999		
	PARK 541-8886	195 2000	3200 110	1100 1400	449	2004		
	한일 342-3666	108 1230	1370 330	250 290	432	1976		
	구미건설 544-5700	105 1250	1350 270	300	351	1980		
	한강건설 548-6114	152 2000	2150 450	500				
충서	한솔 548-8945	79 440	500 240	270 115	263	1999		
	PARK 541-8886	195 2000	3200 110	1100 1400	449	2004		
	한일 342-3666	108 1230	1370 330	250 290	432	1976		
	구미건설 544-5700	105 1250	1350 270	300	351	1980		
	한강건설 548-6114	152 2000	2150 450	500				

지역	아파트(연락처)	면적	매매가 하한 상한	등록 하한상한	전세가 하한상한	등록 하한상한	가구 수	입주 년도
경기	구문현대 865-0102	115 360	380 180	180 180	591	1991		
	삼성제일 863-3700	72 310	335 18	180 190 110	1244	2004		
	신원 863-3700	76 340	375 18	200 210 120				
	신원 863-3700	1110 430	460 110	230 250 15	299	2007		
	신원 863-3700	89 330	350 140	145 145	1400	1986		
경기	신원 863-3700	109A 390	435 150	155				
	신원 863-3700	59A 190	210 80	90	726	1987		
	신원 863-3700	69 230	240 120	125				
	신원 863-3700	102 290	330 145	150	579	1987		
	신원 863-3700	46 135	150 70	75	488	1988		
경기	신원 863-3700	82B 280	330 180	180	1056	1999		
	신원 863-3700	163 650	720 270	300				
	신원 863-3700	82A 300	370 170	190 150 1242	2001			
	신원 863-3700	108 450	500 120	200 230				
	신원 863-3700	115 410	490 190	200 204	2001			
경기	신원 863-3700	148 320	650 240	270				
	신원 863-3700	105 420	430 190	230	1095	1999		
	신원 863-3700	198 720	800 280	330				
	신원 863-3700	82 330	360 190	190 110	655	2000		
	신원 863-3700	109 480	560 250	260 110				
경기	신원 863-3700	137 680	730 280	300	813	2000		
	신원 863-3700	167 750	850 310	330				
	신원 863-3700	107A 440	460 110	220 240 110	304	2006		
	신원 863-3700	79C 180	200 90	100 247	1996			
	신원 863-3700	112 310	330 130	140				
경기	신원 863-3700	81A 320	350 150	160 620	2003			
	신원 863-3700	109A 420	450 170	190 15				
	신원 863-3700	82 290	295 130	145	252	1996		
	신원 863-3700	109 280	310 145					
	신원 863-3700	82B 200	220 120	130 206	1996			
경기	신원 863-3700	142 360	380 150	160				
	신원 863-3700	102 305	315 140	150 1236	1997			
	신원 863-3700	138 370	410 115	170 180				
	신원 863-3700	115 230	260 110	120 130				
	신원 863-3700	159 310	340 140	140				
경기	신원 863-3700	69 240	275 60	80 339	1987			
	신원 863-3700	105A 350	400 150	185 378	2004			
	신원 863-3700	136 490	520 210	210 230				
	신원 863-3700	89 225	230 110	60 65	246	1985		
	신원 863-3700	82 290	285 15	75 5				
경기	신원 863-3700	112B 430	470 180	200 999	2009			
	신원 863-3700	112A 540	600 240	240				
	신원 863-3700	95 290	340 140	165 341	2002			
	신원 863-3700	49 130	150 70	80 13	840	1990		
	신원 863-3700	56N 150	180 85	90 15	554	2004		
경기	신원 863-3700	109 320	360 150	160 170				
	신원 863-3700	56 210	230 60	70 986	1982			
	신원 863-3700	79 220	240 75	80 222	1988			
	신원 863-3700	92 270	280 95	90 9				
	신원 863-3700	69 235	250 100	120 660	1994			
경기	신원 863-3700	65 165	180 85	90 840	1995			
	신원 863-3700	69 230	250 95	120				
	신원 863-3700	99N 350	420 180	200 278	2000			
	신원 863-3700	110 420	470 15	190 210 15	1601	2001		
	신원 863-3700	148 540	570 110	240 280				
경기	신원 863-3700	119C 330	430 115	180 200	259	1994		
	신원 863-3700	79 270	300 110	130 1298	1999			
	신원 863-3700	109 380	480 120	160 190				
	신원 863-3700	109A 470	530 190	240	468	2001		
	신원 863-3700	145 630	720 240	270				
경기	신원 863-3700	72 285	320 90	120 2634	1988			
	신원 863-3700	79 260	340 95	150				
	신원 863-3700	109A 345	385 140	150 465	1992			
	신원 863-3700	84 230	270 130	130 258	1996			
	신원 863-3700	111 310	330 180	140 140	225	2006		
경기	신원 863-3700	77 290	320 130	140 225	2006			
	신원 863-3700	108 370	420 160	170				
	신원 863-3700	93 350	380 180	180 742	1990			
	신원 863-3700	104 400	460 180	200				
	신원 863-3700	92B 250	300 110	140 150	424	1997		
경기	신원 863-3700	122 360	400 190	200 15				
	신원 863-3700	139 680	900 300	360 320	1993			
	신원 863-3700	93A-0019	110 440	500 210	260 976	1998		
	신원 863-3700	140 600	600 28					



## 이사 수요로 물량 부족...수도권 전지역 상승

### 전세 동향

전세시장은 이사 수요가 늘어난데 따라 매물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0.11%), 신도시(0.10%), 수도권 (0.16%)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과 신도시에서 각각 서대문구(-0.07%)와 일산(-0.21%)이 드물게 하락세를 보였다. 일산은 여전히 풍부한 인근지역의 입주물량으로 인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사지구는 8-9월에만 4683가구가 입주를 진행 중이다.

서울은 동대문구(0.23%), 송파구(0.23%), 중구(0.22%), 도봉구(0.20%), 광진구(0.19%), 성동구(0.18%) 등이 올랐다. 동대문구는 급주 이문동 일대가 강세를 보였다. 워낙 매매 대비 전세비중이 높은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재계약하

려는 세입자가 많아 매물수는 더욱 적다. 송파구는 지난 2008년 9월말에 입주를 했던 잠실연스가 입주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률이 높아 매물이 넉넉하지 못해 강세를 보였다. 84-109㎡이 500만원 이상 올랐다. 광진구는 주로 신흥부부 수요로 자양동일대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분당(0.21%), 중동(0.21%), 평촌(0.17%)은 오른 반면 일산은 0.21% 내렸다. 분당은 자녀 교육을 위해 죽전 등에서 유입되는 수요, 강남지역에서 유입되는 신흥부부 수요, 매매를 미루고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 등으로 인해 고부 올랐다. 일산은 입주물량이 풍부해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등 인근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찾는 수요가 유입되어 거래를 이루고 있다.

지역	아파트(연락처)	면적	매매가 하한 상한	등락	전세가 하한 상한	등락	가구 수	입주 년도
평촌	국채1 584-4477	221	1030 1250	1.5	400 450		386	1993
	초원1 386-3001	49	150 170	17	90 95		1743	1992
	초원2 386-3001	66	210 230	17	130 140			
	현대대운 381-8595	109	480 580	120	260 280		967	2002
호계	무림1 381-1070	198	950 1000	330	350 480		1992	
	무림2 381-1070	181	1000 1200	350	390 578		1994	
피고역	백화1 8018-2400	146B	1100 1200	400	430		348	2009
	백화2 8018-2400	127C	1000 1100	370	390		850	2009
상명	백화3 8018-2400	144C	1200 1300	450	470			
	사문1 8017-7000	128B	900 950	280	320		492	2009
운정	사문2 8017-7000	129F	900 950	280	300			
	관악1 8017-8800	149B	950 1100	240	330		256	2009
판교	관악2 8017-8800	126F	950 1000	280	330		605	2009
	관악3 8017-8800	143A1	1050 1250	290 350				
판교	관악4 8017-8888	148B3	1000 1100	300 350		402	2009	
	관악5 8017-8888	186B	1650 1750	500 600	195	202	2009	
한강	관악6 8017-8888	229A	2050 2150	500 550		486	2009	
	관악7 8017-8888	127A	380 390	130 140	110	447	2008	
한강	관악8 8017-8888	154A	470 500	140 150	110	447	2008	
	관악9 8017-8888	127A	380 390	130 140	110	447	2008	

지역	아파트(연락처)	면적	매매가 하한 상한	등락	전세가 하한 상한	등락	가구 수	입주 년도
수도권 (031)	고양 가파로 9254-114	107A	280 370	15	110 130	15	1210	2005
	고양 푸른마을 9089-6777	86	190 210	90	100		464	2008
관산	중곡1 9061-0033	77B	180 240	90	100		1192	2003
	대림1 9051-3174	176	600 750	110 130		329	2002	
신사	신사1 9061-8788	89	700 800	200 230		354	1992	
	신사2 9061-3333	107	310 330	130 140	539	2003		
일산	일산1 915-5500	109	450 500	170 180		579	2003	
	일산2 915-5500	142	400 330	160 170	15	519	2003	
중산	중산1 915-8800	94	200 220	110 120	428	1995		
	중산2 915-8800	107	240 300	100 120	520	2000		
탄현	탄현1 915-8161	111	240 250	100 120	520	2000		
	탄현2 915-8161	89	200 300	150 180	726	1995		
도당	도당1 930-0880	82	130 160	80 90		416	1995	
	도당2 930-0880	73	130 140	75 80	15	416	1995	
평촌	평촌1 903-0680	82	220 240	100 105	204	1996		
	평촌2 903-0680	105	280 320	115 130				
행신	행신1 919-9696	127B	430 480	155 180	200	15	730	2006
	행신2 919-9696	158A	500 550	155 190	200	120		
화정	화정1 919-9696	125	380 470	150 160	330	1994		
	화정2 919-9696	163	490 590	110 170	190			
신정	신정1 919-9696	76	170 190	110 105	377	1994		
	신정2 919-9696	109	270 290	120 135	140			
신정	신정3 919-9696	107	350 420	175 185	812	2005		
	신정4 919-9696	151	560 700	250 240	856	1995		
신정	신정5 919-9696	110A	280 300	150 160	856	1995		
	신정6 919-9696	109B	280 300	150 160	856	1995		
신정	신정7 919-9696	95	280 320	150 160	1080	1996		
	신정8 919-9696	105	320 370	165 180				
신정	신정9 919-9696	71	155 180	12 95	105 15	120	1995	
	신정10 919-9696	84	190 210	115 120 15				
신정	신정11 919-9696	52	550 630	140 95	110 13	1262	1983	
	신정12 919-9696	59	630 730	135 130	140			
신정	신정13 919-9696	89D	880 900	115 210	230	632	1984	
	신정14 919-9696	132	1270 1310	120 330 340				
신정	신정15 919-9696	154	360 400	170 200	909	1993		
	신정16 919-9696	79	260 300	150 160	900	2007		
신정	신정17 919-9696	109	380 420	170 180				
	신정18 919-9696	72	235 265	110 135 12	1800	1986		
신정	신정19 919-9696	109	360 380	15 160 170 113				
	신정20 919-9696	56	155 160	110 90 95	15	2392	1990	
신정	신정21 919-9696	76	230 250	17 120 130				
	신정22 919-9696	96	240 250	100 110	504	2003		
신정	신정23 919-9696	106	260 280	110 120				
	신정24 919-9696	105	200 230	90 95	832	2002		
신정	신정25 919-9696	108	230 250	15 85 95	434	2006		
	신정26 919-9696	132	280 280	110 100 105				
신정	신정27 919-9696	102	250 270	100 110	654	1999		
	신정28 919-9696	125	300 320	110 120				
신정	신정29 919-9696	79	180 190	80 90	296	2004		
	신정30 919-9696	100	270 280	90 100				
신정	신정31 919-9696	79	230 240	130 130 15	341	1994		
	신정32 919-9696	105	360 410	150 160				
신정	신정33 919-9696	79	220 240	120 130	307	1998		
	신정34 919-9696	105	280 300	110 140 15 13				
신정	신정35 919-9696	82A	303 250	120 130	1344	1996		
	신정36 919-9696	85	203 250	120 130				
신정	신정37 919-9696	59	170 190	85 100	1018	1996		
	신정38 919-9696	79	220 270	115 130				
신정	신정39 919-9696	109	300 400	160 170 13	586	2002		
	신정40 919-9696	160	500 600	170 210				
신정	신정41 919-9696	131B	500 570	220 250	402	2001		
	신정42 919-9696	149	600 700	250 280				
신정	신정43 919-9696	77	190 250	120 160	264	2002		
	신정44 919-9696	106B	330 380	150 180				
신정	신정45 919-9696	79	250 290	130 150	299	2006		
	신정46 919-9696	105	340 390	150 190				
신정	신정47 919-9696	119	360 400	110 140 150	294	2006		
	신정48 919-9696	115	370 410	15 140 150				
신정	신정49 919-9696	69	130 140	70 75	543	1995		
	신정50 919-9696	79A	140 130	17 80 85 17				
신정	신정51 919-9696	115	310 360	140 150	288	1999		
	신정52 919-9696	158	440 490	160 180				
신정	신정53 919-9696	112	240 270	100 120	324	2000		
	신정54 919-9696	161	380 420	90 120				
신정	신정55 919-9696	76	125 145	70 75	794	2001		
	신정56 919-9696	128	270 300	90 100				
신정	신정57 919-9696	122	260 285	13 110 130	260	1997		
	신정58 919-9696	165	360 400	15 120 140				
신정	신정59 919-9696	154	691 711	260 330	234	2010		
	신정60 919-9696	138	764 784	290 360				
신정	신정61 919-9696	191	510 600	190 220	2042	2000		
	신정62 919-9696	161	420 500	180 190	1144	2001		
신정	신정63 919-9696	79	130 150	110 60 70	320	1995		
	신정64 919-9696	109B	200 230	115 80 90				
신정	신정65 919-9696	80	160 160	60 65	711	2006		
	신정66 919-9696	109	205 210	18 75 13				
신정	신정67 919-9696	79	120 130	55 55 13	452	1998		
	신정68 919-9696	105	180 190	70 70 13				
신정	신정69 919-9696	80	150 155	18 60 65 11	451	2005		
	신정70 919-9696							

지역	아파트(연락처)	면적	매매가 하한 상한	등락	전세가 하한 상한	등락	가구 수	입주 년도
외부	덕산1 521-4700	157	550 670	190 220	1239	2007		
	세양1 521-0001	132	400 480	165 180	216	2007		
전진	쌍용 517-0002	105	270 350	140 150 110	528	2000		
	금강 514-1888	158	420 520	160 190 110				
전진	금강 514-1888	79	165 175	70 75	404	1999		
	금강 514-1888	109	190 220	115 80 85				
전진	금강 514-1888	113A	260 285	90 110 115	790	2010		
	금강 514-1888	110A	170 190	65 70 110	775	2006		
전진	금강 514-1888	110B	170 190	65 70 110				
	금강 514-1888	124	430 490	200 250				
전진	금강 514-1888	89	270 320					

# 황금연휴는 '3타 줄이기' 황금찬스

'3타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이번 황금연휴를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 짧게는 3일에서 많게는 1주일의 '천금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샐러리맨 골퍼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터. 사실 90타를 오가는 보기플레이어들은 1타를 줄이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골프를 알면 알수록 1타가 무섭다. 골프에 있어 80타대와 90타대는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스코어카드에 적어 넣는 숫자를 들여다보면 바로 나타난다. 마지막 홀에서 더블보기만 해도 89타가 되는데 어쩌면 일인지 트리플 보기로 90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골프다. 18홀에 핸디캡이 숨어 있다고 하지 않던가. 물론 1타를 낮추는 것은 한방에 해결할 수도 있다. 거리를 늘려 파온(par on. 그린인 인 레귤레이션)확률을 왕창 높이면 된다. 그러나 거리를 늘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 2-3일 만에 20야드 이상 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쇼트게임 전문 아카데미 찾아 '나만의 특기 샷' 기술 익히고 '파3 코스'서 연습 또 연습

가장 좋은 방법은 쇼트게임만 전문으로 가르쳐주는 골프아카데미를 찾는 것. 하루만 배워도 샷이 달라지고 어프로치에 자신감이 생긴다. 그린주변에서 핀에 붙이는 '칩샷'요령만 터득해도 골프가 쉬워진다. 물론 한 가지만 계속하다보면 실증을 내기 마련. 하지만 고수(高手)가 되려면 이런 시간을 극복해야 한다.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춘 골퍼라면 골프관련 서적을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한국에 온 '퍼팅달인' 톰 왓슨의 쇼트게임이나 데이브 펠츠의 쇼트게임 및 퍼팅 바이블 등 쇼트게임과 관련된 책을 구입해 응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론에 맞춰 실전을 터득하면 골프원리를 알 수 있어 골프가 쉬워진다.

파3골프코스를 찾아 수 천번의 어프로치 샷과 퍼팅 연습을 반드시 한다. 다가올 주말에는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한껏 웃을 수 있기 위해서. 안성천 기자 gollahn@



연휴를 맞아 한 가지 기술만 터득해도 스코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진은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GC 15번홀 전경. [사진=메타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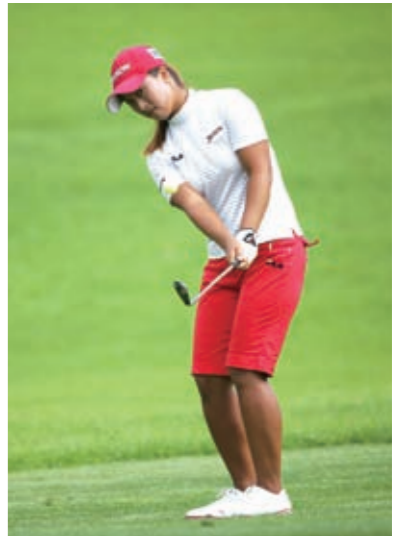
### 수도권 지역의 파3 골프코스

골프코스	전화번호	위치	골프코스	전화번호	위치
메이필드	(02)6090-5714	강서	운정골프랜드	(031)946-0799	파주
파라다이스	(031)702-0770	분당	클럽2200	(031)944-2200	파주
서창	(031)718-8833	광주	타워골프클럽	(031)922-3900	일산
화이트 그린랜드	(031)761-5555	광주	SKY72	1644-7222	인천공항
스카이골프	(031)767-4242	광주	검단골프랜드	(032) 567-0070	인천
퇴촌골프클럽	(031)768-1177	광주	제일	(031)416-1121	안산
88CC	(031)287-8811	용인·구성	NCC골프클럽	(032)886-5533	대부도
영진	(031)330-3500	용인	서평택	(031)681-0077	평택
아시아나	(031)330-1234	용인	남양골프랜드	(031)355-4400	화성
양지파인	(031)319-9400	용인	수원 화산	(031)236-6737	화성
뉴스프링빌	(031)630-7500	이천	리베라	(031)376-6711	화성
그린파크	(031)638-0478	이천	선힐	(031)585-7900	가평
남여주	(031)881-3300	여주	블루밸리	(031)585-6544	가평
이포	(031)886-8100	여주	노스폴	(031)-833-2232	연천
진골프	(031)963-2222	일산	비발디파크	1588-4888	홍천
123골프	(031)359-6187	원당	이글골프랜드	(031)543-9200	포천
아미가	(031)942-5001	파주	코리아파3	(031)883-0388	여주

### 홍희선의 원 포인트 레슨

## 칩샷, 볼은 오른발에 손은 왼발에

그린주변에서 톱샷으로 그림처럼 홀(hole)로 넣으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그러나 보기플레이어에게는 꿈같은 일. 그저 환상일 뿐이다. 쇼트게임을 잘하는 방법이냐 사하는 요령을 익히면 된다. 쇼트게임이 스코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프로선수들은 18홀 중 60~70% 정도 파온(par on)을 시킨다. 파온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린스 인 레귤레이션(Greens in regulation). 규정 타수만에 볼을 그린에 올리는 것이다.



김보경의 어프로치샷. [사진=KLPGA제공]

고수와 하수차이는 바로 여기서 온다. 90타를 오가는 골퍼는 18홀 중 파온을 시키는 것이 고작 1-2개에 그친다. 따라서 볼을 그린에 올리지 못했을 때 핀에 붙이는 어프로치 샷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핀과 30야드 이내의 어프로치는 먼저 골리는 것이 우선이다. 가장 좋은 클럽은 퍼터다. 그린주변의 벙커에서 턱만 얹어도 퍼터가 샌드웨이보다 유능한 클럽이다. 결국 골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칩샷이 먼저다. 러프가 길거나 그린 앞쪽에 장애물이 없다면 무조건 골린다. 피우는 거리와 시간을 최소화하고 '홀이 우선이다. 물론 핀 앞쪽에 헤저드나 벙커가 있다면 피치샷이나 톱샷을 해야하지만 가장 피한다. 톱샷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므로 엄청난 연습량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가끔씩 볼은 그린에 떨어뜨린 다. 러프에 떨어지면 그린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린주변에 떨어지면 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칩샷을 하는 경우 2-3가지 클럽 이내로 한정하라는 것. 특히 클럽에 따라 날아가는 '캐리'와 굴러가는 '롤'의 비율을 확실히 파악해 줘야 한다. 샌드웨이의 경우 평지에서 캐리가 2, 롤이 1이라면 어프로치웨지는 1대 1, 피칭웨지는 1대2로 하는 식이다. 칩샷의 요령은 볼은 오른발 쪽에, 손은 왼발 쪽에, 그리고 스탠스는 오픈한 다.

### 18홀 파3·쇼트게임 접목 골프코스 '코리아파3'

## 오르막·홀·벙커·헤저드 갖춰 재미 더해

여주 신라CC 인근에 위치

경기도 여주 신라CC 인근에 자리잡은 코리아나 파3(대표이사 정춘섭, www.kp3golf.co.kr)는 18홀 파3와 쇼트게임 전문아카데미를 접목한 골프코스다. 홀은 50-100m까지 다양한 거리를 갖고 있다. 특히 오르막 홀과 벙커, 돌로 헤저드를 만들어 재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물 없는 대형 호수 형태의 웅덩이와 파 놓아 약간 까다로움과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홀외에 칩샷 레인지와 퍼팅그린, 벙커연습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라운드는 1명에서 6명까지 가능하다. 하루 중일 도는데 평일은 5만원, 주말 및 휴일은 6만원이다. 18홀만 돌면 주중 3만원, 주말 3만5천원이다. 코리아나파3골프코스의 장점은 플레이를 하다가 쉬고, 쉬다가 다시 그 홀부터 플레이

를 해도 된다. 팀이 멀리지만 않으면 한 홀에서 여러 번 어프로치를 시도해도 관계없다. 플레이를 하다가 볼이 잘 맞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춘섭 프로에게 지도를 받으면 된다. 물론 하루 종일 골프지도를 받는 것은 별도의 아카데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정도 쇼트게임 지도를 받으면 거의 쇼트게임의 달인이 된다. 정춘섭 박사는 미국에서 골프지도를 받고 온 쇼트게임 지도 전문가. 칩샷올카바로 유명하다. 라커룸이 있지만 골퍼웨어는 입고 가는 것이 편하다. 클럽은 퍼터와 샌드웨이, 어프로치웨지, 피칭웨지, 9번 아이언 정도면 된다. 한편 입장객에게는 컵라면과 커피가 제공된다. 추석당일은 휴장한다. 031-884-0488. 안성천 기자 gollahn@

### 반도골프 'BT-7 플세트' 출시

반도골프(대표이사 강성창)에서 추석맞이 BT-7 플세트(사진)를 한정 판매한다. 2011년형 초·중급자형 모델로 남녀 각각 100세트다. 플세트에 79만9천원. 일본의 골프클럽 장인(匠人) 사카모토와 반도골프 강성창 사장이 클럽을 직접 디자인했다. 초·중급자용으로 제작한 플세트 구성은 남자는 드라이버, 3.5번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우드, 5-9번 아이언, 피칭과 샌드웨이, 퍼터 등 12개다. 여자클럽은 유틸리티 대신 7번 우드로 구성돼 있다. 샤프트는 그라파이트. 단, 피칭과 샌드웨이는 스틸샤프트이다. (02)563-9655



## 그린피 할인 '깜짝 이벤트'로 손님몰이

### 수도권 정규·퍼블릭 골프장 21-23일 특별패키지 마련

추석연휴(21-23일)를 맞아 수도권 지역의 정규 및 퍼블릭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특별 할인하는 '깜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전 같은 추석연휴는 휴일이어서 주말 그린피를 적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골퍼들은 9월 대대적인 그린피 할인행사를 하면서 추석전후도 대폭 할인해 골퍼들을 유혹(?)하고 있다. 따라서 추석연휴에 골퍼들을 잘 끌러가면 값싸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다만, 출발 전에 반드시 개방여부를 확인 할 것. 27홀의 퍼블릭명문코스 포천힐스CC는 오는 21일과 23일에 한해 전시간대 그린피를 3만원 할인한 14만원이다.

양지파인GC는 22일 추석 당일에만 이용할 수 있는 '당일패키지'와 추석 연휴 3일 동안에 파인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며 골프를 즐기는 '숙박패키지'를 선보였다. 당일패키지는 골프장 그린피와 식사 1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이 예약할 경우 4인 기준 60만6000원, 회원이 추천하여 비회원 4인인 경우 75만6,000원이다. 안성베네스트GC 퍼블릭골프장은 21일과 23일 전시간대에 걸쳐 주중 요금을 적용, 16만5천원의 그린피를 12만원만 내면 된다. 또 패키지상품을 이용할 경우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A코스는 퍼블릭 18홀 그린피에 2만5천원만 추가하면 코

스요리(샐러드, 튀김안주, 전골, 식사, 후식)까지 해결된다. B코스는 퍼블릭 9홀과 정규 홀 9홀을 돌면 그린피에 3만5천이 추가된다. C코스는 B코스에 4만5천을 내면 코스요리가 더해진다. 엘리시안 강촌 퍼블릭코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그린피를 30% 할인한 2만8천원이다. 또 추석연휴 패키지는 주중 9홀은 40%, 18홀 50%의 그린피를 할인해 준다. 객실 요금은 주중 6만5천원, 주말 7만5천원이며 사우나, 무료, 골프연습장은 30% 할인해 준다. 단, 체임은 그린피 우대혜택이 적용되는데 3팀은 1인, 5팀은 2인이 그린피 무료다. 안성천 기자 gollahn@

마! 6.25

## 6.25전쟁 60주년 특별기획전 Inside the DMZ 사진영상전

■ 전시기간 2010. 5. 4 ~ 11. 30

■ 전시장소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 전시구성

<b>ZONE 1 : 6.25 전쟁</b> - 누가 일으킨 전쟁인가? - 6.25 전쟁 경과 - UN 참전국 - 파산성이 디오라마, 종군기자	<b>ZONE 2 : 오늘의 한국</b> - 60년대 생활상 인형전시 - 다이내믹 코리아 - T-50고등훈련기, 홍삼어 - K2전차, K21장갑차 등	<b>ZONE 3 : 오늘의 북한</b> - 오늘의 북한 - 정치/방송/우주 - 발강방 체합 - 통일을 향한 한걸음	<b>ZONE 4 : Inside the DMZ</b> - 사진/영상 갤러리 - VR 갤러리 - DMZ 3D사진 감상 - HP 포토 카페
--	---	--	--

■ 관람요금 개인: 어른 5,000원 / 중고생 3,000원 / 초등학생: 2,000원  
 \*무료: 65세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군·경·소방관, 유지원생 등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입장마감: 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문의 02-709-3139

6.25전쟁과 관련한 자료나 물품을 소장하고 계신 개인과 단체는 아래의 수집처로 연락 바랍니다. 기증받은 자료는 전쟁기념관 전시실에서 역사의 기록으로 후대에 영원히 전승될 것입니다.

■ 수집대상 6.25전쟁 관련 개인 및 단체 소장유물 6.25전쟁 당시의 문서, 장비, 상감, 훈장, 편지, 일기, 책, 생활용품 등과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 수집기간 2010년 연중

■ 수집처 전쟁기념관 소장물관리팀 02-709-3056  
 \* 자료에 따라 소정의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최: 전쟁기념관·조선일보사 후원: 국방과학연구소 협찬: KAI Canon Rotem Daewoo M H

www.DSeshop.co.kr

동성제약주식회사

# 트러블 피부를 위한 뿌리는 에센스!

## 꿀벌의 벌침액(봉독) 함유 화장품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트러블 피부를 위해 스킨과 에센스를 하나로 -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이제 간편하게 뿌려만 주세요~

### 차원이 다른 피부 트러블 케어 -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 농촌진흥청과 동성제약 중앙연구소의 공동개발로 탄생한 꿀벌의 벌침액이 함유되어 민감한 트러블 피부에 좋습니다.
- 빠른 피부 침투로 피부의 진정 효과가 우수한 워터 에센스입니다.
- 파우치에 에센스 원액만 담아 미세한 안개처럼 분사되는 특수용기입니다.
- 벌침액 성분이 손상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 흘러내림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메이크업 한 후에도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흘러내림 NO! 뭉침 NO! 간편하고 위생적인 워터 에센스

#### 미세한 안개분사 방식 미스트 타입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일반 워터 스프레이

#### 위생적인 파우치 질소 충전 용기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일반 워터 스프레이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라면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울긋불긋 민감한 피부! • 피부관리가 필요한 등과 가슴의 피부! **NAVER 동성이삼** 네이버 검색창에 동성이삼을 검색해 보세요.

■ 소비자 상담번호 : 080-777-0055



# 스크린 세상엔 웃음꽃 활짝 피고

이번 추석 개봉영화들은 관객의 배꼽을 정조준한다. 폭염과 장마로 지친 관객들에게 추석연휴에 가볍게 웃고 즐기면서 삶의 여유를 찾았으면 하는 배려에서 일까. 슈퍼배드, 퀴즈왕, 해결사, 시라노:연애조작단 등 코믹극들이 올 추석 극장가를 점령했다. 특히 이번 영화들은 단순 코믹영화에 그치지 않고 이색적 소재, 풍자 내용 등을 담아 재미를 한 층 더했다. '좌충우돌 영동식' 장진식 코미디(퀴즈왕)서

부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세태를 풍자한 <슈퍼배드>, 흥행배우 설경구와 이정진의 코믹액션극 <해결사>, 상큼발랄 로맨틱 코미디 <시라노:연애조작단>에 이르기까지 코믹 소재가 비교적 이채롭다. 웃음폭탄을 만끽하고 싶다면 추석연휴 극장가로 달려가 보자. 한껏 웃어 제끼며 무더위 끝자락을 미련없이 날려버리고 귀뚜라미 울어대는 가을 정취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김현정 기자 khj@



'홍행수표' 설경구가 스크린으로 복귀하는 코믹 액션극 <해결사>의 한 장면.

## 설경구식 액션... 유쾌한 조연도

### 해결사

<해결사>로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설경구식 코믹 액션도 볼만하다. 특히 선한 눈빛의 배우 이정진이 악역으로 연기변신을 꾀해 눈길을 끈다.

<해결사>는 해결사 태식(설경구 분)의 복수극을 담아내고 있다. 전직 형사로 일하다가 흥신소를 운영하는 강태식(설경구)은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모텔을 급습한 태식은 여자의 시체를 발견한다.

범인으로 몰려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 강태식은 살인 누명을 벗고 싶으면 집권여당에 불리한 증언을 준비 중인 변호사 윤대희(이정진)를 납치하라는 전화를 받는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태식은 자신을 궁지로 몰아가는 인물이 경찰 시절의 동료이자 정권권의 뒷청소를 담당하는 장필호(이정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계다가 장필호의 배후에는 정치가 오경신(문정희)이 있다. 윤대희를 납치한 태식은 누명을 벗기 위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정신병동에서 탈출한 사이코패스 킬러와 태식을 뒤쫓는 경찰 콤피 샹골(오달수), 중구(송세벽)까지 얽혀든다. 액션영화로서 결정적인 단점을 메워주는 건 유쾌한 조연들이다. 설경구와 이정진이 예상할 법한 연기로

선과 악의 선을 긋는다면 강력한 콤비로 등장하는 오달수와 송세벽, 납치 타깃을 연기하는 이정진은 변칙적인 캐릭터와 연기로 다소 단선적인 영화에 양념을 친다.

설경구는 이 영화에서 생애 처음으로 와이어 액션을 선보이기도 하고 긴박감 넘치는 카메이상을 선보이며 액션의 묘미를 살려냈다.

9월 개봉한 <해결사>는 개봉 5일 만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설경구 흥행수표가 여전히 견제함을 입증했다. 누적 관객수는 69만 7066명으로 개봉 5일 만에 약 70만에 이르는 관객을 동원했다.

## 코미디로 시선잡고 로맨스로 감정잡고

### 시라노: 연애조작단

로맨틱 코미디의 계보를 <시라노:연애조작단>이 잇고 있어 추석 연휴 극장가들의 연인들, 혹은 외로운 솔로들의 구미를 당긴다.

<YMCA 야구단>, <광식이 동생 광태>, <스카우트> 등의 영화를 만들어온 김현석 감독은 올 추석 <시라노:연애조작단>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찾아온다. 이 영화는 연애에 서툰 사람들을 위해 연애대행을 해준다는 시라노 에이전시라는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연애 조작단에 연애를 의뢰한다는 설정 아래 남녀 네 명의 감정의 교차점에 포인트를 뒀다.

영화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배우들이 열연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상큼발랄한 매력으로 한창 주가가

치솟고 있는 이민정과 풋풋한 사랑스러움으로 잔잔히 각인된 배우 박신혜의 매력대결도 볼만하다.

이에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엄정화의 동생에서 배우 엄태웅으로 거듭난 엄태웅의 훌륭한 남자 연기도 기대해볼 만하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지적인 스타일로 못 여성들을 설레게 했던 최다니엘은 결혼기에는 멀쩡하지만 단점을 극복 못하는 측근한 인물로 나온다.

이민정은 두 남자 사이에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박신혜도 멀리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한다. 이처럼 매력적인 배우 4명이 뭉쳤으니 이야기의 감성선이 다채로워 자석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이들의 복잡한 감성선을 즐겁게 때론 설렘을 느끼면서 넘나드는 재미도 쏠쏠하다. 특히 이들은 안정된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안정적으로 리드한다.

따분한 감성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김현석 감독은 톡톡 튀는 이들의 매력을 한껏 활용해 코미디로 시선을 사로잡고 로맨스로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다.



## 추억도 이제는 녹색입니다

지난 여름 자전거로 떠난 여행, 가차로 만난 향기가득 녹차밭 가족과 함께 떠난 걷기여행 등 추억 하나 하나로 녹색의 아름다움을 채워줍니다.

녹색관광으로 행복한 여행길, 녹색성장의 자름길을 만들어주세요!

### 녹색관광이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 관광입니다.



<퀴즈왕>에서 콤비로 활약하는 한재석(사진 왼쪽)과 김수로.

## 일확천금 노리는 15인의 좌충우돌

### 퀴즈왕

장진 감독의 영화 <퀴즈왕>은 빼놓을 수 없는 기대작이다. <웰컴투동막골>, <거북한 계보> 등에서 이미 장진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준 감독이 <퀴즈왕>으로 배품사냥에 나섰다.

지난 16일 개봉한 '퀴즈왕'은 방송 이래 단 한 번도 우승자가 나오지 않은 133억원짜리 퀴즈쇼의 마지막 정답만 알게 된 15인의 좌충우돌 퀴즈 대결을 그렸다.

김수로와 한재석은 해결사, 류승룡은 노름꾼, 류덕환은 폭주족, 심은경은 우울증 여고생으로 활약했다. 이야기는 한밤중 강변북로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한 여자가 죽는 데서 시작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사람들은 죽은 그녀의 소지품에서 유명 퀴즈쇼의 마지막 문제 답안을 우연히 보게 된다.

방송 이래 한 번도 우승자가 나오지 않은 퀴즈쇼로 누적된 상금은 133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133억원에 달하는 일확천금을 획득하기 위해 퀴즈대결에 참여한다.

주인공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코믹연기도 감동여향을 만든다. '우울증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회장 역할을 맡은 김병욱은 특유의 표정연기로 관객을 흡입한다.

천재 대학생 이자용과 그를 의지하는 아버지 송영창도 시종일관 진지한 캐릭터로 미묘한 웃음을 자아낸다. 코믹한 얼굴이지만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가진 임원희 역시 그만의 캐릭터로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다소 황당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좌충우돌의 고군분투는 장진식 코미디를 기다렸던 팬들에게 매력적인 상상으로 다가오고 다채로운 흥미로움을 선사한다.

이 영화에는 정재영, 신하균, 임원희 등 장진의 스타군단이 까매오 출연한다. 예상치 못한 장진 감독의 등장도 볼거리다.

## 천하제일 '악당' 이 되기 위한 고군분투

### 슈퍼배드

소녀시대 태연과 서연이 성우로 참여해 화제를 모은 외화 <슈퍼배드>도 발칙한 상상과 상식 뒤집기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우선 악당이 주인공이란 점이 이색적이다. 정의의 위해 싸우는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배드가 주인공인 탓에 관객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할지도 모른다.

주인공 그루는 단순 악당이기를 거부한다. 악당에도 급수가 있는지 '슈퍼급 악당'을 꿈꾼다. 그루는 누군가 피라미드를 통째로 훔쳐갔다는 긴급뉴스를 듣고 흥분한다. 인류를 구할 슈퍼 히어로로서의 책임감을 절감해서가 아니라 천하제일의 악당 자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다.

피라미드를 통째로 훔쳐갔다는 발상부터 발칙하다. 애초 가능하지도 않은 피라미드를 통째로 훔쳐가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건을 나쁜일의 최고 경지로 설정해놓은 것. 피라미드를 훔쳐갔던 것은 벡터라고 알려지자 그루는 벡터보다 더 악당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최악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루와 벡터의 행보가 흥미롭다. 그루는 집 지하에 첨단 과학시설을 구비해놓고 미니언이라는 정체불명의 귀여운 생명체를 거느린 채 악

의 실현에 골몰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작은 녹색 생명체 '미니언'들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다. 벡터도 막상막하다.

이 영화엔 '누가 누가 더 나쁜가' 경쟁하는 최악과 차악이 등장할 뿐이다.

최고의 경지를 차지하기 위해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 뺏고 빼기는 현 세태를 아이의 시선으로 포착했다. 나쁜 것이 옳지 못한 것임을 자각하지 못했기에 옳은 것을 쫓기보다 최상의 것을 찾아가는 세태를 풍자한 것.

그렇게 영웅은커녕 착해 보이는 어른 한 명 없는데 기이하게 인류는 위기를 벗어나고,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벡터와 경쟁하던 그루가 고아원 삼남매에게서 부성애를 느끼면서 영화는 결국 나쁜 것이 아닌 선한 것이 옳은 것임을 무언 중 말해준다.





# 안방극장에는 가족사랑 두~둥실

공중파 방송 3사가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가족애를 다룬 따끈따끈한 추석 특집극을 선보인다. 각사별 특집극은 며느리,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 주부에게 각각 초점을 맞춰 그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KBS는 외국인 며느리의 고초와 외로움을 코믹한 리얼 시트콤 '글로벌 가족李家네 며느리들'에 담아낸다. MBC는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한 평범한 주부가 자아를 돌아보는 내용을 담은 '주부 김광자의 제3활동'을, SBS는 '당신의 천국'을 통해 자식 뒷바라지에 세월을 흘려보낸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간의 사랑과 관심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부모, 아들, 딸 등 우리네 삶의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삶을 파고 들어 따뜻한 추석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

## 외국며느리 고초 그린 시트콤

KBS '글로벌 가족李家네 며느리들'

KBS에서 추석특집으로 글로벌 가족李家네 며느리들이라는 '리얼가상 바라이터티 시트콤'이 안방극장을 찾아가는다. 아버지 이계인을 비롯 고모 송은이, 그리고 첫째 아들 지상렬, 둘째 아들 한민관, 셋째 아들 최필립, 막내 아들 동호(유기스)가 모두 추석을 맞아 외국인 예비 며느리를 데려와 아버님께 결혼허락을 받는 설정으로 꾸며졌다.

외국인 며느리는 KBS '미녀들의 수다'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첫째 예비며느리에 따루살미비(핀란드), 둘째 예비며느리에 사유리, 셋째 예비 며느리에 브로니(남아프), 그리고 막내 예비며느리에 사리(몽골)가李家네 집 내형제의 커플이 돼 아버지 이계인으로부터 결혼허락을 받고자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서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것으로 진행된다.

'글로벌가족李家네 며느리들'은 기존의 리

얼바라이터티에 시트콤 형식을 합한 새로운 포맷을 도입해 진행이 됐다. 이 추석 특집극은 22일 저녁 6시에 시청자를 찾아가는다.

## 평범한 주부 숨겨진 자아찾기

MBC '주부 김광자의 제3활동'

MBC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윤철 PD가 연출한 단막극 '주부 김광자의 제3활동'이 주부들의 숨겨진 자아를 자극한다.

'주부 김광자의 제3활동'은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한 평범한 주부 김광자가 꽃미남 기수의 누나편으로 제 3의 인생을 살며 자아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았다.

주부 김광자로 분한 배우 양미경은 가족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생일에 짧은 래퍼의 노래를 우연히 들은 뒤 갑자기 먹을 돈을 아껴 래퍼의 시디를 사고 팬 카페를 구경하고 싶어 컴퓨터 화면에 등록하는 등 주부의 일탈을 완벽하게 소화해낸다. 남편으로는 김갑수가 출연했다.



예비 다국적 며느리들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한 과정을 그린 '글로벌 가족李家네 며느리들'.

아줌마 김광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볼스타 래퍼 역할로는 엠블랙의 재간동이 이준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 자식에 평생 헌신한 부모사랑

SBS '당신의 천국'

이 특집극은 22일 오전 10시35분 방송된다. SBS가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드라마 '당신

의 천국'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 그리고 이런 부모에게 늘 바라기만 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가족 드라마다. 극중 아버지 기수 역에는 최불암이, 재혼하는 어머니 역에는 정영숙이 출연하며 둘째 아들 김진근과 함께 첫째 딸 영숙 역에는 정애리, 셋째 아들 영민 역에는 넥스트의 지현수가 낙점됐다. SBS 추석특집극 '당신의 천국'은 오는 23일 오전 9시20분부터 12시 까지 1, 2부 연속 방송된다. 김현정 기자 khj@

# 드라마... 예능... 영화... 케이블TV도 특집 풍성

올 추석연휴엔 지루할 틈이 없다. 긴 연휴만큼이나 각종 방송사에서 볼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다.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도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을 준비해 안방극장을 화려하게 꾸밀 준비를 끝냈다.

◇ **젊은이들 시선 사로잡는 예능**  
tvn은 이번 방송을 그동안의 시청률에 근거해 편성했다. 20일에는 젊은이들의 솔직한 감성을 알아보는 '더브스 위치'가, 21일은 '화성인 바이러스'의 인기 에피소드가 오후 4시부터 6시간 연속 방송되며 22일 오후 6-12시 '화성인 vs 화성인' 스페셜이 방송된다. 24일 오후 1-11시에는 '막돼먹은 영애씨' 10편이 연속 방송된다. tvn은 시간대별로 젊은이들과 중·장년층, 어린이와 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있다.

22일 낮 12시 30분부터는 '도전! 슈퍼모델' 전 시즌의 베스트 에피소드 6편이 잇따라 방송된다.

◇ **흥행 영화로 안방극장 '활짝'**  
OCN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춘 영화를 편성했다. 20일 밤 12시 감우성 주연의 '무법자'를 시작으로 21일 밤 10시 안젤라나 졸리의 '원티드', 22일 밤 10시 '미이라3 : 황제의 무덤'을 연속 방영한다.

23일 밤 10시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 24일 밤 10시 '터미네이터4'로 안방에 극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한편 채널CGV는 국내 흥행영화로 승부를 걸었다. 22일과 23일 오후 1시 '7급 공무원', '놈놈놈' 등 화제의 액션 영화를 잇따라 선보이고 25일 오전 2시부터는 인기 액션물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공공의 적', '인디애나 존스' 전편을 연속 방송한다.

◇ **해의 시리즈물로 '정면승부'**  
드라마는 해의 드라마 시리즈가 방송된다. 온가족이 모이는 만큼 추석명절의 단골메뉴인 흥공 액션 영화와 범죄수사물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OCN에서는 '방세옥'과 '영웅이' 20일 오전 9시와 오후 8시 각각 방송된다. '홍변구'는 26일 오전 8시, '러시아워3'는 같은 날 오후 8시 방영된다. 중화TV도 '명절에는 역시 성룡' 특집을 마련해 21-23일 밤 12시 성룡 주연의 '취권', '폴리스 스토리4', '러시아워'를 잇따라 방송한다.

CGV는 20-26일 오전 2시 '스파르타쿠스'를, 20-24일 오전 4시부터 'CSI 라스베가스', 'CSI 마이애미', 'CSI 뉴욕', '프린지'의 베스트 에피소드 5편을 차례로 방송하며 범죄수사물 'NCIS' 시즌7 전편을 20-21일 낮 1시부터 12편씩 나눠 방송한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 아이와 함께 전통문화 즐기세요

## 청계광장·서울동물원 등 국악공연·민속놀이 체험

추석연휴를 길게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연휴 문화에 관심이 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추석연휴에 다양한 예술공연과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가족단위 외출과 관람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전통장악곡, 퓨전국악, 음악극 등 무료공연부터 송편빚기, 한가위 소원빌기, 탁본채취, 강강술래 등 갖가지 전통체험까지 우리 전통의 멋과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한가위 연휴를 느껴보자.

### ◇ 한가위 문화마당, 가족단위 전통놀이 즐겨요

추석당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는 '2010 한가위 문화마당'이 열린다. 서울광장에서는 전통제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식퍼포먼스와 육자백이, 소고춤, 부채춤, 판소리 등 국악공연이 이어지며, 저녁에는 광장 메인무대에서 길놀이 판국과 가수 안치환, 비보이 퍼포먼스 등이 국악라디오 공개방송과 함께 진행된다. 공연의 마지막은 강강술래와 함께 소망을 단 보름달피우기 행사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청계광장 일대에서는 율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칠교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진행되며 소정의 경품도 마련돼 있다.

같은 날 서울역사박물관 광장과 경희궁 일대에서 '한가위 전통문화행사-정조, 태평성대를 꿈꾸다' 행사가 열려 정조즉위식 패션쇼, 탁본채취, 한가위 소원빌기 등이 소개된다.

### ◇ 서울동물원, 아이들과 전통놀이 즐겨요

서울동물원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추석맞이 전통문화행사'를 준비했다. 오는 21-23일 연휴기간 동물원 테마가든에서는 투호, 대령뿔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물계, 홍학쇼, 사자, 코끼리 등 동물먹이 주기 및 설명회를 곁들인 '동물나라 추석맞이 동물체험'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 ◇ 청소년들도 전통놀이 즐겨요

이 밖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21-23일 전통국악과 비보이 공연 등을 열고, 서울남산국악당 야외무대에서도 22-23일 전통무용과 사물놀이 공연을, 북서울 꿈의 숲에서는 23일 '추석맞이 드림 콘서트' 등 행사를 벌인다. 한편 운현궁에서는 궁중행사가 펼쳐진다. 18일 궁중의상패션쇼, 19일 흥선대원군재현 및 전통민요공연, 25일 고종·명성황후가례재현 등 이벤트가 줄줄이 열린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 부모님 모시고 '孝 콘서트' 오세요

## 이미자·장윤정등 풍성한 무대

올 추석 연휴는 5060세대를 공략한 '한가위' 효 콘서트 향연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이번 추석 연휴는 21-23일로 3일이지만 연휴 전후를 포함한 일주일의 연휴기간으로 삼는 직장인 많다. 이번 연휴를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함께 콘서트 열기와 퍼포먼스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도 현명한 연휴나가가 아닐까.

'트로트의 여왕' 이미자(사진)가 추석을 맞아 성남 일산 안산 공연 등 경기 지역 4개 도시를 돌며 '효(孝)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동백아가씨', '엄마를 선생님', '기러기 아빠' 등 20여 곡의 히트곡과 '내 삶의 이유 있음은' 등 지난해 발표한 50주년 기념 신곡도 부른다.

이미자는 22일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를 시작으로 26일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무대를 선보인다.

전통복합문화공간 삼정각이 22-23일 양일간 프리미엄 디너콘서트 '추석자미(秋夕滋味)'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삼정각의 고급 코스인 한정식과 무료 전통문화체험, 수준 높



은 국악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추석자미'의 연주 프로그램은 삼정각의 상설공연 및 특별공연을 전담하고 있는 삼정각 퓨전 국악 앙상블 '정아랑'의 연주를 비롯해 25현 독주와 판소리, 무용, 합창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임의 효 콘서트가 2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영임의 콘서트는 국악과 드라마, 다양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국악 뮤지컬 쇼다. 이번 공연서 김영임은 35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부모님 은중경', '나나나', '가야지' 등과 '강원도 아리랑', '한 오백년', '정선아리랑' 등 친숙한 민요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팬을 거느리고 있는 장윤정이 25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 장윤정은 '올래'를 비롯해 '어머나', '꽃', '이따따오야'와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편곡한 탠스-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들려 줄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

뉴욕을 강타한 브로드웨이 최신 흥행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

넥타이를 풀어라! ★ 미니스커트를 올려라!  
거침없이 놀아보자!

MUSICAL

ROCK THE AGES

2010. 9. 15 ~ 10. 30 우리금융아트홀

프로듀서 김선미 | 연출 왕윤범 | 음악감독 이성준 | 인무 서병구  
출연 | 신성우, 정찬우, 안재욱, 김진수, 남윤정, 문성혁, 김재민, 박민정, 채유빈, 최민정, 박주희, 홍승아, 문해민, 채이, 다니, 신대이, 문우, 서지훈, 박  
제작 | 부활(김대현, 이재민, 서재혁) | 이수영, 김명석, 임희민(VINQ, DEVIN, 최구현(NEN))  
www.mmusical.co.kr | www.rockofages.co.kr



화이팅! 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 LG그룹편 |

# 한국 전자산업의 호시

연암 구인회 <제 12화 서울에 뿌리 내리다> 글·만화 유영수

“남이 미처 안 하는 것을 선택하라.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부터 착수하라. 일단 착수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라. 성공해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에 도전하라.”



www.happywoorisa.com

## 게임을 지배하라

KNOW YOUR COURSE...  
KNOW YOUR DISTANCE...  
KNOW YOUR SCORE...  
KNOW YOUR GAME

# GolfBuddy

The True GPS Range Finder

20,000 코스 저장능력

골프부디 투어 보상판매

기존 모델 보상판매 실시  
타사 GPS 골프거리측정기 포함

세계가 인정한 골프부디  
“천만불 수출의 탑”수상

골프부디 프로    골프부디 투어    골프부디 티케이스

☎구입문의 1588-4014

**GolfBuddy TOUR**    골프부디 투어

- 반투과방식 컬러LCD채택
- 20,000개 코스 데이터
- 데이터 사용료 FREE
- 코스, 홀 자동인식
- 비거리 측정, 코스 측량기능
- 핀 포지션 설정기능
- 핀까지 남은거리 실시간 제공
- 병커,해저드 등 장애물까지 거리 제공
- 스코어 입력/편집 기능
- 위성 12CH/위성시계
- Multi-Language
- 충전 및 건전지 검용

선물받으시는 분 또는 선물하시는 분의 회사로고 및 사진, 연락처 등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 **李 대통령 만난 슈워제네거 “KTX 우수성 체험”**

# “美 고속철 사업 한국기업 참여 원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접견하고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캘리포니아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우리나라는 프랑스에서 고속철을 도입했으나 단기간에 자체 기술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캘리포니아가 강점을 가진 생명공학 및 IT 기술, 엔터테인먼트,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한국 고속철의 우수성을 체험했고, 한국 기업의 캘리포니아 고속철사업 참여 관심을 환영하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 FTA는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과 캘리포니아간 경제협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앞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하는 KTX를 시승하고 우리나라 고속철도 기술개발과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또 2013년 동계 스페셜올림픽을



**KTX 시승마친 ‘터미네이터’**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5일 천안역에서 KTX시승을 마친 후 정몽구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일영 국토교통정책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평장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국제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스페셜올림픽과 같이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뜻 깊은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페셜올림픽은 8세 이상 지적 장애인의 체력 향상과 지역 사회 화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4년마다 하계, 동계 올림픽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 내년 ‘CES2011’서 기조연설



윤부근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사진)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멀티미디어 가전(CE) 전시회인 ‘CES 2011’에서 기조연설(keynote speech)자로 선정됐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매년 미국가전협회(CEA)가 주최하고 있는 세계 최대 멀티미디어 가전(CE) 전시회로, 2011년 행사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4일간 열릴 예정이다.

윤 부근 사장의 기조연설은 전시회 개막일인 내년 1월 6일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부터 라스베이거스 힐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사장은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IFA2009’에서 개막 기조연설을 한 바 있으며, 이번 CES 2011에서의 기조연설은 지난 2002년에 이어 삼성전자 사장으로서 두 번째로 기록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유럽과 북미를 대표하는 양대 가전 전시회에서 모두 기조연설에 초대됨으로써 한층 높아진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사장은 현재 삼성전자 영상디스

플레이사업부 사장 겸 최고 디자인 책임자(Chief Design Officer)로, 삼성전자의 TV·모니터·블루레이 플레이어·홈시어터 등 소비자 디지털 제품을 총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TV·모니터·블루레이 플레이어·홈시어터 부문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TV 부문은 올해 5년 연속 1위를 기대하고 있다.

윤 사장은 지난 1월 CES 2010에서 세계 최초로 TV용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오픈을 발표하는 등 스마트 TV 분야에서 또 다른 혁신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TV 시대를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다.

박철근 기자 ckpark@

## 삼성생명 ‘한가위 나눔 봉사활동’ 펼쳐

### 서대문 노인복지관 방문 송편 빚으며 ‘훈훈한 정’

삼성생명은 지난 14일 이수창 사장과 본사 임직원들이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서대문구 천연동 소재)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창 사장은 자매결연 마을인 경기도 여주 해바라기 마을에서 구

매한 쌀 20포(20kg)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송편을 빚으며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 봉사활동은 삼성생명이 전사적으로 진행중인 ‘한가위 함께 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삼성생명이 9월초부터 추석전까지 진행중인 ‘한가위 함께 나눔 봉사활동’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과 연이은 태

풍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마을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삼성생명 각 부서는 이번 ‘함께 나눔 봉사활동’기간 중 자매 농어촌 마을을 방문해 추수, 환경미화 등을 돕고 마을 특산품을 단체 구매함으로써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현재 삼성생명 각 부서는 총 115개 농어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정해리 기자 healee81@



**LG전자 ‘전사 협력회사 품질 결의식’** 지난 14일 LG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전사 협력회사 품질 결의식’에서 남용 LG 전자 부회장(앞줄 가운데)과 5개 사업본부장, 협력회사 대표 등이 세계 최고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 이건희 회장 와세다대서 名博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모교인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 1965년 와세다대 상학부를 졸업한 이 회장은 최근 대학측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긍정적인 답변을 건넸다. 지난 2000년 서울대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그리고 2005

년 고려대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는 이 회장은 해외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와세다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

이 회장의 학위 수여식에는 홍라희 여사와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 겸 에버랜드 경영전략 담당,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 전무 등 가족들이 동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아름 기자 jar43@

### 한화건설 사랑나눔 집수리 봉사활동

한화건설은 지난 14일 이근포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추석맞이 사랑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사장은 임직원 20여 명과 함께 집을 수리, 바닥장판을 깔고 도배 등을 했다. 아울러 서울지역자활센터에 후원금 및 저소득층 가정에 후원물품을 각각 전달했다.

이 사장은 “건설회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집을 짓고 고치는 일이다”며 “오늘은 건축기사로 현장을 누비던 실력을 발휘해 봤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5년부터 사랑나눔 집수리 봉사를 통해 한 해 평균 100여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왔다. 노숙인을 위한 쉼터인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기부물품을 팔아 자선사업을 하는 ‘이웃다운 가게’도 지어 기부한 바 있다.

현대건설 신원철 상무는 “여로부터 추석에는 새로 집을 단장하고 떡과 음식을 나눠먹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이 있다”며 “한화건설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단순 기부뿐만 아니라 시장님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부미 기자 boom@

### 박병엽씨 금호타이어 사외이사에

금호타이어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박병엽 팬택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팬택의 기업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점에 대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명예회장과 채권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날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차등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자비율은 대주주 100대1, 일반주주는 3대1이다. 이선에 기자 isa@



### 금투협·우즈벡 증권협회 MOU 체결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 증권협회와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의 금융투자 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금투협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이머징마켓 진출 지원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한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을 교두보로 삼아 중앙아시아로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한 일환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황건호 금투협 회장과 코디르 노로프(Kodir Norov) 우즈베키스탄 증권협회가 회장이 서명한 양해각서에는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관련 정보의 교환경로 구축 ▲금융전문인력의 교류 및 인적교류 추진 ▲아시아지역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투자산업의 위상제고를 위한 공조 ▲양국 금융투자회사의 상호진출 지원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육 협력 강화 및 정보 교류방안 추진 등 인적, 물적 교류·협력 확대로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투자산업의 공동발전 및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중앙아시아 진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건호 회장은 “중앙아시아지역 국가 협회와 맺는 첫 MOU로서 본회가 역점 추진 중인 이머징마켓 진출 지원 사업의 지평을 중앙아시아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명품 선박, 대우조선해양이 만듭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12척의 세계 최우수 선박 선정, 바다를 건너 세계를 사로잡은 대우조선해양! 체계화된 건조시스템, 지속적 연구개발, 친환경 선박 건조, 첨단 IT기술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여 전세계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DSME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DAEWU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육포조선소 전경



아직  
석유가 남아있을 때

 세계의 행복을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응원합니다

## SK에너지는 미래를 달릴 에너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에너지를 책임지듯 내일도 책임지기 위해  
SK에너지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배터리 분리막 그리고 배터리 팩·모듈까지  
한 번에 모두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술을 꿈꾸며-  
대한민국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합니다

생각이 에너지다  SK 에너지

**엔크린 Plus+ 왕대박 대전치 (9/1~9/30)**  
3DTV, 갤럭시S 등 다양한 경품이 당신을 찾아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nClean.com을 참조하세요)

# 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뛰면서 만들겠습니다



## 격이 다른 신문, 맛이 다른 뉴스...이투데이 기자들을 만나십시오

“빛보다 빠르게, 보석 세공보다 정교하게!”  
 이투데이 기자들이 뉴스를 가공, 생산하는 과정의 키워드 (Key Word)는 ‘빛보다 빠름, 보석 세공보다 정교함’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이투데이의 뉴스는 정성들여 도정한 햅쌀이다. 햅쌀로 지은 맛있는 밥! 보석같은 밥! 이것이 바로 이투데이 뉴스다. 그 맛은 여느 밥과 다르다. 이투데이의 뉴스를 읽는 맛은 다른 매체의 뉴스를 읽는 맛과 다를 것이다. 이투데이가 온라인을 넘어 종이로까지 뉴스를 생산키로 한 데는 바로 뉴스의 차별화, 격(格)이 다른 뉴스를 독자들의 손에 제공하자는 작지만 매서운 결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투데이 기자들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차별화된 뉴스, 격이 다른 뉴스, 맛있는 뉴스, 보석같은 뉴스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식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매순간 뛰고 있다. 편집국과 시장(市場), 관가(官街)는 물론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투데이 기자들이 뛰어다니는 전선에는 경계가 없다. 이투데이 기자들은 독자들에게 보다 맛있고 차별화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뛰고, 고뇌하고, 생각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까지.  
 <편집자註>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상우 발행인 겸 편집인.



- ①편집국 회의 ②경제부 ③증권부
- ④온라인뉴스부 ⑤산업부 ⑥국제부
- ⑦금융부 ⑧유통경제부

# “국내 최고의 정론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 보통사람들의 특별한 축하 메시지

오는 10월 4일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창간을 앞두고 있는 이투데이에 축하와 성원의 메시지가 각계에서 답지하고 있다. 메시지마다 한국 언론의 기둥이 되거나, 새로운 등불이 되어 언론 신화(神話)를 창조할 것을 기원하는 이투데이 독자들의 성원이 이투데이 임직원엔 머리속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투데이는 각계에서 보낸 메시지에 응원과 격려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투데이는 한창 한창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다 무겁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언론의 사명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또한 성원의 메시지만큼이나 향후 질책의 메시지에도 온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축하하는 일은 축하받는 일보다 진정 즐겁고 행복하다. 창간을 성원해준 독자는 물론 미래 독자까지 모두 즐겁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편집자주>



추억의 국가  
신화가 되어 극심시요  
김민경이서 사랑 정동연  
2010.9.20

독립은 독자중으로부터 저지르는  
선한 정치신운으로의 도약, 기원합니다!  
[Signature]

이제 경제는 선하는 '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독자와 함께, 그리고 뒤를 쫓아~  
힘껏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내외 환영합니다.  
대우증권 조현철

이투데이 창간경제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언론의 새로운 등불로  
우뚝 서시길 희망합니다!  
신한카드 김성원  
이투데이의 멋진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김재원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승의 어깨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라산세븐 신인석

"석간의 리더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대카드 이영복

축하드립니다!  
투자사의 빛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 장석진

★ 꿈에 그리던 '이투데이' 창간  
축하합니다!!  
독자와 함께하는 경제지도  
다들 기대합니다.  
[Signature]

이투데이 창간으로.  
민초의 햇빛이 가득기를 바랍니다.  
KDB 이현도래 김도환 [Signature]

으라차차 이투데이! 경승하세요  
제일민초 전자책연구소 이현도, 사원

이투데이 창간을 축하드리며  
계속 건반의 연의 거름이 더 깊어지길 부원드립니다  
김태현 [Signature]

열수~ 축하해요~  
썩~ 사랑할게요!  
동화선생님 김수연 대표

이투데이 無限發展을  
기원합니다  
- 삼성생명 손기원 대리

이투데이 창간을 축하합니다  
[Signature]

앞서가는 신문 되세요 ^^  
CJ 제일저당 미디어캐피탈  
이우영 [Signature]

이투데이의 저명성만큼 축하합니다.  
우정건설과 선한의 좋은 뉴스 많이 부기  
기원하고 이투데이의 선한 기원합니다.  
우정건설 최의성 대표  
여의 김오진 총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 GS SHOP 신진은 대표 -

목포에서 서울까지 걸어갈 작정이라는 말에  
택시기사는 헛소리 말하며 한마디로 일축한다.

## 우리가 진짜 미친 걸까?

신미식 경기도 용인에서 13년째의 작가로 태어나고, 대학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했다. 시골에 처음 카메라를 갖고 야생에 카메라를 들고 이르러가, 아사 오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여행본능을 일깨우는 생동감 넘치는 글과 사진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줄 수 있게 하는 사진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민 전남 함평에서 7개월의 방목로 태어나고, 경기도에서 10년간의 생활했다. 《신미식》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고, 그 후 한국 최초 산악자전거 경기 CCI(캐니언) 기자, KDB 50년사(2000) 2권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산악자전거와 함께 대한민국 국토1번을 도보여행 한 이후, 그는 일주일에 세 번 한강을 따라 도보여행을 계속 하고 있다.

woongjin  
웅진북클럽

목포에서 서울까지 국토1번을 따라 450km를 걸어서 완주한  
**사진작가 신미식과  
글쟁이 이민의 도보여행기**

살아가면서 한 번도 미치고 싶은 일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언제나 살짜다!

나도 저 여행을 함께 해야 하는데.....  
구불한 시골길,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도랑길을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자꾸 겹쳐진다.  
- 여행스케치 리더 조병석

대한민국  
국토1번  
걷기여행

주머니 카펫과 같은 무게를  
일부러 두 남자의 여행이후.

신미식+이민 글 사진 | 352쪽 | 값 15,000원

**출간기념 이벤트 하나!** 교보, 알라딘, Yes24, 인터파크에서 “대한민국 국토1번 걷기여행 최고의 사진”을 뽑습니다.

**출간기념 이벤트 둘!** 마다가스카르 카페에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토1번 사진 전시회”가 있습니다.

**출간기념 이벤트 셋!** 10월 8일 “작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신미식, 이민 두 작가가 들려주는 국토1번 걷기여행의 특별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은 (주)웅진북클럽 단행본개발본부의 임프린트입니다. 문의)02 3670 1508 | 웅진북클럽 http://cafe.naver.com/wjbookclub | 블로그 http://blog.naver.com/sapawind

바른 교육 큰 사람 교육문화기업 웅진북클럽 www.wjbooks.co.kr

# 빛보다 빠른 온라인 뉴스... 오프라인서도 볼 수 있습니다



<p><b>정확한 속보·특종·기획</b></p> <p>태풍 콘파스로 운행중단</p> <p>2010. 9. 2. am 6:00</p> <p>콘파스 때문에 1호선 부개-구로 운행중단입니다!</p> <p>알았다!</p> <p>흥기자! 지하철 1호선 운행중단 됐대!</p> <p>여타 통신사보다 12분 빨리 처리</p>	<p><b>기사 하루 500건</b></p> <p>얼떨춰재 경쟁</p> <p>하루에 단독 및 기획기사가 10여건!</p> <p>지난 6개월간 단독 및 기획기사...</p> <p>1,000여건</p>	<p><b>글로벌 경제도 한눈에</b></p> <p>막강 국제부</p> <p>Good Morning!</p> <p>블룸버그 등 외신과 어깨를 나란히!</p> <p>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지역 이슈를...</p> <p>전문기자들이 분석·생산합니다.</p>	<p><b>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b></p> <p>경제신문 사이트 강자로</p> <p>저는 금성장 중입니다.</p> <p>앞으로 석간 창간으로 더욱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고...</p> <p>프리미엄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p>
--	--	---	---

## 정확한 진단 심층적 분석 : 경제 보는 눈 확 달라집니다

“부장님 신기자입니다! 출근중인데 태풍 콘파스 때문에 갑자기 1호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구간은 부개에서 구로입니다!”

“그래 알았다.” “흥기자, 지하철 1호선 운행 중단됐대, 속보 처리해, 빨리빨리!!”

강력 태풍 콘파스가 한반도에 상륙하던 지난 2일 오전 6시, 숨가쁘게 돌아가는 온라인 뉴스부 속보팀 현장 분위기가.

콘파스 영향으로 그날 갑작스럽게 지하철 운행이 정지되자 현장에 있던 본지 기자는 속보팀에 곧바로 이 사실을 전달, 이에 속보팀은 ‘지하철 1호선 국철구간 부개-구로 단전으로 열차운행 중단(1보)’ 기사를 여타 통신사보다 12분 빨리 처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엔터테인먼트팀 한옥주 기자가 <앵 앙드레 김 부동산 유산 300억 원대> 특종 기사를 터뜨려 순식간에 5만여건 이상 클릭수를 기록,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본사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독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춘 온라인뉴스부를 지난 3월8일 창설했다.

◆ 빠르고 정확한 속보·특종·기획

이에 기자들의 속보 처리능력이 배양되면서 포털에 전송하는 일일 기사건수가 온라인뉴스부 창설당시에 비해 60% 이상 급증한 500건에 달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점검, 심층적으로 다루는 집중 기획시리즈는 이투데이 대표적 킬링 콘텐츠로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경제부는 울머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대안으로 [긴급진단]부동산 양도세를 폐지하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배경과 역사, 해외 사례, 실제 사례 등을 시의성 있게 다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부는 [이통사 스마트폰전쟁 시작됐다] 시리즈를 기획, 아이폰4 출시전 전문이 감도는 스마트폰 시장

을 미리 점검해 소비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으며 [10년 먹거리 선점해라]의 기획기사는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급부상으로 신성장 동력찾기에 나선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을 다루며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규모가 4조원대로 급증하자 금융부는 [위기의 저축은행]을 긴급 기획해 저축은행 위기의 본질, 향후 생존 전략 등을 짚어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증권부는 투자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유의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뤄 보호망을 마련했다. 대박만을 노리다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린 기업들의 실체를 파헤치며 투자 유의점, 실패 사례 등을 상세히 짚어줬던 [기획]우회상장 기업' 기획물이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부동산팀은 [위기의 부동산 탈출구는 없나]를 긴급기획, DTI 완화 등의 각종 금융규제 완화책을 정부 차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8.29대책을 미리 조망하기도 했다.

국제부 역시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과 제휴, 글로벌 증시동향을 실시간 보도함은 물론 [분석]글로벌 M&A 大戰 시작되나, [진단]글로벌 더블딥 우려 사라지나 등의 기획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국제 정세를 심층분석, 호평을 받고 있다.

◆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도 강조

이처럼 이투데이 모든 부서가 실시간 속보 처리는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때마다 긴급진단, 집중 기획시리즈물을 생산, 독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오프라인 신문에도 접목시켜 프리미엄 석간경제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역사는 짧지만 성장 속도는 빠른, 그리고 <작지만 강한 언론 이투데이>는 프리미엄 석간 종합경제지 창간에 맞춰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삶의 철학을 제시하는 차별화된 언론이 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남편이 출장 갔다. 혼자만의 시간이다. 느긋하게 거품목욕이나 할까? 오늘따라 커피향이 유난히 진하다. 근데 왜 전화가 없지? 무슨 일 있는거 아냐?

**안보면 더 궁금해지고 기다려지는 것 가족은 이런 건가 봅니다**

가족, 그리고 집

파밀리에

파밀리에 전속모델-이요원

| 프리미엄 석간경제지 10월 4일 창간 |

## ‘신문 그 이상의 신문’...펼치면 미래가 보입니다



‘Innovation Korea’를 향한 힘찬 몸짓 오는 10월 4일 창간될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의 80여명 기자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여의도 사옥에서 ‘언론 신화창조’를 다짐하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06년 4월 인터넷 경제신문 창간이후 4년여 동안 온라인 언론의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한 이투데이가 ‘Innovation Korea-초일류(超一流)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오는 10월 4일 창간을 앞두고 있다.

2006년 인터넷 신문 출범...온라인 강자로 급부상  
일간경제지 창간...명실상부한 언론사로 자리매김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창간을 14일 앞둔 9월 20일의 이투데이.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이투데이의 社是입니다

오는 10월 4일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가 대한민국 언론의 신화창조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이투데이는 품격 있는 기획, 앞서가는 트렌드, 깊이 있는 진단을 통해 명품 On-Off 경제지로 초일류 대한민국 건설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명품 프리미엄 On-Off 경제지  
이투데이는 '고품격 프리미엄 경제지'를 지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앞서 신문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투데이는 품격 있는 기획과 앞서가는 트렌드 분석, 깊이 있는 진단을 통해 국민 모두가 1%가 되는 명품 대한민국을 만드는 첨병 역할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스테이트 기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잡지형의 과감한 레이아웃을 시도하는 한편 비주요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해 눈이 즐거운 신문, 머리가 행복한 신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는 '석간 경제지'입니다. 오전 숨가쁜 업무를 정리하고 오후에 배달되는 프리미엄 신문 이투데이를 통해 경영자는 경영의 지혜와 해안, 직장인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학생들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얻을 것입니다.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는 부(富)의 논리만을 좇는 신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國格)을 높이는 신문,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투데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1%가 되는 품격 높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석간 경제지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을 잘 갖추어나가고 있는가.' '외형의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투데이는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 국가로 가는 조건을 묻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강하게 하고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투데이 창간의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이투데이는 '대한민국의 개조(Innovation Korea)'를 통한 초일류(超一流) 국가 건설을 위한 고민을 거듭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 거듭나는 길은 멀고도 험할 것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을 것입니다. 그 길을 이투데이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초일류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하는 여정에서 이투데이는 더러는 등불이 되고, 더러는 기쁨 수 있는 언덕이 되어 더불어 발맞추고자 합니다.  
무수히 많은 언론사 가운데 하나로 단순히 자리 잡고 기억되는 것을 언론의 신화창조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투데이가 지향하는 신화창조는 '대한민국의 개조(Innovation Korea)'로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날 비로소 실현된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이투데이는 내일을 펼 것입니다.

국가를 강하게  
경제를 튼튼하게  
국민을 부자로

이투데이의 목표입니다